본 연구보고서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에서 제작 지원합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소년 진로탐색 활성화 방안 연구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소년 진로탐색 활성화 방안 연구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시원 연구원 / lsw@makehope.org

본 연구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협력기관으로서 남원과 진주의 수행기관인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교육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 지역 청소년의 탐색과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목차

연구 요약 12

제1장. 연구 개요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7
2. 연구 범위 18
   1) 시간적 범위 18
   2) 공간적 범위 및 대상 18
   3) 내용적 범위 18
3. 연구 방법 19
   1) 연구 모형 19
   2) 자료 수집방법 20
   3) 추진 일정 20

제2장. 자원 활용에 따른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21

1. 참여 청소년의 자원 활용 22
   1) 1·2차년 진로자원 현황 23
   2) 프로젝트 자원 연계 및 활용 현황 30
2. 참여 청소년 진로의식 변화 분석 36
   1) 설문조사 개요 36
   2) 설문조사 분석 40
   3) 심층인터뷰 개요 70
   4) 심층인터뷰 분석 72

제3장. 커먼즈(commons) 접근을 통한 자원활용 및 관리 95

1. 커먼즈적 접근의 응용 96
   1) 교육 커먼즈 패러다임의 필요성 96
   2) 자원 활용의 쌍방향성 및 확장성 98
2. 사회적 커머닝을 통한 진로 자원망 구축 100
   1) 진로탐색 허브로서의 자원망 100
   2) 진로 자원의 커머닝(commoning) 101

제4장. 결론 및 제언 103

1. 자원 활용 진로탐색 모델 효과성 검토 104
   1) 자원 활용 및 연계의 내실화 104
   2) 자원 활용에 따른 참여 청소년의 진로의식 변화 106
2. 진로탐색 자원 생태계의 지속과 확산 108
   1) 공교육 연계 방안 108
      (1) 공교육과의 접점 및 연계 필요성 108
      (2) 2차 연속사업 공교육 연계 방향 111
   2) 지속가능한 자원 생태계를 위하여 112
      (1) ‘쓰임’에서의 공동화를 통한 진로 커먼즈 확산 112
      (2) 자원 생태계 확산에 따른 문화적 활력 제고 113
      (3) 수행주체 거점화를 통한 자원관리 기반 구축 114

참고문헌 및 자료 118

표 목차

[표 1] 내용별 자료 수집방법 20
[표 2] 연구 추진 일정 20
[표 3]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활용한 내일상상프로젝트 운영 방안 22
[표 4] 남원 시내 권역 1차년 발굴 자원 23
[표 5] 남원 시내 권역 2차년 발굴 자원 25
[표 6] 남원 지리산 권역 1차년 발굴 자원 26
[표 7] 남원 지리산 권역 2차년 발굴 자원 27
[표 8] 진주 1차년 발굴 자원 27
[표 9] 진주 2차년 발굴 자원 29
[표 10] 남원 시내 권역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1차년) 30
[표 11] 남원 시내 권역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2차년) 31
[표 12] 남원 지리산 권역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1차년) 32
[표 13] 남원 지리산 권역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2차년) 33
[표 14] 진주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1차년) 33
[표 15] 2020 진주 상상학교 사람책 리스트 34
[표 16] 진주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2차년) 34
[표 17] 자아이해력 관련 세부 문항 37
[표 18] 협업능력 관련 세부 문항 37
[표 19] 진로주도성 관련 세부 문항 38
[표 20] 직업의식 관련 세부 문항 38
[표 21] 지역사회 인식 관련 세부 문항 38
[표 22] 연속참여자 지역 현황 63
[표 23] 연속참여자 연령 현황 63
[표 24] 심층인터뷰 대상 개요 71
[표 25] 심층인터뷰 주요 질문 개요 71
[표 26]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 89
[표 27] 희망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 검색 여부 90
[표 28] 희망 진로 및 직업 종사자와의 만남 여부 90
[표 29] 진로 관련 상담 경험 여부 90
[표 30] 희망 진로 및 직업 요구 능력 준비 여부 91
[표 31] 진로 및 목표 미설정 이유 91
[표 32] 진로와 직업 교과의 역량 요소 및 의미와 하위요소 간의 관계 108
[표 33] 2015 진로와 직업 내용체계 표 (중학교 교과) 109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추진체계 19
[그림 2] 응답자 지역 분포 현황 40
[그림 3] 연령 비율(학교) 41
[그림 4] 연령 비율(학년) 41
[그림 5] 참여 프로젝트별 응답자 현황 42
[그림 6] 핵심역량 지수 42
[그림 7] 핵심역량 지수 변화 43
[그림 8] 자아이해력-자기이해 44
[그림 9] 나의 재능에 대한 이해 정도 44
[그림 10] 나의 선호에 대한 이해 정도 45
[그림 11] 나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 정도 45
[그림 12] 자기인식-주도성 46
[그림 13] 나의 결정에 대한 신뢰 정도 46
[그림 14] 나의 문제 해결력에 대한 신뢰 정도 46
[그림 15] 전반적인 삶의 주도성 정도 47
[그림 16] 또래 관계 47
[그림 17]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정도 48
[그림 18] 친구와 고민을 나누는 정도 48

[그림 19] 협동의식 49
[그림 20] 그룹활동에서의 나의 노력 정도 49
[그림 21] 그룹활동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 49
[그림 22] 그룹활동에서 협동 문제 해결 정도 50
[그림 23] 그룹활동에서의 정보 공유 정도 50
[그림 24] 진로주도성 51
[그림 25] 진로 결정에 있어서 주도성 정도 51
[그림 26] 진로 적합성에 대한 자기 확신 정도 51
[그림 27] 진로 결정에 있어서 확신 정도 52
[그림 28] 직업의식 53
[그림 29] 장래 직업생활 중요도-능력 발휘 및 성취감 53
[그림 30] 장래 직업생활 중요도-높은 소득 53
[그림 31] 장래 직업생활 중요도-안정성 54
[그림 32] 장래 직업생활 중요도-협동 54
[그림 33] 장래 직업생활 중요도-기여 55
[그림 34] 장래 직업생활 중요도-흥미 55
[그림 35] 지역사회 인식 56
[그림 36] 우리 동네 거주 희망 정도 56
[그림 37] 우리 동네 거주 요건 긍정 정도 56
[그림 38] 우리 동네 주민과의 관계성 정도 57
[그림 39]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 정도 57
[그림 40] 우리 지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 정도 58
[그림 41] 관심사 58
[그림 42] 가치관 59
[그림 43] 진로에 대한 인식 59
[그림 44]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 59
[그림 45] 지역별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 60
[그림 46] 학교(연령)별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 60
[그림 47] 진로 상담 경험 여부 61
[그림 48] 진로 및 목표 미설정 이유 61
[그림 49] 학교별 진로 및 목표 미설정 이유 62
[그림 50] 연속참여자 진로의식 및 역량 63
[그림 51] 연속참여자 진로의식 및 역량 세부 항목 64
[그림 52] 연속참여자 자기이해 64
[그림 53] 연속참여자 자기인식-주도성 정도 65
[그림 54] 연속참여자 또래 관계 정도 65
[그림 55] 연속참여자 협동의식 66
[그림 56] 연속참여자 진로주도성 66
[그림 57] 연속참여자 진로의식 67
[그림 58] 연속참여자 지역사회 인식 67
[그림 59] 연속참여자 진로에 대한 인식 68
[그림 60] 연속참여자 관심사 68
[그림 61] 연속참여자 가치관 69
[그림 62] '자기이해' 세부 문항 점수 변화 (프로젝트별) 73
[그림 63] '자기인식-주도성' 세부 문항 점수 변화 (프로젝트별) 75
[그림 64] '또래 관계' 세부 문항 점수 변화 (프로젝트별) 77
[그림 65] '협동의식' 세부 문항 점수 변화 (프로젝트별) 78
[그림 66] 진로주도성 세부 문항 점수 변화 (프로젝트별) 80
[그림 67] 직업의식 세부 문항 점수 변화 (프로젝트별) 82
[그림 68] 지역사회 인식 세부 문항 점수 변화 (지역별) 84
[그림 69] 지역사회 인식 세부 문항 점수 변화 (프로젝트별) 85
[그림 70] 진로 및 목표 미설정 이유 (지역별) 92
[그림 71] 교육 커먼즈 현안보고 분석모형 97
[그림 72] 내일상상프로젝트 자원 커머닝 과정 101
[그림 73] 마을(교육)공동체 제도화의 선순환 구조 116
[그림 74] 의정부 지역 교육생태계 117

연구 요약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 연속사업(2019~2021)은 1차 연속사업을 통해 구축한 지역 청소년의 진로탐색 모델을 남원과 진주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실험하고 효과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진로탐색에 필요한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2차 연속사업의 2차년에 해당하는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참여 청소년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원 활용 및 연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프로젝트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원 네트워크의 자립 및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진로탐색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2차년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 핵심 지향가치와 관련한 5가지 핵심 역량지수를 조사하고, 프로젝트 전후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지역별, 연령별, 프로젝트팀 특성별로 지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자원 활용 정도가 진로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정량적 지수의 상호보완적 데이터로서 참여 청소년 및 지역기관 파트너, 지역자원조사 참여자,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종합적인 효과성을 분석한다. 참여 청소년의 성장 및 유의미한 변화 지표는 향후 내일상상프로젝트 사업 모델의 지속 및 확산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장은 진로 자원 네트워크의 자립 및 지속가능성 모색의 측면에서 커먼즈적 접근을 응용하여 프로젝트 자원 활용 및 관리 방안을 제언한다. 커먼즈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자원 발굴 및 활용과 유사성을 지니며, 향후 자원망 구축을 위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선 공동자원으로서의 커먼즈가 보편적 의미의 자원에서 보다 확장되어 사회적 협동 속에서 생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커머너에 해당하는 자원 주체와 청소년은 단순히 자원을 제공받는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자원을 재정의한다.

또한 커먼즈는 자원의 특성이 아니라 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하나의 자원은 한 가지 특성만 갖고 있지 않으며, 같은 자원이라도 연결되는 주체나 방식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의 쌍방향성과 확장성은 내일상상프로젝트 자원 활용 패턴에서도 관찰된다. 개별 자원은 하나의 직업적 특성만 지닌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변 활동이나 관심사로 확장되고 연결해줄 수 있는 진로탐색 허브로서 기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목적이나 주제가 반드시 직업과 연결되지 않아도 참여 청소년의 진로의식과 역량지수는 증가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앞선 자원 활용 모델의 효과성과 커먼즈적 접근을 응용한 자원관리 방안을 종합하여, 진로탐색 자원 생태계의 자립 지속 방안을 제언한다. 우선 공교육 연계방안 측면에서는 2015년 개정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개편된 '진로와 직업' 과목 내 역량 요소와의 비교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 모델인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공교육 내 진로 모델과의 어떠한 접점이 존재하는지, 상호보완적 역할로서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델의 공교육 연계 필요성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2차 연속사업 참여 지역의 공교육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원망의 기대효과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행기관의 거점화 방안을 제언한다. 자원의 소유에서의 공동화가 아닌 '쓰임'에서의 커먼즈화를 통해 지역의 진로 자원은 확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 진로탐색-자원 연계' 모델은 지역구성원 간 상호 인식 및 관계성 회복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자원망의 지속을 위해서는 자원관리 거점 주체인 지역 내 수행기관이 매우 중요하며, 민간 주체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교육 및 지자체의 의지, 지속적인 후속 사례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 효과 검정 및 제도적·정책적 제언이 병행되어야 한다.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1차 연속사업(2016~2018)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 니즈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프로젝트 모델인 '내일상상프로젝트'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2차 연속사업(2019~2021)에서는 남원과 진주라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모델 적용을 통한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는 진로탐색 생태계 확산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다.

2차 연속사업 중 2차년 사업의 핵심 방향은 '청소년의 진로 니즈와 지역자원의 연결'이었다. 지역자원 연결을 통한 프로젝트 참여 청소년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청소년 진로탐색 활동을 매개로 한 자원의 유기적 연계라는 상호보완적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사업 기조에 따라 남원과 진주 지역 모두 지역자원 조사 및 발굴을 통한 청소년 프로젝트 연계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 지역별 자원 현황에 있어 양적으로 1차년에 비해 확대된 경향을 보였으며, 자원의 다양성 및 청소년 활동 연계 의지 등 질적 측면에서도 1차년과 비교해 발전된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참여 청소년의 지역자원 연계 수준 및 빈도 역시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원 연계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자원 활용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의식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 내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자원네트워크의 지역사회 및 공교육 확산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는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별 수행주체를 거점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 사업 모델의 지속과 확산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참여 청소년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원 활용 및 연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자원 활용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의식 변화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원 네트워크의 자립 및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원 활용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 핵심 지향가치 관련 5가지 핵심 역량지수를 조사하고, 프로젝트 전후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지역별, 연령별, 프로젝트팀 특성별로 지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자원 활용 정도가 진로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 청소년의 성장 및 유의미한 변화 지표는 향후 내일상상프로젝트 사업 모델의 지속 및 확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진로 자원 네트워크의 자립 및 지속가능성 모색을 위해서는 '커먼즈(commons)' 개념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내일상상프로젝트 자원 활용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 2020년 6월 ~ 2021년 2월

2) 공간적 범위 및 대상

- 남원시 지리산 권역 (산내면, 인월면, 운봉면, 아영면) 14~17세 청소년 및 이해관계자(교사, 주요기관 활동가, 청년 등 지역 주민)
- 남원시 시내 권역 14~17세 청소년 및 이해관계자(교사, 주요기관 활동가, 청년 등 지역 주민)
- 진주시 전역 14~17세 청소년 및 이해관계자(교사, 주요기관 활동가, 청년 등 지역 주민)

3) 내용적 범위

- 참여 청소년 진로의식 변화 분석
  - → 지역별 자원 현황 및 연계 양상 분석
  - → 진로의식 관련 5가지 핵심 역량지수 분석
  - → 지역별·연령별 특성에 따른 진로의식 변화 분석
  - → 자원 활용 수준 및 방식에 따른 진로의식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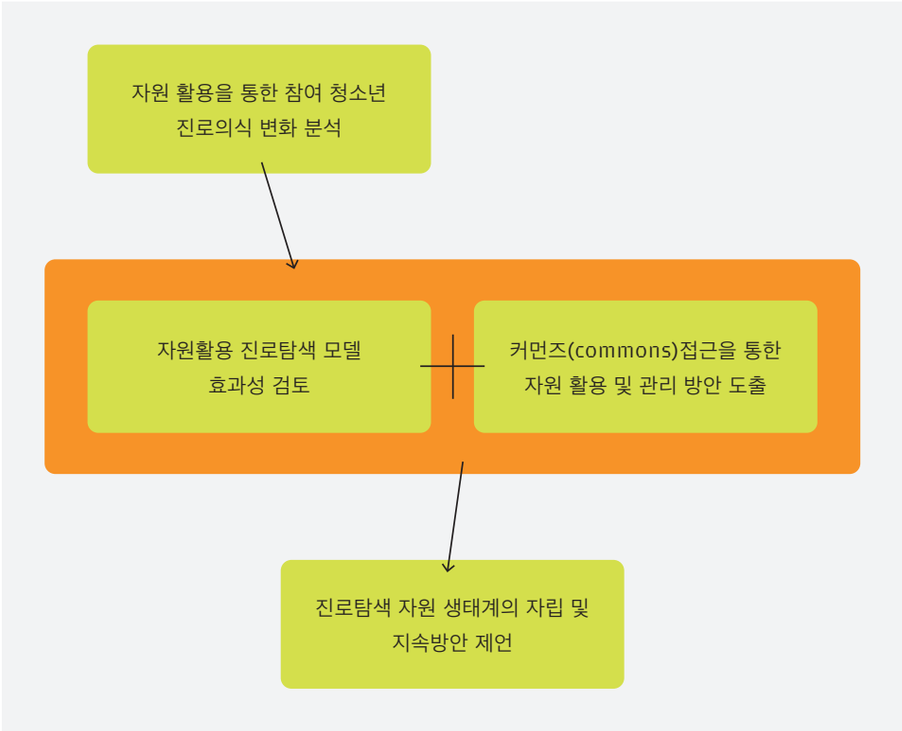
- 커먼즈(commons) 접근을 통한 자원 활용 및 관리
  - → 커먼즈의 개념 및 교육커먼즈 관점의 자원 접근 분석
  - → 커먼즈적 접근에 따른 진로 자원 관리 방안 도출
  - → 자원 활용 진로탐색 모델의 효과성 검토

- 진로탐색 자원 생태계의 자립 및 지속가능성
  - → 공교육 연계 비교사례 분석
  - → 지역주체 연계 비교사례 분석
  - → 자원 플랫폼 구축 및 공교육 연계를 통한 지역 내 자립 및 지속방안 제언

3.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진로탐색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체계는 [그림 1]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참여 청소년 진로의식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내일상상프로젝트 진로탐색 모델의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커먼즈(commons) 접근을 통한 자원 활용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단계에서는 1·2단계를 종합하여 자원 생태계 자립 및 지속방안을 제언하였다.



[그림 1] 연구 추진체계

2) 자료 수집방법

[표 1]와 같이 주요 내용별 자료 수집방법을 유형화하였다. 1단계인 참여 청소년 진로의식 변화 부문은 설문조사 및 FGI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단계는 커먼즈의 개념 및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문헌 및 자료조사를 병행하였다. 3단계는 결론 및 제언을 위해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한 비교사례 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전문가	참여자	이해관계자
지역별 자원 현황 및 연계 양상 분석		●	●		●	
참여 청소년 진로의식 변화 분석		●	●		●	
커먼즈의 개념 및 교육커먼즈 관점의 자원 접근 분석	●	●				
커먼즈적 접근에 따른 진로자원 관리 방안 도출	●	●				
자원 활용 진로탐색 모델 효과성 검토	●	●		●		●
공교육 연계 비교사례 분석	●	●		●		●
지역주체 연계 비교사례 분석	●	●		●		●
지역 수행주체의 자원 관리 및 활동 연계	●	●				●

[표 1] 내용별 자료 수집방법

3) 추진 일정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문헌·자료조사				■	■	■	■	■	■	■	■	
사례조사				■			■				■	
설문조사				■							■	
참여청소년 심층인터뷰									■	■	■	
이해관계자 인터뷰					■				■			
전문가 자문					■				■		■	

[표 2] 연구 추진 일정

자원 활용에 따른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1. 참여 청소년의 자원 활용
2. 참여 청소년 진로의식 변화 분석

2

1. 참여 청소년의 자원 활용

2차 연속사업의 1차년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자원의 질적 결핍과 지역 간 자원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회자본 확충을 제언한 바 있다. 특히 지역사회 사회자본 활용 및 운영에 있어서는 물적자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진로자원을 발굴함으로써 진로탐색 프로젝트와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사회자본 구분	활용 및 운영 방안
학교 사회자본	공교육 연계 모형
지역사회 사회자본	공동자원체계 구축

[표 3]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활용한 내일상상프로젝트 운영 방안 (자료 : 유진(2020))

이를 바탕으로 협력기관인 희망제작소는 2차년 지역자원조사와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인 3개 지역 수행기관과 함께 자원 발굴에 있어서의 2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단순히 양적인 확대에서 탈피해 지역의 요구와 모집 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성의 확립이다. 남원 2개 지역과 진주는 모두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수행기관의 방향성 측면에서도 독립된 특성과 강점이 존재한다. 2차년에는 이러한 요소를 활용해 특성화된 자원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 측면이 있다.

둘째는 물적·인적 자원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자본의 발굴이다. 1차년 연구조사를 통해 참여 청소년의 진로의식과 만족도는 특정 물적자본의 규모에 국한되기보다는 길잡이교사 및 진로 멘토와의 관계, 또래 관계,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다양한 인물자원과의 교류 등 비가시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자본 기반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로자원 조사 과정 역시 파편화된 물적자본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특정 자원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는 사회자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1·2차년 진로자원 현황

남원 시내 권역의 수행기관인 춘향골교육공동체는 1차년과 2차년 단계적으로 목표한 진로 자원을 다양하게 발굴하였다. 1차년인 2019년도에는 문화공간이나 청소년기관, 지역사회 내 도서관 등을 포함한 48개의 물적자원을 발굴하였다. 1차년 자원조사는 진로자원 발굴의 기초 단계로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과 연계가 가능한 자원들을 파악하고 아카이브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측면이 있다.

번호	진로 자원	구분	자원 특징
1	국립민속국악원	공간자원	국악전시관, 국악공연
2	금동작은도서관	도서관	청소년 프로그램, 공간, 도서
3	김병종미술관	공간자원	전시, 체험교육프로그램, 아트캠프
4	꼼지락아트	공간자원	공예활동, 쿠킹클래스 등 체험
5	꿈꾸는 자작나무	공간자원	캘리그라피, 공예활동, 기초미술
6	남원 YWCA	공간자원	사회참여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8	남원가온공예협동조합	공간자원	수공예, 원예 활동
9	남원공방	공간자원	목공, 가죽공예, 수공예 활동
10	남원교육문화회관	공간자원	특기 적성 교육
11	남원사회복지관	공간자원	취약계층 아동 지원, 공간 대여
12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공간자원	마을 학교, 공간 대여
13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자원	청소년 자치활동, 동아리, 진로 프로그램, 방과후 아카데미, 공간 대여
14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	인문학 강연, 문화 분야 특강, 도서 대여, 도서 관련 프로그램
15	남원진로체험지원센터	공간자원	진로 특강, 체험, 박람회, 진로 동아리 활동
16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공간자원	천체 관측 및 관련 체험 활동, 전시관
17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자원	다문화 청소년 진로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
18	달토끼네집	공간자원	요리 관련 체험 프로그램, 교육
19	독우물 작은도서관	도서관	독서 관련 활동, 독서 교육
20	메카센트럴도서관	도서관	가죽공예, 보드게임, 책놀이, 요리수업

번호	진로 자원	구분	자원 특징
21	모모에게말걸기 작은도서관	도서관	방과 후 마을학교, 글쓰기 동아리 활동
22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고	공간자원	영화 상영, 영상 교육, 보드게임, 축제
23	미미카페공방	공간자원	떡, 쌀베이킹, 바리스타 관련 프로그램
24	바늘그리고나 손뜨개공방	공간자원	손뜨개 교육 프로그램
25	빨간사과 작은도서관	도서관	독서 교육, 활동, 그림책 대여
26	새싹작은도서관	도서관	독서 교육, 활동, 도서 대여
27	손놀림-폼앤피오피	공간자원	리본공예, 손글씨, 종이접기, 한지공예 교육
28	송동 작은도서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독서동아리 활동, 체육시설
29	수지미술관	공간자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전시, 공간
30	숲 볼링장	공간자원	볼링 강습 및 지도
31	아티	공간자원	목공예 체험
32	오들작은도서관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33	우리놀이문화센터	공간자원	전래놀이 및 다도체험 체험, 도구 대여
34	이그린작은도서관	도서관	도서, 공간 대여
35	자원봉사센터	공간자원	청소년 멘토링,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 기본교육
36	좋은열매도서관	도서관	독서미술, 창의미술, 등 미술 관련 교육, 동아리 활동 공간 대여
37	주천 작은도서관	도서관	도서 대여, 동아리, 도서관 축제
38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공간자원	자유학기제 연계 체험 프로그램
39	쪼재작업실	공간자원	요리 수업
40	청년문화협동조합놀자	공간자원	놀자랩, 메이커 체험, 교육
41	청소년수련관	공간자원	공간 대여, 청소년 문화, 자치 진로 활동
42	핸드메이드	공간자원	재봉기, 바느질 교육 프로그램, 수공예 활동
43	핸드메이드미	공간자원	공예 체험 활동
44	호아 핸드메이드	공간자원	과학 및 수학 연계 미술 활동, 공예 체험
45	혼불 작은도서관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공간
46	혼불문학관	공간자원	<혼불> 작품 관련 체험 활동
47	황죽 작은도서관	도서관	문화 체험 활동
48	휴먼시아 작은도서관	도서관	독서 관련 활동, 교육, 공예 체험

[표 4] 남원 시내 권역 1차년 발굴 자원

2차년 발굴 양상은 인물자원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활동과의 연계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원 시내 권역의 모집 특성상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자원을 발굴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이에 1차년 중심이 되었던 공간 및 문화자원의 경우 청소년들의 다양한 니즈에 유연하게 부응하기 어려운 측면 또한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인물자원 중심의 자원발굴은 직업 및 진로 분야도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에 관심이 있는 마을 주민, N잡 활동가, 청년 등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꾀하여 프로젝트와의 접점을 넓힐 수 있었다. 단순히 특정 직업 분야 강사로서가 아니라 진로 멘토, 사람책, 직업 너머의 일 세계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번호	진로 자원	구분	자원 특징
1	이상원	인물자원	소방관
2	김태훈	인물자원	공무원
3	채복희	인물자원	책방 성지서림
4	형주연	인물자원	청소년지도사
5	서현희	인물자원	아나운서
6	이주현	인물자원	광고 디자이너
8	서진희	인물자원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놀자 / 3D 메이커스페이스
9	김지현	인물자원	남원페이지 관리자
10	함경록	인물자원	영화영상 제작자
11	최한범	인물자원	영상제작자
12	김춘수	인물자원	연극예술인
13	김양오	인물자원	남원문화유산 해설사
14	박석주	인물자원	작곡가 / 기타리스트
15	정그림	인물자원	요리연구가
16	박꽃하얀	인물자원	캐릭터 굿즈 디자이너
17	박원배	인물자원	대금 연주가
18	유치석	인물자원	학예연구사
19	김민화	인물자원	캐릭터 디자이너
20	조형아	인물자원	192 갤러리카페 공방
21	나혜영	인물자원	미미떡카페공방
22	김경림	인물자원	언어심리상담사

번호	진로 자원	구분	자원 특징
23	양규완	인물자원	그래픽 디자이너
24	정소미	인물자원	디저트카페 모련
25	소 빈	인물자원	복합문화예술인
26	김리을	인물자원	한복 정장 디자이너
27	이환주	인물자원	피리 연구가
28	권태경	인물자원	청년 여성 농업인
29	김보금	인물자원	국악인
30	이성진	인물자원	청년낙농업가
31	김양택	인물자원	학교체육시설관리 매니저
32	최순호	인물자원	지리산 닮다 담다
33	장현미	인물자원	메밀꽃 피는 항아리
34	장수호	인물자원	타일시공사
35	박자연	인물자원	육가공 공장 더찹샵

[표 5] 남원 시내 권역 2차년 발굴 자원

남원 지리산 권역의 경우 지역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4개 면(산내, 인월, 운봉, 아영) 내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리산 권역의 1차년 자원들은 오히려 참여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굴되고 활용된 측면이 있다.

번호	진로 자원	구분	자원 특징
1	아꿈 학부모회	인물자원	인적 자본 공유
2	작은변화포럼	문화자원	시민사회 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인적 자본
3	지리산 이음 사회적협동조합	문화/ 공간자원	공간 대관, 청소년 네트워크 지원
4	품안 작은도서관	공간자원	도서, 영상, 공간, 교육 프로그램
5	사단법인 한생명	공간자원	목공실, 느티나무 사랑방, 재활용 옷가게

[표 6] 남원 지리산 권역 1차년 발굴 자원

2차년 남원 지리산 권역은 보다 분명한 자원 발굴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지리산권이 가진 공동체적 삶, 대안교육, 생태·환경적 관심, 문화예술적 실험 등의 가치를 진로라는 키워드로 공유할 수 있는 12명의 인물자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일과 삶을 청소년들의 활동과 연계하는 방식을 고민하였다. [표 7]과 같이 2차년에 발굴된 인물자원들은 하나의 직업적 틀로 구분하기 어려운 다양한 관심사와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번호	진로 자원	구분	자원 특징
1	고은정	인물자원	음식문화운동가 / 건강한 먹을거리
2	뿌나	인물자원	마을 청년 / 작은집짓기 / 농사 / 목공
3	이승현	인물자원	친환경매장 ‘느티나무’ / 홍보 / 마을문화
4	김한범	인물자원	산청 청소년 자치공간 명왕성 코디네이터
5	이일형	인물자원	영농조합법인 ‘동편제마을’ / 마을 활동가
6	정영학	인물자원	축산 / 유가공 / ‘희망씨앗농장’ 운영
7	박명희	인물자원	방송댄스 강사
8	윤석우	인물자원	건축 / 포도농사
9	전제비	인물자원	마을카페 ‘제비’ / 바리스타 / 여행 / 사진
10	최광현	인물자원	청계원광어린이집 / 성직자
11	황애리	인물자원	미술작가 / 강사
12	이은진	인물자원	함양 카페 ‘빈둥’ / 대안교육 / 글쓰기

[표 7] 남원 지리산 권역 2차년 발굴 자원

진주 지역의 1차년 지역자원조사는 청소년 진로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자원 10개, 공간자원 10개, 인물자원 10명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인물자원 일부는 2019년 상반기 진행한 상상학교 사람책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전체 자원 리플렛을 제작해 공교육 및 마을 내 거점 주체들에게 배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만 차년도 목표 설정에 있어 양적 측면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진주 전역의 다양한 청소년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자원 발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도 있었다.

번호	진로 자원	구분	자원 특징
1	강경화	인물자원	관심 분야 소개 및 연결, 멘토링
2	강신영	인물자원	충무공동 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상담 등
3	경남대 마을공동체지원단	문화자원	마을공동체 및 마을기업 교육, 컨설팅
4	권은진	인물자원	심리상담, 하브루타 메타인지 개발,공동체 의식 교육
5	김민숙	인물자원	멘토링, 이공계 진로상담, 과학 관련 체험

번호	진로 자원	구분	자원 특징
6	김소형	인물자원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연결, 멘토링, 상담, 정보 제공, 프로그램 기획
8	김수현	인물자원	워크숍 진행
9	김준형	인물자원	노동상담(임금체불, 부당해고, 노조가입, 직장갑질 등)
10	김태양	인물자원	특강
11	도서출판 곰단지야	문화자원	출판, 홍보물 제작지원, 글쓰기 독서지도, 도서 제작 특강
12	마하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간자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마을학교 활동
13	모두의 아지트	공간자원	공간 대여
14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문화자원	진주청소년신문 <필통>, 공간 대여, 청소년 자기성장캠프
15	사회복지법인 진주시사회복복지협의회	문화자원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16	손경란	인물자원	청소년 상담사 연결, 청소년상담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 소개
17	오형래	인물자원	사회적기업 관련 멘토링, 특강
18	이수민	인물자원	페미니즘/평화통일 교육, 대안학교 관련 고민상담
19	진주 시니어클럽	문화자원	실버카페, 노인 관련 프로그램, 공간
20	진주YMCA	문화자원	시민운동, 환경운동, 청소년 운동, 사회체육, 어린이 교육 활동, 공간 대여
21	진주교육공동체 결	문화자원	관심주제 관련 멘토 연결, 청소년 토론회 지원
22	진주놀자학교 놀고재비협동조합	문화자원	친화력프로그램, 응집력프로그램, 놀이문화확산놀이터활동, 수업연계활동
23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화자원	부모교육, 심리검사,
24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문화자원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1:1 멘토링
25	진주시민미디어센터	문화자원	미디어 교육, 체험, 중고등학생 동아리 활동, 영화 정기상영회
26	진주여성회	문화자원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청소년 활동 공간 대여
27	진주여성회 부설 달팽이어린이도서관	문화자원	청소년교육 나눔 활동, 체험 보조교사 활동
28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문화자원	직거래 장터, 아나바다 장터, 고구마와 따리 캐기, 우리밀 체험

번호	진로 자원	구분	자원 특징
29	진주지역자활센터	문화자원	교육, 상담, 일자리 연계
30	청년협동조합 밥꿈	문화자원	초중등생을 대상 중앙시장 체험 및 경제교육 등
3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	문화자원	청소년인권교육,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캠페인 및 활동, 청소년인권 관련 활동 공간 대여

[표 8] 진주 1차년 발굴 자원

진주 지역 수행기관인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각 읍면동을 거점으로 마을단위 활동가 및 공간을 중심으로 한' 자원 발굴을 2차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청소년의 활동 반경 내에서 쉽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초단위 마을 내 진로 자원 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번호	진로 자원	구분	자원 특징
1	강경민	인물자원	16년차 자동차 정비공
2	강동옥	인물자원	진주오광대예능보유자 무형문화재, 경남문화예술회관관장, 풍류춤연구소
3	김수현	인물자원	청년협동조합 밥꿈 대표
4	김제영	인물자원	경남도립예술단 문화기획 PD, 진주오광대 보존회 이수자
5	김태린	인물자원	무용교육자, 진주민예총 한국무용활동가
6	박상태	인물자원	레크레이션 지도자, 이벤트 지도자 양성, 교양건강강의 진
7	성수연	인물자원	나만의 책 출판, 북씨앗
8	소희주	인물자원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대표
9	이미경	인물자원	북아티스트, 문화기획자, 예술 강사, 이수 디크라트 운영
10	이원경	인물자원	푸드스타일리스트, 바리스타 및 쿠킹 관련 교육
11	이정희	인물자원	지역 음악팀 맥박 소속 활동가
12	정순철	인물자원	놀자학교협동조합 이사장, 전래놀이 활동가
13	조재필	인물자원	월드태권도 총관장, 카바디 국가대표
14	지종근	인물자원	진주 YMCA 총장
15	최우영	인물자원	진주 에나뮤직 대표, 로컬 음악 기획
16	권영란	인물자원	시민기록단 지역쓰담 작가, 기자

[표 7] 남원 지리산 권역 2차년 발굴 자원

2) 프로젝트 자원 연계 및 활용 현황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자원 활용 및 연계 양상은 이어서 다룰 '자원 활용에 따른 청소년 진로의식 변화 정도'와 맞물려 살펴본다면 자원 활용 모델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지역별로 1차년과 2차년의 자원 연계 빈도 및 수준을 비교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남원 시내 권역에서는 1차년 48개의 물적자원을 발굴하였음에도 청소년들의 프로젝트 활동과의 연계 수준은 높지 않았다.(유진, 2020) 우선 모집방식에 있어 남원 시내 권역은 상대적으로 관련 활동 경험이 적고 동기가 부족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추천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관심사 도출이나 팀원 간 관계 형성 등 기초 역량 향상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1차년 자원조사는 발굴 및 아카이빙을 통한 양적 확산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도 원인이 될 수 있다. 1차년 3개 프로젝트 가운데 '행복을 전하는 악세사리' 팀에서 악세사리 판매 수익금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행사를 진행한 사례 외에는 지역사회와의 접점은 부족했다.

프로젝트 팀명	프로젝트 주제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일상탈출	인근 여행과 탐방을 통한 지역 내 현장체험 코스 발굴	→ 없음
행복을 전하는 악세사리	악세사리 디자인을 통한 지역교류	→ 악세사리 판매 수익금을 활용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과 교류
W.S.(우리들의 축구)	축구를 통한 지역 및 또래 교류	→ 없음

[표 10] 남원 시내 권역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1차년)

이에 수행주체인 춘향골교육공동체는 2차년 활동 시작에 앞서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의 방향성을 점검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남원 시내 권역은 2차년에도 무려 35개의 인물자원을 발굴하였다. 공간자원에 비해 인물자원이 가지는 연계의 유연성, 다양한 진로 자원의 허브로서의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1차년에는 진행하지 않았던 사람책 활동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자 한 것이다.

남원 시내 권역은 2단계 내일생각워크숍 모듈에서 관심 분야별 6개 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사람책 활동을 진행하였다. '국악', '낙농업', '영상제작과 유튜브', '베이킹', '캐릭터디자인', '음악과 예술' 등을 주제로 6개 팀은 총 12개의 사람책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일생각워크숍에서 구체화한 6개 팀 가운데 5개 팀이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로 연결되었다. 이때 찾아가는 사람책 활동에서 연결된 주제는 5개 팀 중 'KMI', 'GROOMY', '덕분에', '개인주의'의 4개 팀에 해당한다. '보드게임' 팀의 경우 워크숍 주제로부터 연결되지 않고 새로 기획된 프로젝트였으나, 역시 발굴 자원인 메이커스페이스와 연계하는 보드게임 제작 활동을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팀명	프로젝트 주제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보드게임	남원 구도심을 주제로 한 메이커 보드게임 제작	→ 지역 내 메이커스페이스 놀자랩과 연계 → 일상에서 지나치는 남원 구도심이라는 주제와 보드게임 제작이라는 참여자 니즈를 조합한 프로젝트 활동 진행
KMI	동서양 악기를 활용한 공연 및 영상 제작	→ 지역에서 발굴한 자원인 국악인, 대금연주자 등과 연계한 사람책 진행 → 사람책을 통해 진로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 프로젝트 멘토로 악기 연습 및 공연 준비 등 진로 목표 구체화 지원
GROOMY	작사·작곡 및 뮤직비디오 제작	→ 지역 내 기타리스트 및 연극예술인을 직접 인터뷰하는 찾아가는 사람책 활동 진행 → 음악가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사작곡을 진행하고, 지역 내 영상제작자와 연계하여 뮤직비디오로 촬영
덕분에	'덕분에쿠키' 제작 및 판매 (베이킹)	→ 지역 내 디저트카페와 연계하여 베이킹 활동을 통한 일과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 → 진로 분야를 구체화하고, 공간 및 인물자원과 연계해 쿠키 제작 및 판매, 기부 활동 진행
개인주의	캐릭터디자인을 통한 지역교류	→ 캐릭터디자인 공방 대표 등과 연계한 사람책 진행 → 사람책을 통해 진로 분야를 구체화하고 사람책 가운데 1명을 진로 멘토로 선정해 굿즈 디자인 및 제작 진행

[표 11] 남원 시내 권역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2차년)

남원 지리산 권역은 1·2차년 모두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매우 높았다. 1차년은 1단계 상상학교부터 설계한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주제가 3단계인 내일찾기프로젝트 모델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기조 아래 기획된 3개 프로젝트는 각각 주제는 달랐으나 모두 마을과의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된 측면이 있다. '인월다큐' 팀은 지역 시장과 시장의 상인들의 이야기를 다큐로 제작하였고, '퀼트' 팀은 디자인과 굿즈 제작, 단편영화 제작이라는 다양한 관심사를 하나로 엮어 지역의 일상을 담아내는 프로젝트로 연결되었다.

특히 '응답하라 2005'는 지역특산물인 사과로 잼을 만들어 지역

시장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활용해 마을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표 12]과 같이 다양한 지역자원과 거점 주체와 교류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의 핵심은 진로 자원의 일방적 배포가 아니라, 프로젝트 과정의 단면마다 참여 청소년의 니즈에 가장 부합하는 자원을 발굴하여 연결하는 작업이었다는 점이다.

프로젝트 팀명	프로젝트 주제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응답하라 2005	지역특산물 판매 및 마을벽화 그리기	→ 사과잼 제작을 위해 지역 내 사과농장과 연결 → 사과잼 판매허가를 위해 시장상인회 및 마을 주체로부터 후속활동 예산 지원 → 지역 시장에서 사과잼 판매 → 수익금을 활용한 마을벽화 그리기를 위해 지역 내 미술 멘토와 연결
인월다큐	지역시장을 배경으로 한 다큐 제작	→ 지역 시장 상인 인터뷰 및 영상 촬영을 통한 주민 교류
퀼트	마을 주제로 한 굿즈 및 스톱모션 영상 제작	→ 지리산 마을을 주제로 한 굿즈를 제작해 지역 내 홍보 → 지역 내 일상을 담은 단편영화 제작 및 상영

[표 12] 남원 지리산 권역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1차년)

1차년 활동을 통해 이러한 효과성을 확인한 이후, 2차년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는 시작 단계부터 자원과의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방안을 모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 일정이 진행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역 내 인물자원조사를 완료하고, 발굴한 자원 특성을 중심으로 관심 분야를 확장하는 탐색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탐색워크숍에서는 12명의 사람책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궁금하거나 원하는 분야의 사람책을 선정하고, 자신의 관심사와 연결해 인터뷰 계획을 세웠다. 이어서 진행한 기획워크숍에서는 총 7개의 팀이 12명의 사람책(중복 포함)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진행한 사람책의 진로 주제는 '건강한 먹을거리', '우유제조 및 가축 기르기', '음악과 노래', '춤과 방송댄스', '마을카페 운영', '커피 로스팅' 등으로 다양했다. 기획워크숍에 참여한 7팀 가운데 5팀이 내일찾기프로젝트로 연결되었는데, 이 가운데 4팀이 사람책 주제 분야에서 발전되거나 확장된 주제를 연결해 진행하였다.

'보석바' 팀의 경우 바리스타 업무나 커피 로스팅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탐색 및 기획워크숍을 통해 지리산권 내 함양의 카페 '빈둥'을 직접 방문해 사람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관심사를 구체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공간 및 인물자원과 연결되어 커피 로스팅 뿐만 아니라 카페 업무 전반을 경험해보며,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해 일일 홈카페를 진행해보는 활동을 기획하였다. '오빛나래' 팀 역시 지역자원으로 발굴한 지역 내 댄스강사 길잡이교사와 연계하여 사람책 활동과 댄스 장르 탐색 및 공연 등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활동의 멘토로 활용하였다.

프로젝트 팀명	프로젝트 주제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롤	지리산권 청소년 축제 기획	→ 내일생각워크숍 내 탐색워크숍 및 기획워크숍을 통해 마을활동에 대한 인터뷰 진행
보석바	카페 업무 경험	→ 탐색워크숍 및 기획워크숍을 통해 지역 카페인 '빈둥'과 '제비'를 직접 방문해 사람책을 진행 → 카페 업무를 주제로 카페 '빈둥' 공간을 대여해 일일 홈카페 기획 및 진행
사총사	청소년 놀이문화 탐색	→ 탐색워크숍 내에서 다양한 일과 삶 분야 사람책을 만나,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진로 탐색에 대한 관점을 확장 → 길잡이교사와 연계하여 지역의 다양한 공간 답사
박현정	밧줄놀이터 제작 및 영상 촬영	→ 밧줄놀이터 제작 프로젝트 진행 시 지역 내 '산아빠'를 포함한 다양한 주민들과 협업하여 진행 → 영상 제작 과정에서 지역 내 교사, 주민, 학부모, 학생 등을 인터뷰
오빛나래	다양한 댄스 장르 탐색	→ 탐색워크숍에서 발굴한 동네 자원 소개 및 관심사 발굴 활동 진행 → 기획워크숍 내에서 지역의 댄스강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사람책 인터뷰 진행 → 댄스를 주제로 한 사람책을 프로젝트 멘토로 삼아 연습 및 공연 활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받음

[표 13] 남원 지리산 권역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2차년)

진주는 1차년 31개의 인물 및 문화자원을 발굴하였으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정도는 '옹글이' 팀의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프로젝트 팀명	프로젝트 주제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옹글이	청소년을 위한 잡지 제작	→ 지역 내 카페 및 청소년 공간 답사 및 취재
청정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편한 교복' 제작	→ 없음
참(된) 교육	청소년이 원하는 학교공간 디자인	→ 없음

[표 14] 진주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1차년)

2차년에는 워크숍 및 프로젝트에 앞서, 발굴 자원을 중심으로 12명의 상상학교 사람책을 만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틀간 총 63명의 청소년들이 관심 분야의 사람책을 찾아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고, 소그룹 형태로 사람책의 일과 삶을 듣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1차년에 비해 사람책의 차시와 규모를 줄이는 대신,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였다. 단순히 분야별로 사람책을 유형화하지 않고 청년, N잡러, 자기결정, 책임지는 삶 등 직업세계 이면의 키워드를 담아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인물자원	주제	인물자원	주제
소희주	“진주텃밭, 알차게 고민하고 책임지는 삶”	이원경	“커피&디저트, 그리고 자기결정의 삶”
민지영	“마을 청년의 이야기, 꿈이 없어도 괜찮아”	고민혁	“20살 영상제작자의 인생”
박기식	“커피에 대하여”	김보민	“프로N잡러 이야기,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성수연	“나만의 책 출판”	조재필	“카바디 은메달리스트에게 듣는 목표가 있는 삶”
김태린	“꿈꾸는 행복춤꾼”	전윤경	“좋은세상만들기본부에서 일합니다”
김순종	“내멋대로 살아라”	권영란	“시민기록단의 인터뷰, 세상을 만나는 방식”

[표 15] 2020 진주 상상학교 사람책 리스트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 활동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된 측면이 있다. 역사를 주제로 타 지역인 경주여행을 기획한 ‘배낭소녀’ 팀을 제외한 3개 팀은 프로젝트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였다.

청소년 여행 가이드북 제작을 주제로 한 ‘여가’ 팀은 책자 제작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진주 지역 공간 답사 및 탐방, 식당이나 문화시설 담당자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다. 축제 기획 및 진행을 주제로 모인 ‘진진자라’ 팀은 부스 담당팀, 홍보 담당팀, 공연 담당팀으로 각각 나뉘어 목적에 맞게 지역자원을 활용하였다. ‘아리아리아뢰다’ 팀의 경우 찾아가는 사람책을 통해 청소년인권활동가의 이야기를 듣고, 청소년 및 학부모 인식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팀명	프로젝트 주제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여가	청소년을 위한 진주 여행 가이드북 제작	→ 청소년 관점에 맞춘 6가지 테마로 맛집, 쇼핑, 스포츠, 문화생활 등 진주 내 공간자원을 탐방함으로써 여행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가이드 리플렛을 제작
진진자라	청소년 공연/축제 기획	→ 축제라는 주제 내에서 부스, 홍보, 공연팀으로 나뉘어 각자의 목적에 맞게 지역 자원을 활용 → 부스팀은 동네 카페를 찾아 축제에 판매할 레몬청 만들기 활동 진행 → 공연팀은 공연 연습 및 준비를 위해 경상대학교 동아리실 공간 및 악기를 대여 → 온라인 축제 진행 시 진주시민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
아리아리 아뢰다	학생 청소년 참정권 인식 확산	→ 찾아가는 사람책 방식으로 진주 내 청소년인권활동가를 인터뷰 →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학생 및 학부모, 주민 대상 홍보 및 소통
배낭소녀	역사 주제여행	→ 없음

[표 16] 진주 자원 활용 및 연계 현황 (2차년)

2. 참여 청소년 진로의식 변화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① 조사대상 (응답자 수)

-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자 71명
- 2019~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연속참여자 19명[1]

② 조사기간

- 1차조사: 2020년 6월 20일 ~ 2020년 6월 28일 (프로젝트 시작 전)
- 2차조사: 2021년 1월 6일 ~ 2021년 1월 15일 (프로젝트 종료 후)

③ 조사방법

- 1차조사: 상상캠프 및 내일생각워크숍 현장 설문조사 진행 (3개 지역)
- 2차조사: 참여 청소년 개별 온라인 설문지 배부(구글 폼)

④ 조사항목

- 5가지 핵심역량 지수 변화 분석
  - → 진로의식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5가지 핵심역량(①자아이해력, ②협업능력, ③진로 주도성, ④직업의식, ⑤공동체 의식) 관련 지표는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바탕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상호 관련성 및 타당성은 Kaiser-Meyer-Olkin(KMO) 측도를 사용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검정한 바 있다.(유진, 2020)
  - → 자아이해력 관련 6개 세부 문항은 [표 17]과 같이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자기이해 관련 3개 문항에서는 재능, 선호, 가치관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물었고, 자기인식 및 주도성 관련 3개 문항에서는 결정에 대한 신뢰, 문제 해결력에 대한 신뢰, 삶의 주도성 인식 정도를 조사하였다.

설문 항목	설문 문항
자기이해 (재능)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자기이해 (선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자기이해 (가치관)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자기인식_주도성 (자기 결정에 대한 신뢰)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자기인식_주도성 (문제 해결력에 대한 신뢰)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기인식_주도성 (삶의 주도성 인식)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표 17] 자아이해력 관련 세부 문항

  - → 협업능력 관련 6개 세부 문항은 [표 18]과 같다. 또래관계와 관련한 2개 문항에서는 대화와 고민 나눔 정도를 측정하였다. 협동의식과 관련한 4개 문항은 그룹 내에서의 노력, 도움, 문제 해결, 정보 공유 정도를 물었다.

설문 항목	설문 문항
또래관계 (대화)	평소에 나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 한다.
또래관계 (고민 나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협동의식 (노력)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한다.
협동의식 (도움)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협동의식 (문제 해결)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협동의식 (정보 공유)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그룹활동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표 18] 협업능력 관련 세부 문항

  - → 진로주도성 관련 3개 세부 문항은 [표 19]과 같이 구성하였다. 진로 결정에 있어서 주도성, 진로 적합성에 대한 자기 확신, 진로 결정에 있어서의 확신 정도를 물었다.

1. 진로의식 관련 5가지 핵심역량 지수 설문조사는 2019년도와 2020년도 동일한 문항으로 실시하였다. 2019년도 참여자 가운데 2020년도까지 연속으로 참여했고 2년간 총 4회의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19명을 대상으로 진로의식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설문 항목	설문 문항
결정에서의 주도성	앞으로 나의 진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적합성에 대한 확신	나에게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잘 알 것이다.
결정에 대한 확신	주변에서 반대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진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표 19] 진로주도성 관련 세부 문항

→ 직업의식과 관련해서는 [표 20]와 같이 6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장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능력 발휘 및 성취감, 높은 소득, 안정성, 협동, 기여, 흥미의 6개 항목별로 각각 측정하였다.

설문 항목	설문 문항
능력 발휘 및 성취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얻는 것
높은 소득	많은 돈을 버는 것
안정성	쉽게 해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협동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기여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흥미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표 20] 직업의식 관련 세부 문항

→ 지역사회 인식 관련 5개 세부 문항은 [표 21]과 같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및 공동체 인식 정도와 관련하여 거주 희망 정도, 거주요건 긍정 정도, 주민과의 관계성 정도, 지역에 대한 관심 정도, 지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 정도를 측정하였다.

설문 항목	설문 문항
지역 거주 희망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거주 요건 긍정	나는 우리 동네가 살기 좋다고 생각한다.
주민과의 관계성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지역에 대한 관심	나는 우리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	나는 내가 우리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21] 협업능력 관련 세부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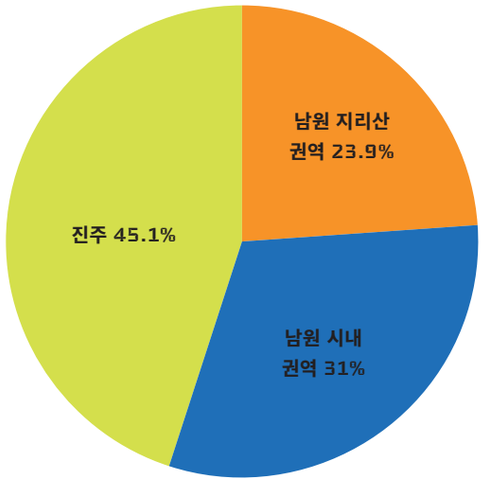
- 기타 문항 분석
  - → 관심사 관련 문항에서는 학업, 진학, 친구 관계, 사회문제, 취미 및 여가, 가정 등 주된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였다.
  - → 가치관 관련 문항에서는 '건강하게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등의 선택지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물었다.
  - → 진로의 상에 대한 문항에서는 '장래희망', '직업', '진학', '꿈', '삶' 등 진로에서 연상되는 키워드를 선택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 →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와 관련하여 '있다' 혹은 '없다'로 답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각 답변에 대한 이유를 묻는 하위문항을 추가하였다.

2) 설문조사 분석

(1) 응답자 기본 현황

① 지역

2020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응답자 71명의 지역 분포는 다음과 같다. 진주가 32명(45.1%), 남원 시내 권역이 22명(31.0%), 남원 지리산 권역이 17명(23.9%)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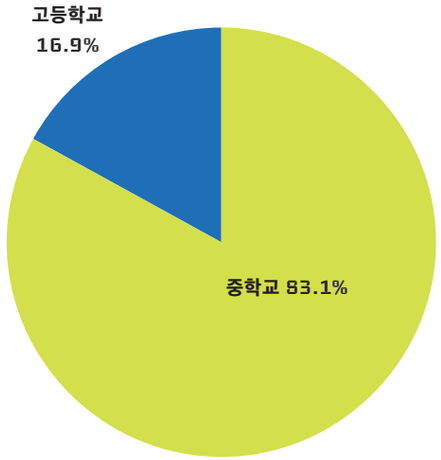
[그림 2] 응답자 지역 분포 현황

② 연령 (학교 및 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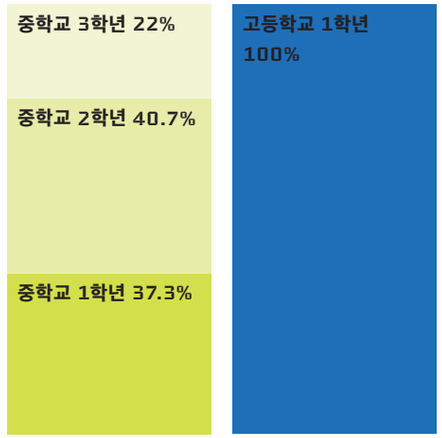
응답자 71명 중 중학생은 59명(83.1%), 고등학생은 12명(16.9%)이다. 중학생의 경우 1학년은 22명, 2학년은 24명, 3학년 13명이고, 고등학생은 모두 1학년이다.

모집 연령에 있어 중학생 비율이 높았던 것은 각 지역의 수행 주체인 지역기관의 활동 방향과 모집방식에서 기인하였다. 남원 시내 권역의 경우 1차년인 2019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중학생 참여자 3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2차년에도 연속으로 참여함으로써 장기간의 진로의식 변화를 보고자 했으며, 신규 참여자 역시 중학교 1학년으로만 구성하였다. 남원 지리산 권역 역시 1차년 고등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활동이 학업 및 입시 준비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문제 등을 감안하여 중학생 모집 비율을 늘렸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 참여자의 연령별 진로의식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표본이 수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연령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연령 비율(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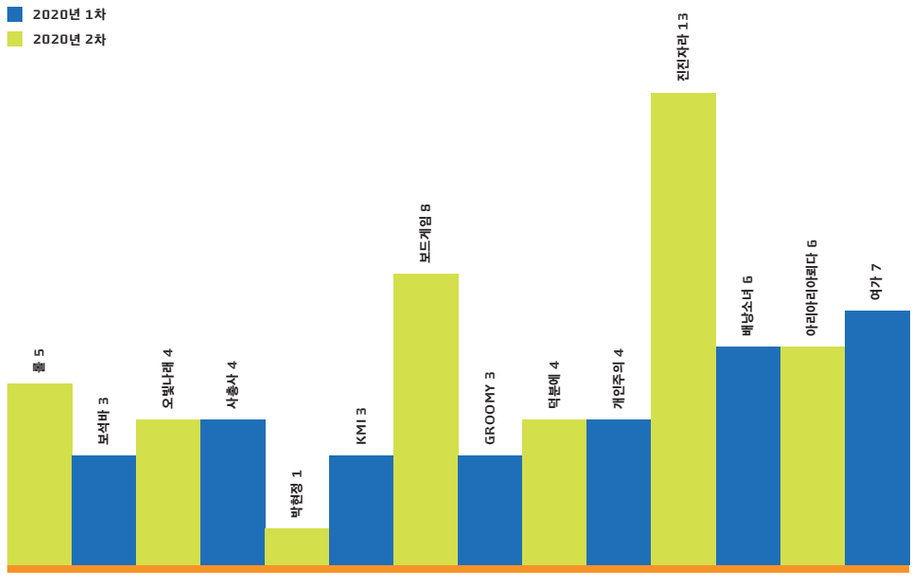


[그림 4] 연령 비율(학년)

③ 참여 프로젝트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총 14개의 프로젝트가 참여하였다. 남원 지리산 권역은 '롤', '보석바', '오빛나래', '사총사', '박현정' 5개 팀, 남원 시내 권역에 'KMI', '보드게임', 'GROOMY', '덕분에', '개인주의' 5개 팀, '진주'에 '진진자라', '배낭소녀', '아리아리아뢰다', '여가' 4개 팀이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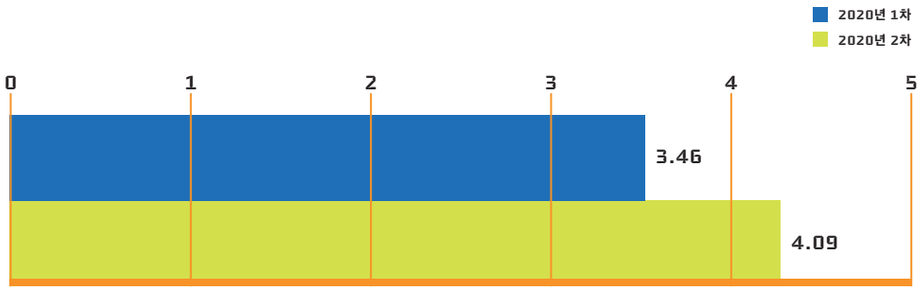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 팀별 응답자 수는 상이하다. 프로젝트 주제 및 특성에 따라 팀 정원이 3명인 프로젝트도 있는 반면 13명인 프로젝트도 있었다. '박현정'팀의 경우 프로젝트 참여 정원에 비해 1·2차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가 1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림 5] 참여 프로젝트별 응답자 현황

(2) 5가지 핵심역량 지수 추적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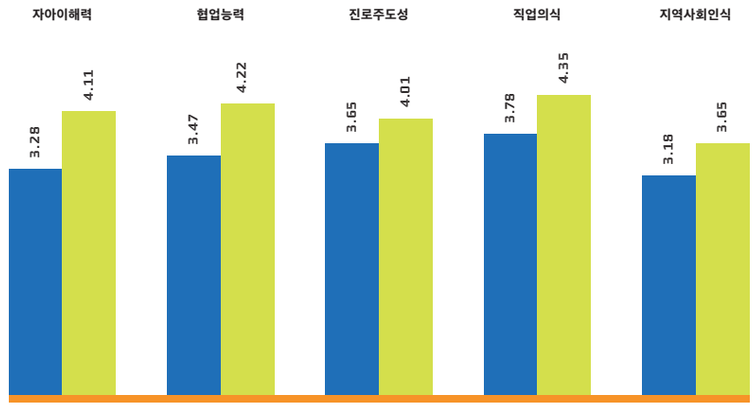
프로젝트 참여자의 진로의식 및 측정을 위한 5가지 역량 26개 세부 문항 전체 평균값은 아래 그림과 같다.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등 5점 척도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프로젝트 시작 전(1차) 평균 3.46에서 프로젝트 종료 후(2차) 4.09점으로 약 0.63점 증가하였다.



[그림 6] 핵심역량 지수

5가지 핵심역량 항목별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1차보다 2차에서 역량지수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세부 문항별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5점 척도 문항에서의 이러한 변화 양상은 충분히 유의미한 근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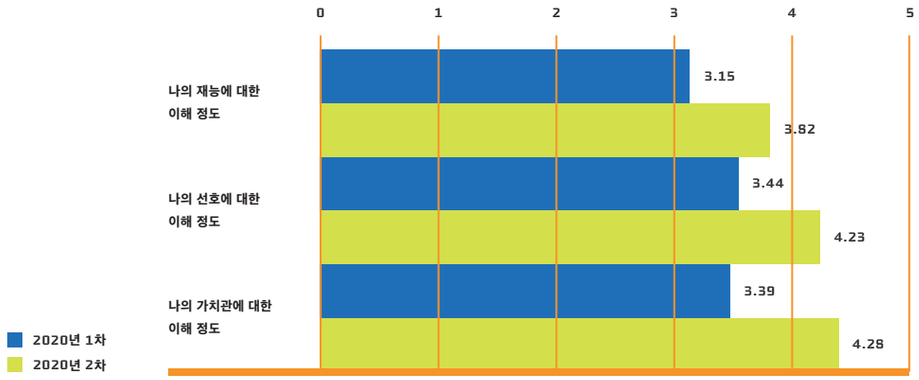
'자아이해력' 관련 문항의 경우 3.28점에서 4.11점으로 약 0.83점 높아져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다. 이어 '협업능력(0.75점 증가)', '직업의식(0.57점 증가)'이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직업의식' 관련 문항의 경우 평균 점수가 4.35점으로 매우 높았다. '진로주도성' 관련 문항은 0.36점이 증가하여 타 항목과 비교한 상승폭은 낮았으나 2차 조사 점수가 4.01점으로 4점 이상을 기록하였다. '지역사회 인식' 관련 문항은 1차에서 3.18점, 2차에서 3.65점으로 모두 타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0.47점이 증가하여 평균 증가폭과 비슷한 상승을 보였다.



[그림 7] 핵심역량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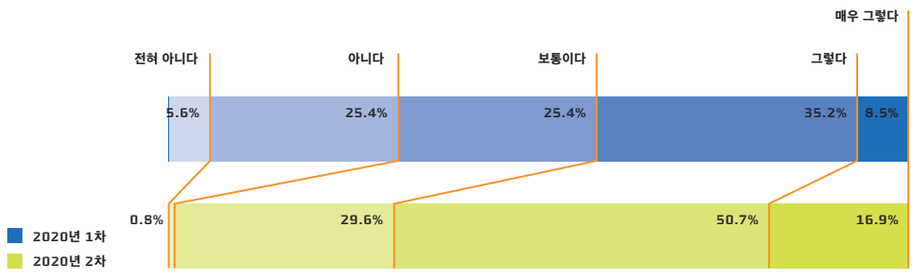
① 자아이해력

자아이해력 항목은 '자기이해' 항목 관련 3개 문항과 '자기인식-주도성' 관련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가운데 자기이해 항목에 해당하는 '재능, 선호, 가치관에 대한 이해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3개 문항 모두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 정도'의 경우 1차 3.39점에서 2차 4.28점으로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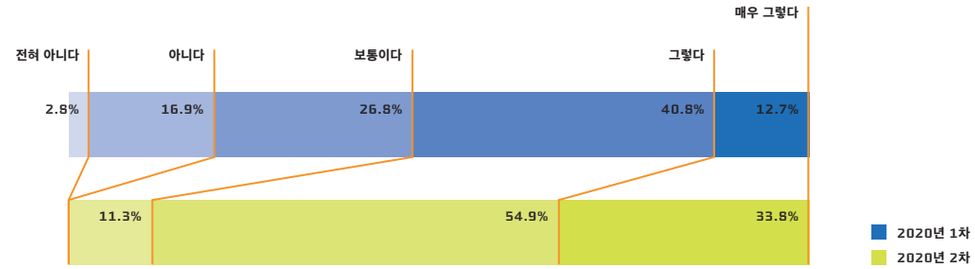
[그림 8] 자아이해력-자기이해

각 세부 문항별 긍정 및 부정 응답 비율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능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답한 긍정 응답이 1차 43.7%에서 2차 67.6%로 20%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를 합한 부정 응답은 31.0%에서 2.8%로 30% 가까이 감소하였다. 특히 부정 응답 가운데 1차에서 5.6%였던 '전혀 아니다'라는 응답은 2차에서는 아예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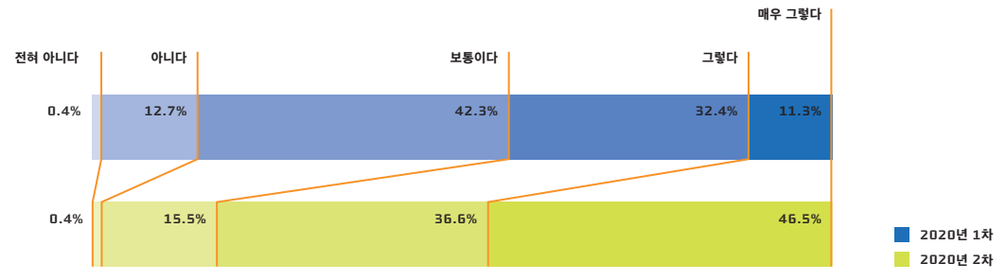
[그림 9] 나의 재능에 대한 이해 정도

선호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긍정 응답 비중이 53.5%에서 88.7%로 35% 이상 높아졌고, 1차에서 19.7%를 차지한 부정 응답은 2차에서는 전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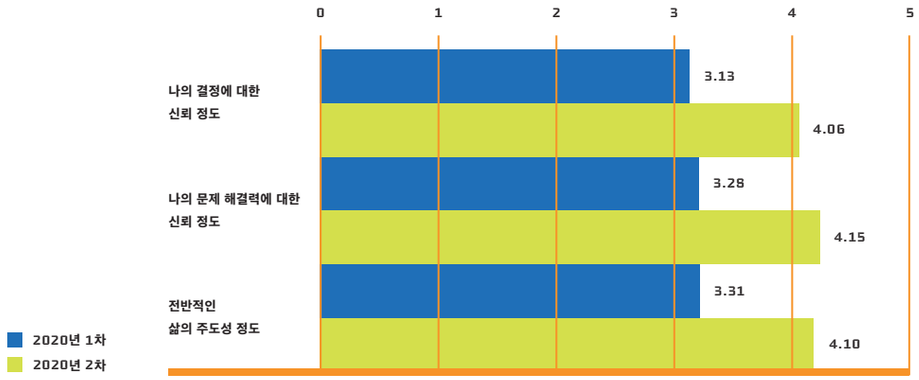
[그림 10] 나의 선호에 대한 이해 정도

가치관에 대한 이해 정도 관련 문항에서는 1차에서 43.7%를 차지한 긍정 비중이 2차에서 83.1%로 약 4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 비중이 11.3%에서 46.5%로 매우 크게 증가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42.3%에서 15.5%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부정 응답은 1.4%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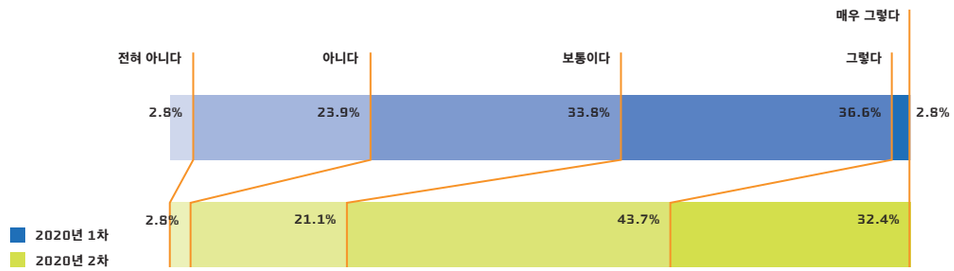
[그림 11] 나의 선호에 대한 이해 정도

자아이해력 중 '자기인식-주도성' 항목에 해당하는 '결정, 문제 해결력, 삶의 주도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1차에서 3.13점으로 가장 낮았던 '나의 결정에 대한 신뢰 정도'가 2차에서 4.06으로 가장 큰 상승(0.93점)을 보였다. '문제 해결력에 대한 신뢰 정도'는 0.87점, '전반적인 삶의 주도성 정도'는 0.79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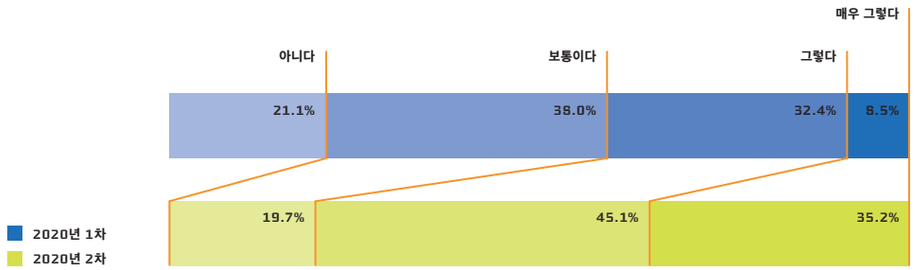
[그림 12] 자기인식-주도성

자신의 결정에 대한 신뢰 정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1차에서 긍정 응답 비중은 39.4%, '부정' 26.8%였으나, 2차에서는 긍정 응답이 76.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매우 그렇다'의 비중이 30% 가까이 상승했으며, '전혀 아니다'는 응답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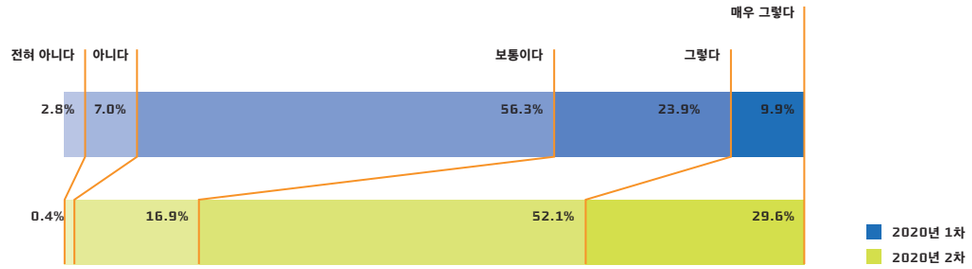
[그림 13] 나의 결정에 대한 신뢰 정도

자신의 문제 해결력에 대한 신뢰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에서 긍정 비중이 40.8%에서 80.3%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1차에서 21.1%였던 '아니다'라는 응답은 2차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림 14] 나의 문제 해결력에 대한 신뢰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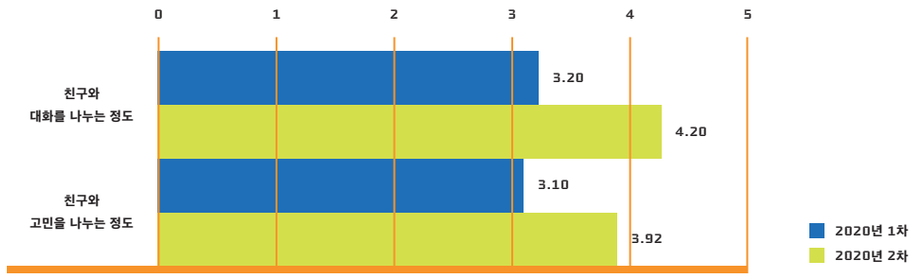
전반적인 삶의 주도성 정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1차에서는 '부정' 비중이 9.9%로 가장 낮았지만, '긍정' 비중도 33.8%로 가장 낮으며 '보통' 비중이 56.3%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2차에서는 '긍정' 비중이 8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5] 전반적인 삶의 주도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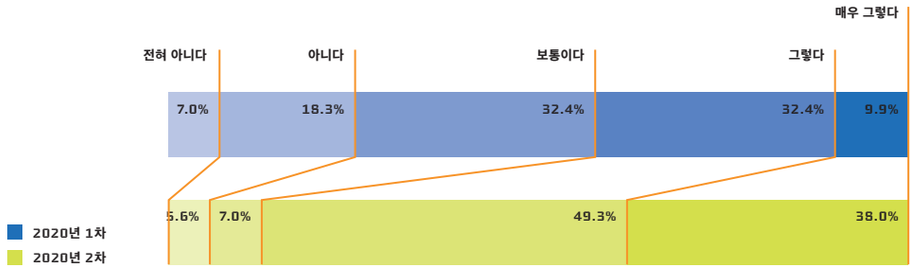
② 협업능력

협업능력 역량 가운데 '또래 관계' 항목 2개 세부 문항의 점수 변화는 [그림 19]와 같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1차 3.20점에서 1.0점 상승하여 2차에서는 4.20점이었고, '친구와 고민을 나누는 정도'도 0.82점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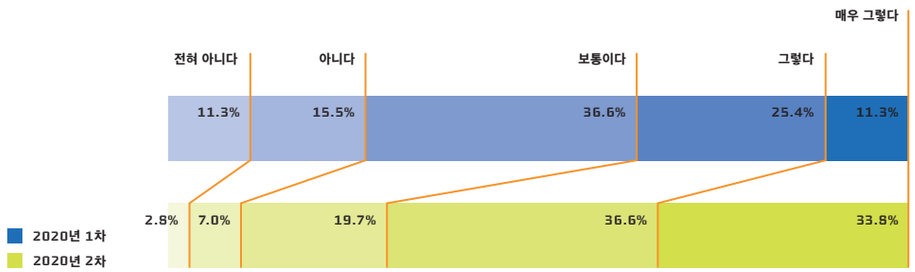
[그림 16] 또래 관계

또래 관계 가운데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정도' 관련 문항 응답에서는 긍정 비중이 42.3%에서 87.3%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부정 비중은 25.4%에서 5.6%로 감소했다. 2차조사 부정 응답 가운데 '전혀 아니다'라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그림 17]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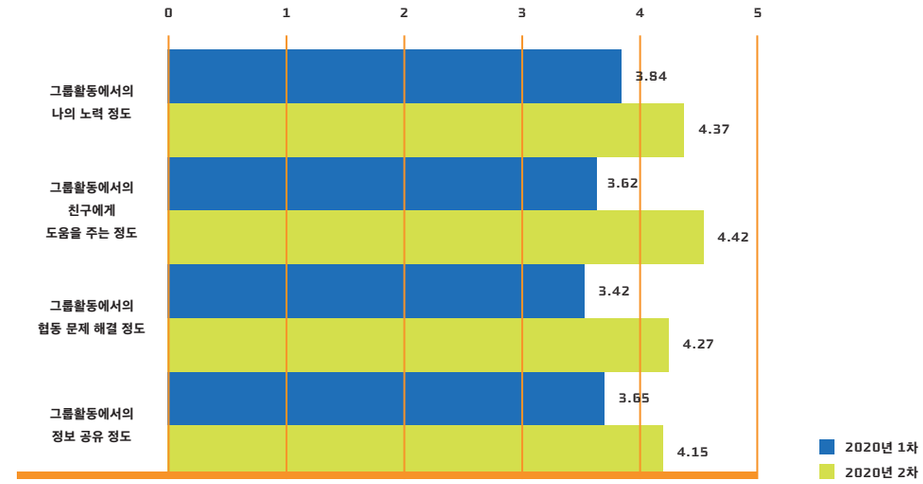
'친구와 고민을 나누는 정도'에 대한 질문 역시 긍정 응답이 36.6%에서 70.4%로 증가했고, 부정 응답은 26.8%에서 9.8%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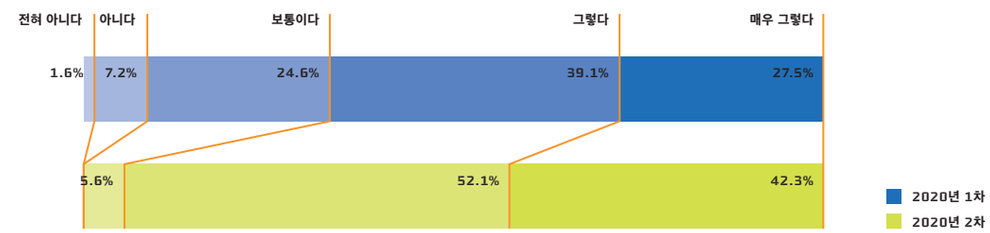
[그림 18] 친구와 고민을 나누는 정도

협업능력 역량 지표 가운데 '협동의식' 관련 지표에서는 4개 문항 모두 1차에 비해 2차 지표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모두 4점을 크게 상회하였다. '그룹활동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가 4.42점, '나의 노력 정도'는 4.37점으로 매우 높았다. 상승폭에 있어서는 1차에서 3.42점으로 가장 낮았던 '그룹활동에서의 협동 문제 해결 정도'이 2차에서는 4.27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세부 문항 지표 긍정 및 부정 응답을 살펴보면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에 대해서는 1차에서 긍정 비중이 66.7%로 매우 높았고, 2차에서는 94.4%까지 증가했으며, 부정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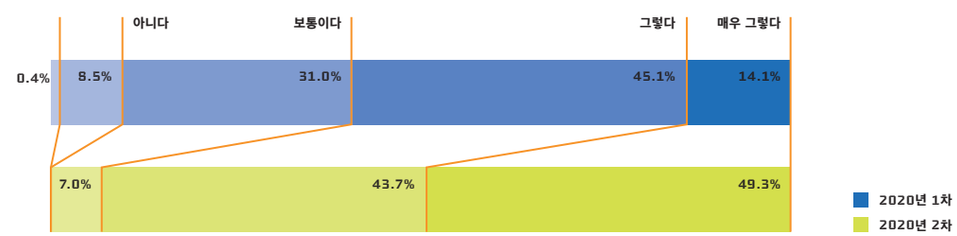


[그림 19] 협동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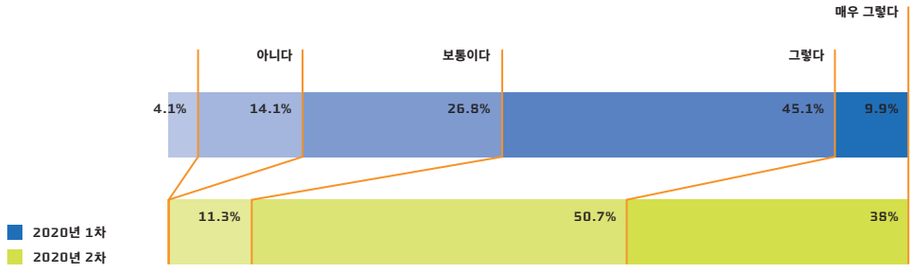
[그림 20] 그룹활동에서의 나의 노력 정도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긍정 비중이 59.2%에서 93.0%로 증가했으며, '매우 그렇다'는 비중도 49.3%로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2차 조사에서 부정 응답 결과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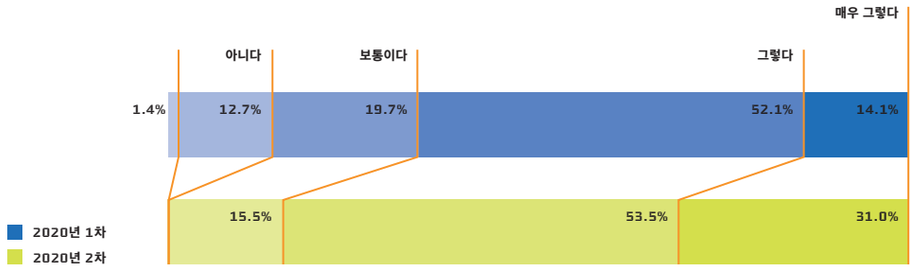
[그림 21] 그룹활동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의 경우 긍정 응답 비중이 54.9%에서 88.7%로 증가했으며, 역시 2차 조사 부정 응답 결과는 없었다.



[그림 22] 그룹활동에서 협동 문제 해결 정도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그룹활동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는 문항에 대한 긍정 비중은 66.2%에서 84.5%로 증가했고, 부정 응답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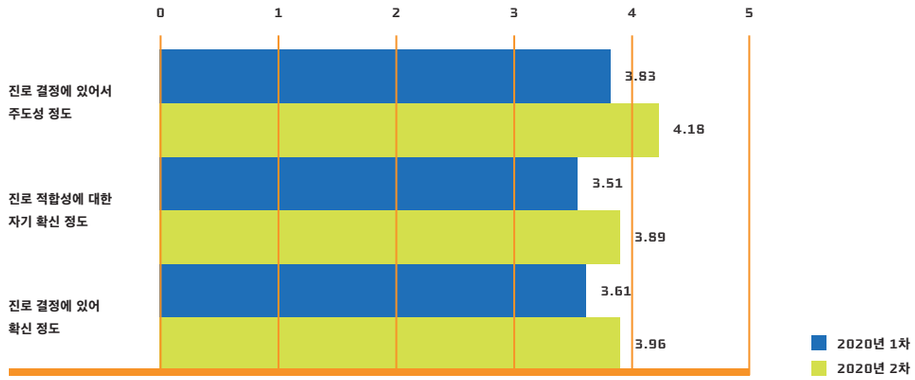


[그림 23] 그룹활동에서의 정보 공유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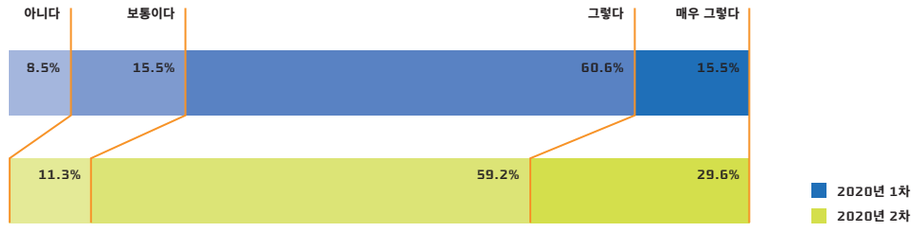
③ 진로주도성

핵심역량 지표 중 진로주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3개 문항의 1·2차 평균은 [그림 27]과 같다. 세 문항 모두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 적합성에 대한 자기 확신 정도'를 묻는 문항은 1차에서 가장 낮은 3.51점이었지만, 2차에서는 3.89점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그림 24] 참조)

세부 문항별 긍정 및 부정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진로 결정에 있어서 주도성 정도' 관련 문항에서는 1차 조사의 긍정 응답 비율도 76.1%로 비교적 높았음에도, 2차에서는 더 상승해 88.7%로 나타났다. '전혀 아니다'는 응답은 2차에서는 나오지 않았다.([그림 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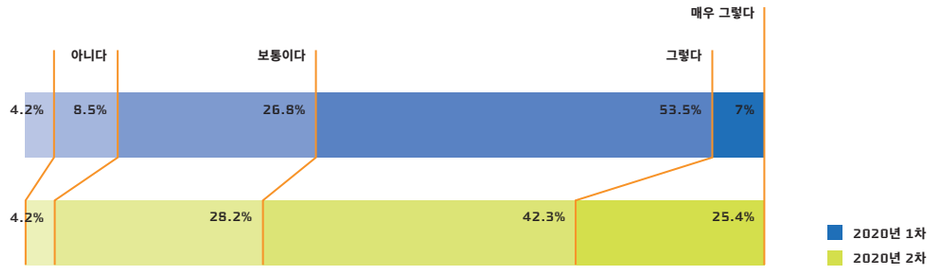


[그림 24] 진로주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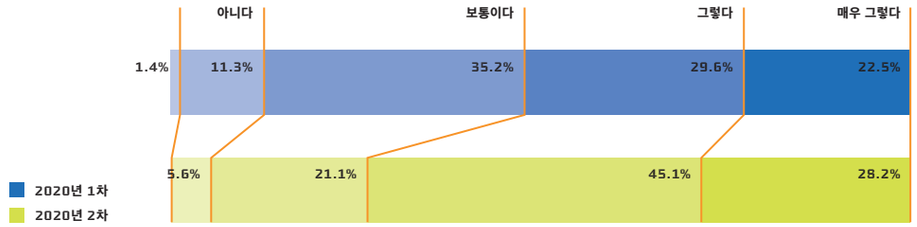
[그림 25] 진로 결정에 있어서 주도성 정도

'진로 적합성에 대한 자기 확인 정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긍정 응답 비중이 60.6%에서 67.6%로 소폭 상승했지만, '매우 그렇다'는 비중은 15.5%에서 29.6%로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26] 진로 적합성에 대한 자기 확신 정도

'진로 결정에 있어서 확신 정도'와 관련하여 1차 조사 내 긍정 비중은 52.1%로 타 문항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2차 조사에서는 73.2%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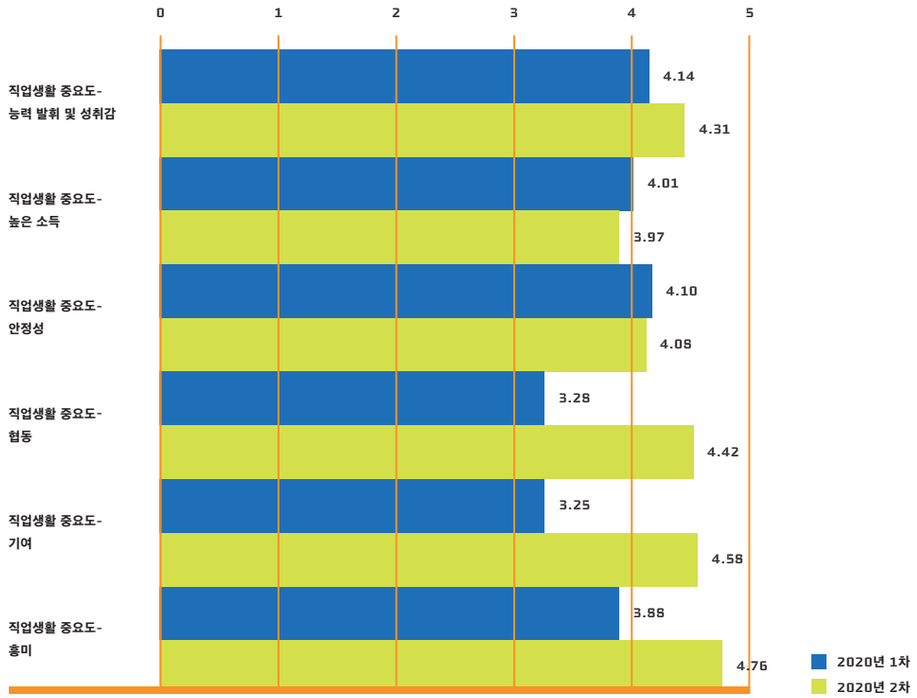
[그림 27] 진로 결정에 있어서 확신 정도

④ 직업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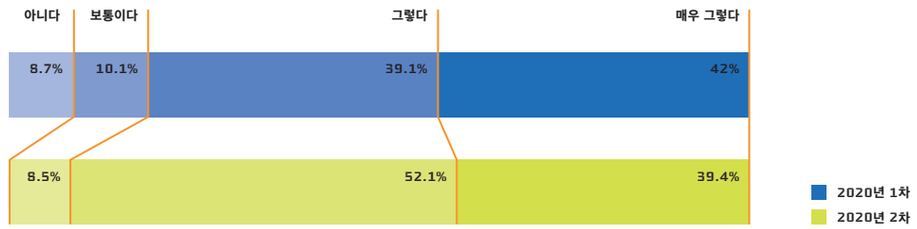
핵심역량 지표 중 직업의식과 관련한 항목인 '능력 발휘 및 성취감', '높은 소득', '안정성', '협동', '기여', '흥미' 6개 문항에서 '장래 직업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림 28]과 같다. 1차에서 점수가 낮은 편이었던 협동과 기여, 흥미 항목 모두 2차에서는 크게 상승했다. 반면, 1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높은 소득과 안정성은 소폭 하락했다([그림 28] 참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1차에서도 긍정 응답이 81.1%로 높은 편이었으나, 2차에서는 무려 91.5%를 보였으며, 부정 응답은 없었다([그림 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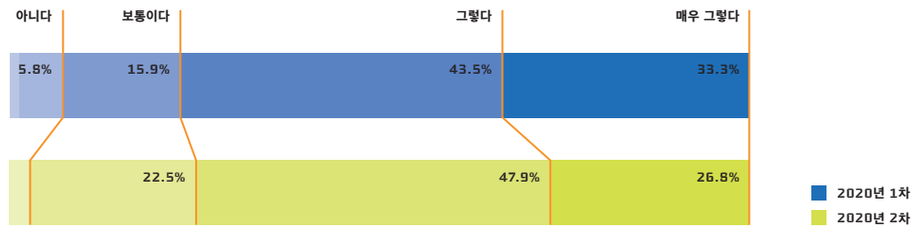
'많은 돈을 버는 것'의 직업생활에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긍정 비중이 1차 76.8%에서 2차 74.6%로 소폭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부정 비중 역시 7.2%에서 2.8%로 조금 더 감소했으며, '보통이다'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그림 30] 참조).



[그림 28] 직업의식



[그림 29] 장래 직업생활 중요도-능력 발휘 및 성취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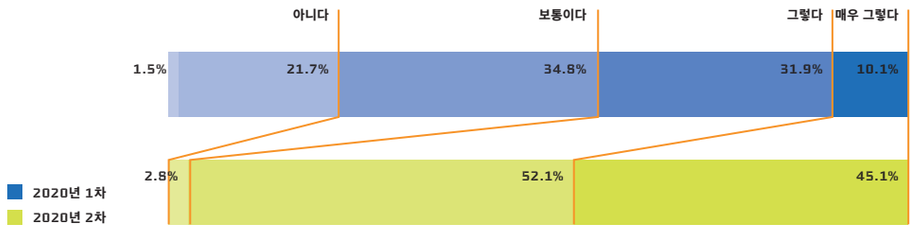


[그림 30] 장래 직업생활 중요도-높은 소득

'쉽게 해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의 직업생활에서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 비중이 76.8%에서 77.5%로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하다'는 비중은 낮아졌고, 부정 비중도 다소 감소했다.

[그림 31] 장래 직업생활 중요도-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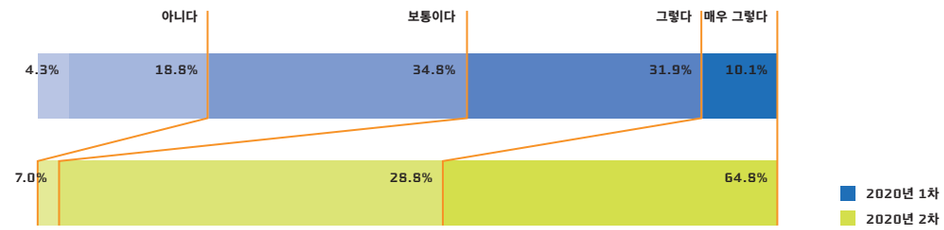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긍정 비중이 42.0%에서 97.2%로 무려 57.2% 증가하였으며, 이는 타 문항과 비교해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이 가운데 긍정 응답 내 '매우 중요하다'의 비중도 35%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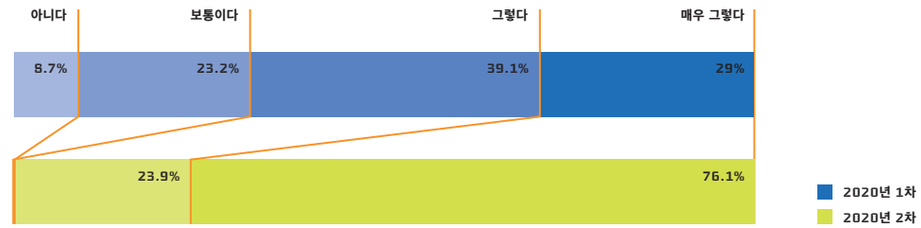
[그림 32] 장래 직업생활 중요도-협동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긍정' 비중이 42.0%에서 93.0%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매우 중요하다'의 비중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래 직업 생활에서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의 중요도는 2차에서 긍정 비중이 100%로, '보통이다' 이하로 응답한 인원이 아예 없었다. 긍정 응답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응답 비중도 76.1%를 차지했다.



[그림 33] 장래 직업생활 중요도-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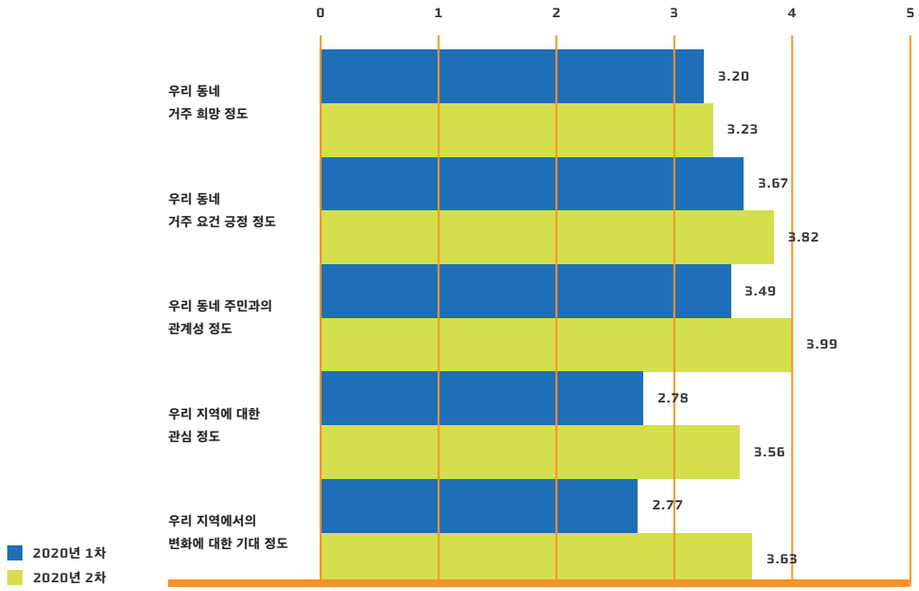
[그림 34] 장래 직업생활 중요도-흥미

⑤ 지역사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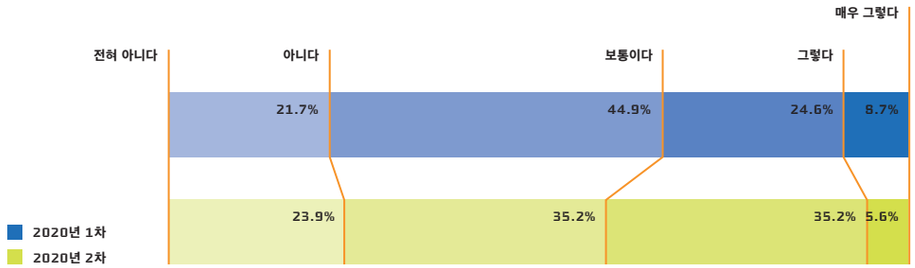
핵심역량 지표 중 '지역사회 인식' 항목의 5개 세부 문항에 대한 점수는 2차 조사에서 모두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1차에서 핵심역량 지표 관련 문항 중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 정도' 및 '우리 지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 정도'는 각각 0.78점, 0.86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에 대한 긍정 비중은 33.3%에서 40.8%로 증가했지만, 부정 비중 역시 소폭 증가했다. 다만 1, 2차 모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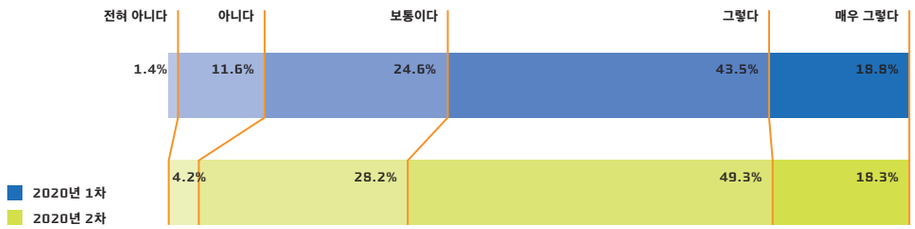
'나는 우리 동네가 살기 좋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서는 긍정 응답 비중이 62.3%에서 67.6%로 상승했지만 '매우 그렇다'의 비중은 다소 하락하였다. 2차에서는 부정 비중도 13.0%에서 4.2%로 감소했고,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나오지 않았다.



[그림 35] 지역사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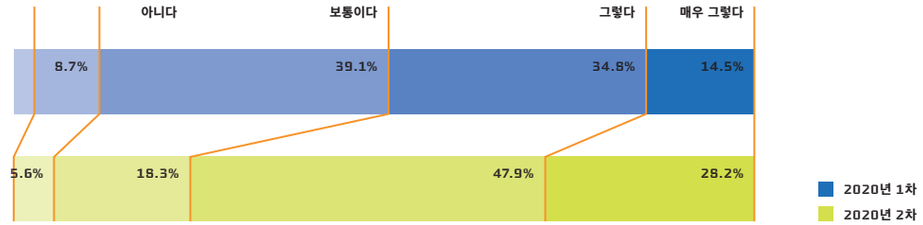


[그림 36] 우리 동네 거주 희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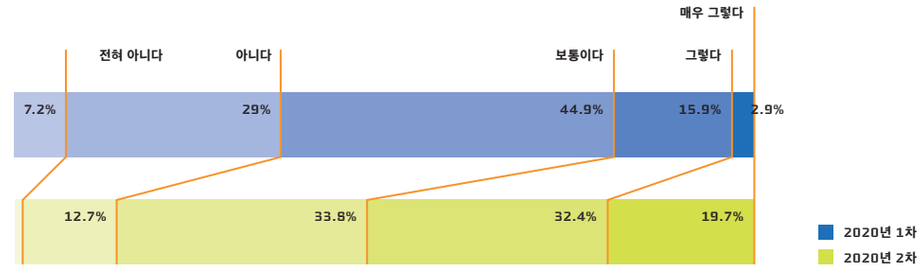
[그림 37] 우리 동네 거주 요건 긍정 정도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에 대한 질문에서는 긍정 응답 비중이 49.3%에서 76.1%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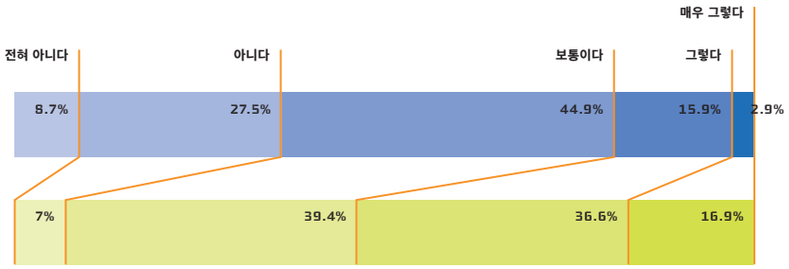
[그림 38] 우리 동네 주민과의 관계성 정도

'나는 우리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 1차에서는 '보통이다'의 비중이 44.9%로 매우 높았고, 긍정 응답이 18.8%로 부정 응답 36.2%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2차에서는 긍정 비중이 52.1%로 절반을 넘어서 크게 상승했고, 부정 응답은 14.1%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림 39]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 정도

'나는 내가 우리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앞선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 정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1차에서 '긍정' 비중이 18.8%로 '부정' 36.2%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2차에서는 '긍정' 비중이 53.5%로 과반을 넘어섰고, '부정'은 7.0%로 줄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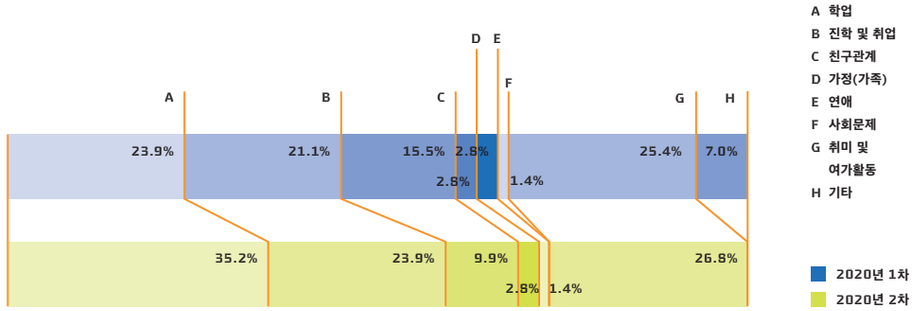


[그림 40] 우리 지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 정도

(3) 기타 문항 조사 결과

① 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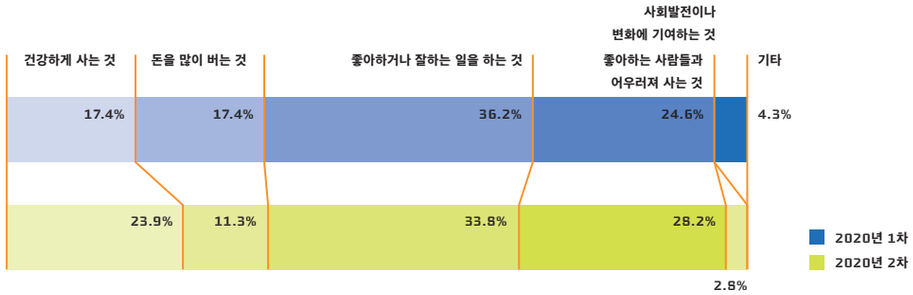
'요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림 41]와 같다. 1차에서는 '취미 및 여가활동'이라는 응답이 25.4%로 1순위, '학업'(23.9%), '진학 및 취업'(21.1%), '친구 관계'(15.5%)가 뒤를 이었다. 2차에서는 '학업'이라는 응답이 크게 증가해 35.2%로 가장 많았고, '취미 및 여가활동'(26.8%)이 그 뒤를 이어 1, 2순위가 바뀌었다.



[그림 41] 관심사

②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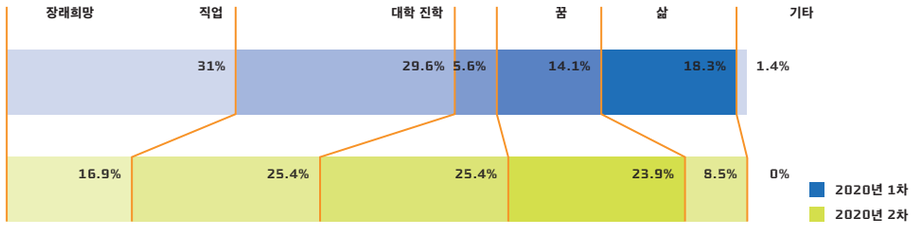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선택하는 질문에서는 1차와 2차 모두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하는 것(혹은 찾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것(가족, 친구, 공동체 등)', '건강하게 사는 것'이 순서대로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의 경우 1차에서는 공동 3순위(17.4%)였으나 2차에서는 상당히 감소해 11.3%를 차지하였다.



[그림 42] 가치관

③ 진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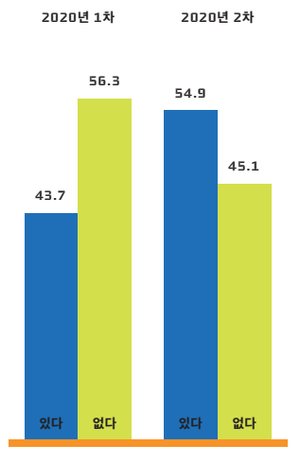
'진로'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1차에서 '장래희망'(31.0%), '직업'(29.6%), '삶'(18.3%) 등의 순으로, 2차에서는 '직업'과 '대학 진학'(25.4%), '꿈'(23.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장래희망(16.9%)'과 '삶(8.5%)'이라는 응답은 감소한 반면, '대학 진학'은 5.6%에서 25.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43] 진로에 대한 인식

④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

'현재 희망하는 진로 혹은 원하는 삶의 목표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1차 43.7%에서 2차 54.9%로 증가하였으며, '없다'라는 응답은 1차 56.3%에서 2차 45.1%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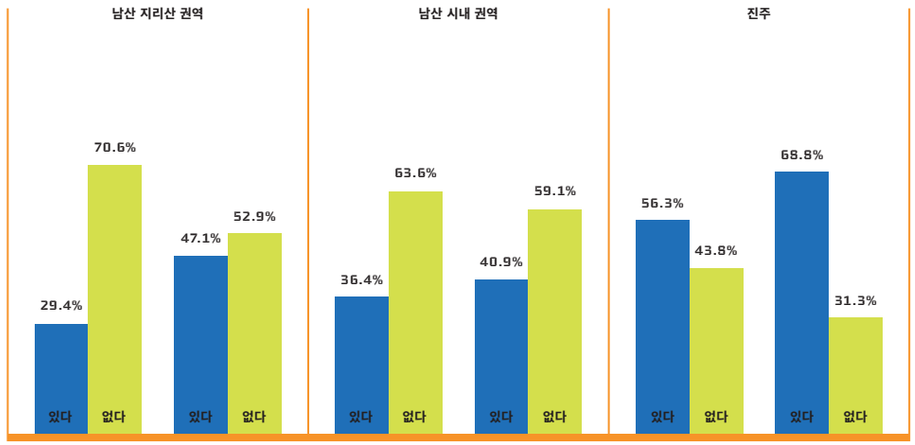
[그림 44]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개 지역 모두 1차에 비해 2차에서 '있다'라는 응답 비중은 증가하고 '없다'라는 응답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는 1차에서 '있다'가 29.4%로 '없다(70.6%)'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2차에서는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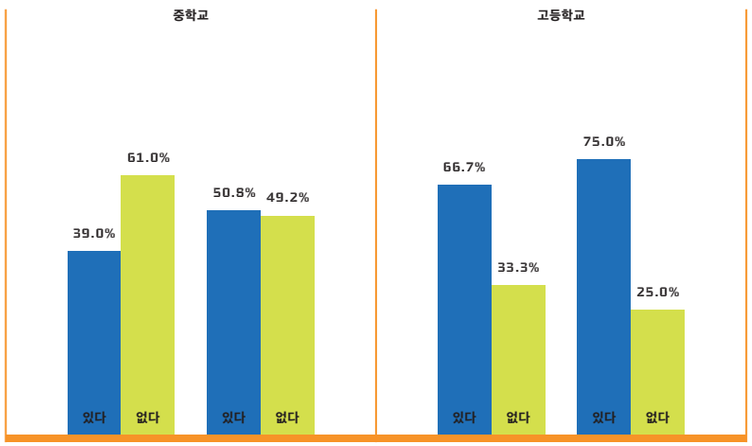
차가 약 6% 이내로 감소하였다. 남원 시내 권역의 경우에도 비교적 소폭이지만 2차에서 '있다(40.9%)'와 '없다(59.1%)'의 차가 줄어들었다.

진주의 경우 '있다'의 비중이 1·2차 모두 매우 높았다. 1차에 56.3%였던 '있다'라는 응답이 2차에서는 68.8%로 더욱 증가했으며, '없다' 역시 1차 43.8%에서 2차 31.3%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그림 45] 지역별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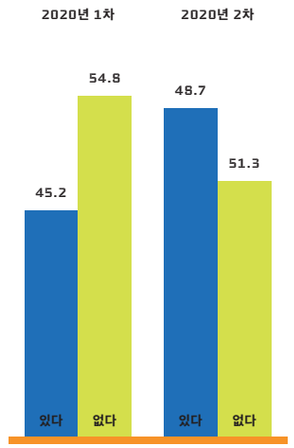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를 학교(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1, 2차 모두 고등학생 응답자의 '있다'라는 비중이 중학생 보다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2차에서는 75.0%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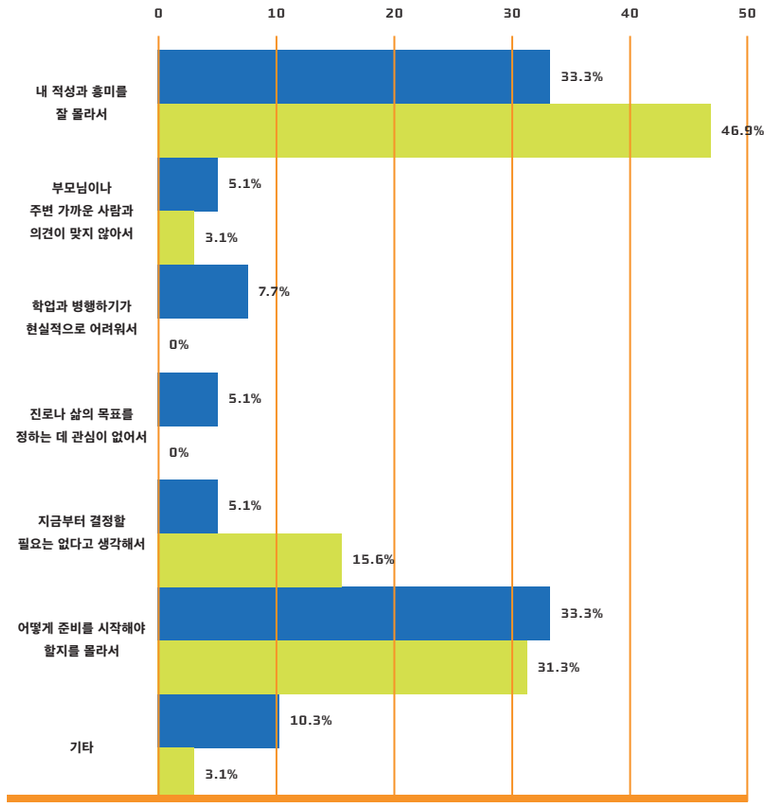
[그림 46] 학교(연령)별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진로 관련 상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 혹은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1차 45.2%에서 2차 48.7%로 소폭 증가했으며, '없다'라는 응답은 1차 54.8%에서 2차 51.3%로 다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에게는 미설정 이유를 물었다. 기타 선택지를 포함한 7개의 선택지 가운데, 1차에서는 '내 적성과 흥미를 잘 몰라서'와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를 몰라서'가 각각 33.3%로 1순위를 차지했으며, 다른 항목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그림 47] 진로 상담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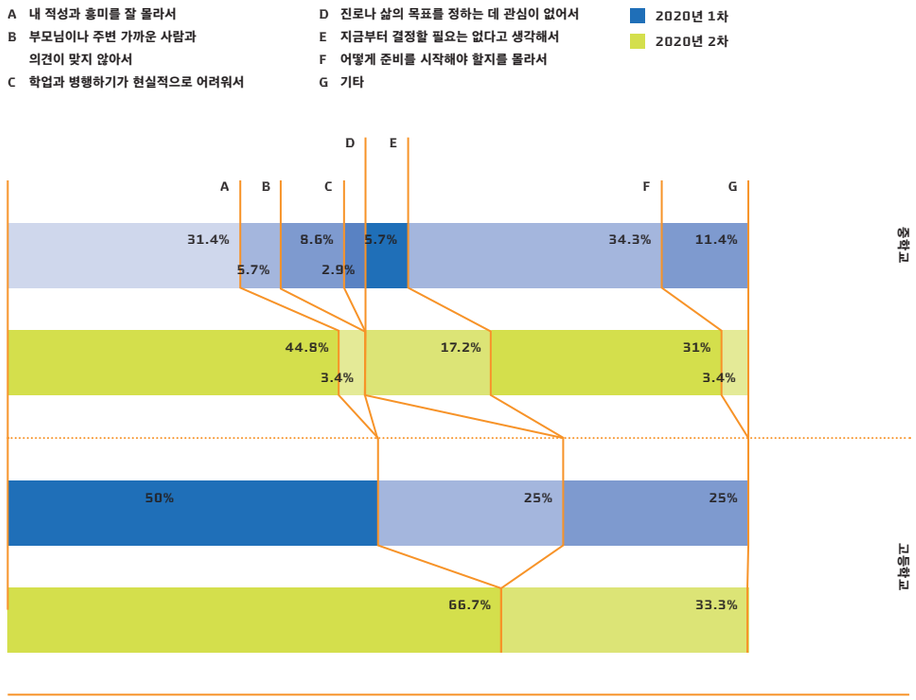
[그림 48] 진로 및 목표 미설정 이유

1.
진로의식 관련 5가지 핵심역량 지수 설문조사는 2019년도와 2020년도 동일한 문항으로 실시하였다. 2019년도 참여자 가운데 2020년도까지 연속으로 참여했고 2년간 총 4회의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19명을 대상으로 진로의식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2차에서도 1, 2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가 15.6%로 크게 증가해 3순위를 차지했다. 1순위였던 '내 적성과 흥미를 잘 몰라서'라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6.9%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진로나 삶의 목표를 정하는 데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1차에서 5.1%를 차지했으나 2차에서는 응답이 아예 없었다([그림 48] 참조).

진로 및 목표 미설정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지금부터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2차에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은 중학생에게서만 나타났다. '내 적성과 흥미를 잘 몰라서'라는 비중은 중고등학생에게서 공통적으로 2차에서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49] 학교별 진로 및 목표 미설정 이유

(4) 2019~2020 연속참여자 추적조사 결과

① 응답자 기본 현황

구분	빈도	비율
남원 지리산 권역	7	36.8%
남원 시내 권역	12	63.2%
전체	19	100.0%

[표 22] 연속참여자 지역 현황

구분	빈도	비율
2학년	12	63.2%
3학년	7	36.8%
전체	19	100.0%

[표 23] 연속참여자 연령 현황

2020년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자 71명 중 2019년부터 연속으로 참여하며 총 4회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했던 19명의 기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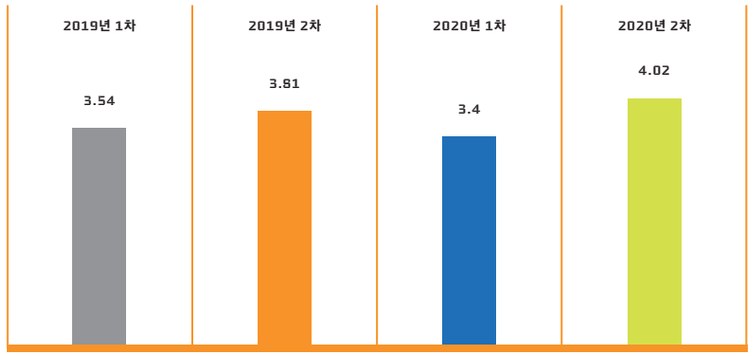
지역 현황에 있어 남원 지리산 권역 참여자가 7명(36.8%), 남원 시내 권역 참여자가 12명(63.2%)으로 나타났다. 진주의 경우 응답 표본이 존재하지 않았다. 연령 현황에서는 19명 모두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2학년이 12명, 3학년이 7명이었다.[3]

2. 1차조사(프로젝트 시작 전) 및 2차조사(프로젝트 종료 후) 시기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동일

3. 2020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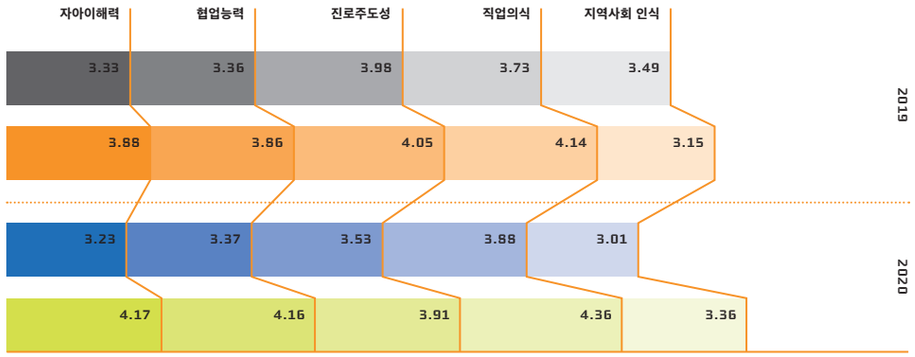
② 진로의식 변화 추적조사 결과

연속참여자의 '진로의식 및 역량'의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2년차인 2020년 1차가 3.40점으로 2019년 1차 3.54점, 전체 평균 3.46점과 비교해서도 더 낮은 3.40점이다. 프로젝트 시작 전(1차)보다 종료 후(2차)에는 평균 점수가 모두 올랐으며, 2020년 증가폭이 0.62점으로, 전체 평균 증가폭 0.63점과 비슷하며 2019년 0.27점보다 두 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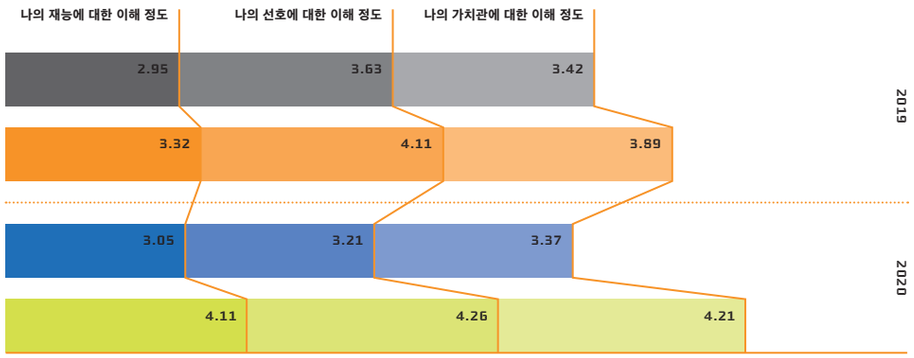
[그림 50] 연속참여자 진로의식 및 역량

연속참여자의 5개 핵심역량 항목별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과 유사하게 '지역사회 인식' 항목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2차의 경우 1차보다 낮았으며, 2020년 1차는 그보다 더 낮았다. 진로주도성 항목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이해력, 협업능력, 직업의식 관련 역량 평균 지표는 2020년 2차 조사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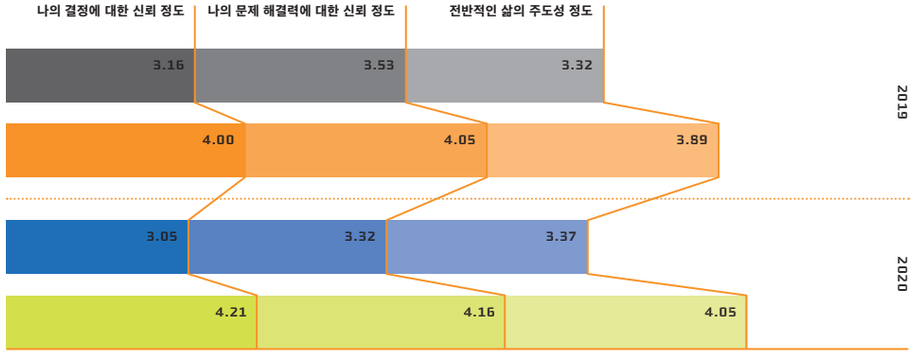
[그림 51] 연속참여자 진로의식 및 역량 세부 항목

자아이해력 역량지표 중 '자기이해' 관련 3개 세부 문항과 관련한 연속참여자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나의 재능에 대한 이해 정도' 문항은 2019년 1차에서 가장 낮은 2.95점이었지만 2020년 2차에서는 4.11점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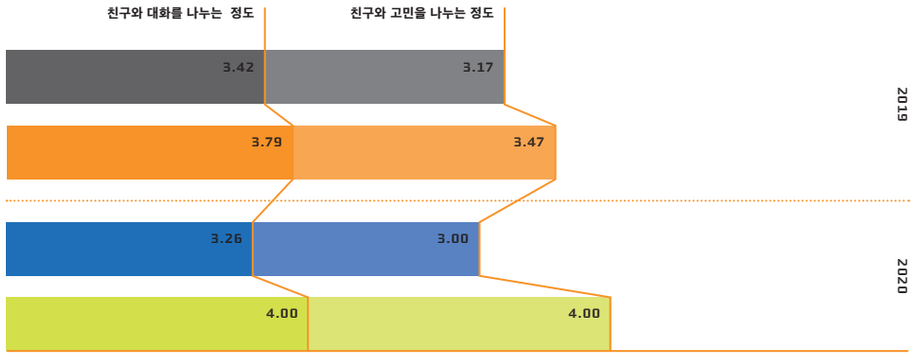
[그림 52] 연속참여자 자기이해

자아이해력 역량지표 중 '자기인식-주도성'에 해당하는 3개 문항에 대한 연속참여자의 응답에서는 모두 2019년 대비 2020년 2차 결과에서 큰 폭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2차에 비해 2020년 1차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타 문항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전체 기간 상승폭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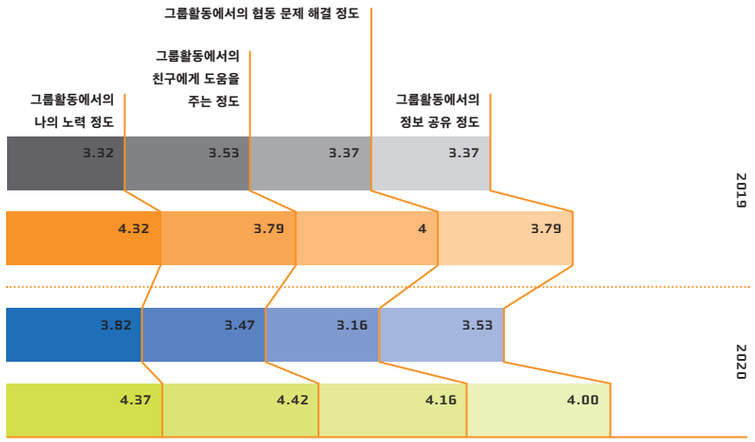
[그림 53] 연속참여자 자기 인식-주도성 정도

협업능력 관련 역량지표 중 '또래관계'에 대한 응답을 보면, 매년 1차보다 2차가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마찬가지로 2019년 1차보다 2020년 1차가 더 낮았다가 2차에서 더 큰 점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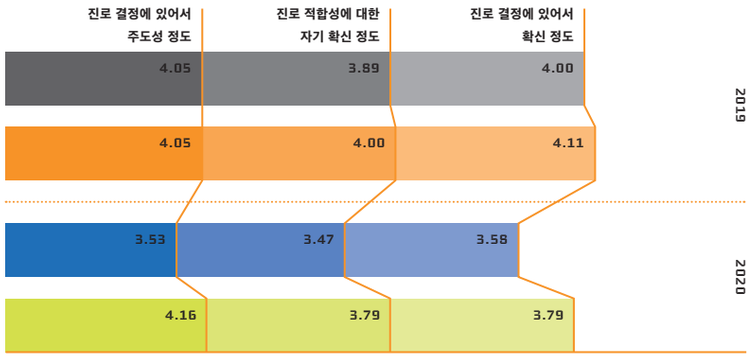
[그림 54] 연속참여자 또래 관계 정도

협업능력 지표 중 '협동의식' 점수를 살펴보면, '그룹활동에서의 나의 노력 정도'가 2019년 1차보다 2020년 2차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고, 모든 문항에서 4점 이상의 점수를 주었다.



[그림 55] 연속참여자 협동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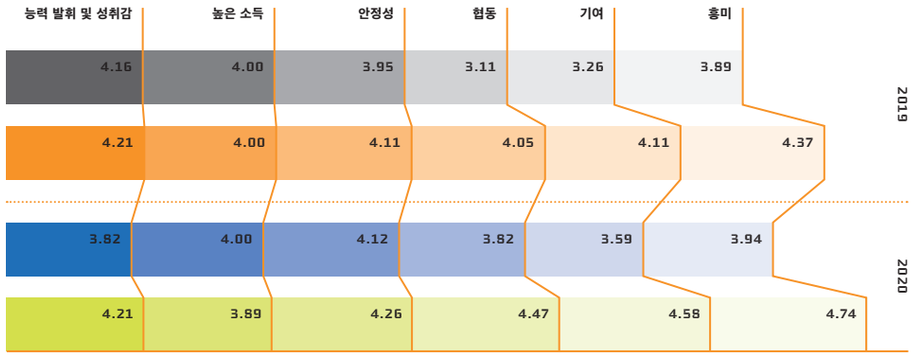
진로주도성 관련 역량지표 3개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진로 결정에 있어서 주도성 정도'를 제외하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평균 점수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다. '진로 결정에 있어서 확신 정도'는 4.0점에서 3.79점으로 하락폭이 비교적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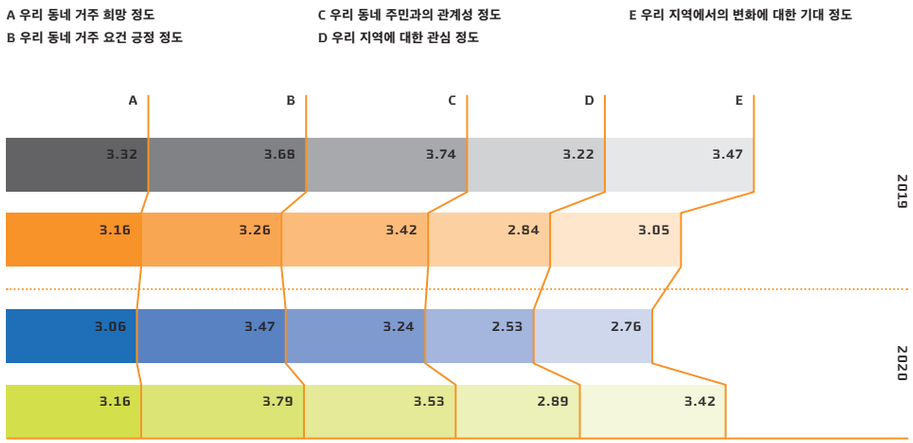
[그림 56] 연속참여자 진로주도성

직업의식 관련 역량지수를 살펴보면, 2019년 1차에서 2순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던 '높은 소득' 문항에서만 유일하게 2020년 2차에서 약간의 하락을 보였다. 2019년 1차에서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협동'이 2020년 2차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었다. '기여'와 '흥미' 역시 2020년 2차 점수와 전체 대비 상승폭 모두 높게 나타났다.

연속참여자들의 지역사회 인식 관련 역량지표에서는, 2019년에서는 1차에 비해 2차에서 모든 문항의 점수가 하락하였다. 2020년 2차에



[그림 57] 연속참여자 직업의식(직업생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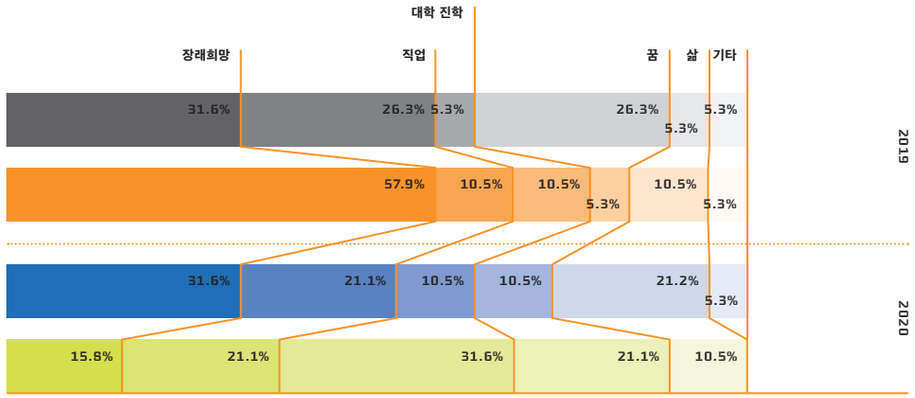


[그림 58] 연속참여자 지역사회 인식

서 약간 증가했지만, 2019년 1차보다는 낮았다. 특히 전체 응답에서 높은 증가를 보였던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 정도'는 크게 감소했으며, '우리 지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 정도' 역시 그 다음으로 많이 감소했다. 유일하게 '우리 동네 거주 요건 긍정 정도'의 점수만 소폭 증가했다.

기타 문항 가운데 연속참여자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2019년 1차부터 2020년 1차까지 '장래희망', '직업'을 1, 2순위로 꼽았지만, 마지막 2020년 2차에서는 '대학 진학'에 대한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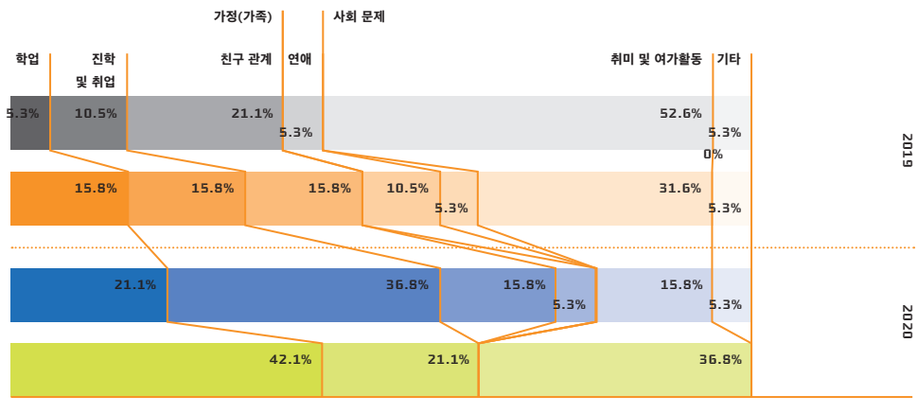
관심사에 대한 문항에서 연속참여자의 응답은 2020년 참여자 전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학업'의 비중이 매우 크게 늘어나 2019년 1차 5.3%에서 2020년 2차 42.1%로 1순위로 꼽았다. 이는 2019년 1차에서 과반이 넘는 52.6%로 1순위였던 '취미 및 여가활동'의 경우



[그림 59] 연속참여자 진로에 대한 인식

는 비중이 거의 절반씩 줄어들다 2020년 2차에서는 다시 2배 이상 늘어 36.8%로 2순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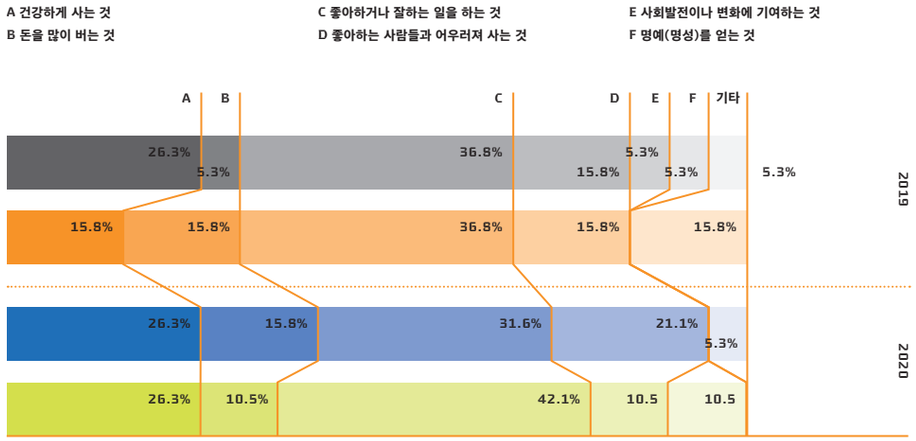
2019년 1차부터 2020년 1차까지는 관심사에 대한 선택지가 5~6개 등으로 다양했으나 마지막 2020년 2차에서는 '학업', '취미 및 여가활동', '진학 및 취업' 세가지 선택지만 응답을 받았다. 특히 2019년 1차 21.1%로 2순위였던 '친구관계'의 경우는 점차 줄어들다 마지막에는 응답이 없었다.



[그림 60] 연속참여자 관심사

가치관에 대한 질문에서 연속참여자들은 전체 응답과 비교해 1순위는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동일했으나, 2순위로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꼽았다. 전체 응답에서 2순위였던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것'은 2020년 2차에서는 비중이 더 낮아진

반면, '사회발전이나 변화에 기여하는 것'의 응답 비중은 높아졌다.



[그림 61] 연속참여자 가치관

(3) 심층인터뷰 개요

① 기간

- 2020년 8월 17일 ~ 2021년 2월 4일

② 대상

-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11명
- 2차 연속사업(2019~2021) 지역기관 파트너 13명
- 1차 연속사업(2016~2018) 지역기관 파트너 1명
- 지역자원조사 참여자 5명 (남원 지리산 권역 1명, 남원 시내 권역 4명)
- 현장 전문가 자문 3명

구분	지역 및 소속	대상자
프로젝트 참여자	남원 지리산 권역	참여 청소년 A
	남원 지리산 권역	참여 청소년 B
	남원 지리산 권역	참여 청소년 C
	남원 지리산 권역	참여 청소년 D
	남원 시내 권역	참여 청소년 E
	남원 시내 권역	참여 청소년 F
	남원 시내 권역	참여 청소년 G
	진주	참여 청소년 I
	진주	참여 청소년 J
	진주	참여 청소년 K
	진주	참여 청소년 L
지역기관 파트너	남원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지역파트너 a
	남원 지리산 권역 초등학교	교사 b
	남원 지리산 권역 중학교	교사 c
	남원 지리산 권역 중학교	교사 d
	남원 춘향골교육공동체	지역파트너 e
	남원 춘향골교육공동체	지역파트너 f
	남원 춘향골교육공동체	지역파트너 g
	남원 춘향골교육공동체	지역파트너 h
	진주교육공동체 결	지역파트너 i
	진주교육공동체 결	지역파트너 j
	진주교육공동체 결	지역파트너 k
지역기관 파트너	진주교육공동체 결	지역파트너 l
지역자원조사 참여자	남원 지리산 권역 마을카페 운영	자원조사 참여자 m
	남원 시내 권역 디저트카페 운영	자원조사 참여자 n
	남원 시내 권역 캐릭터디자이너	자원조사 참여자 o
	남원 시내 권역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자원조사 참여자 p
	남원 시내 권역 영상제작자	자원조사 참여자 q
전문가 자문	서울 은평 크리킨디센터	현장 전문가 r
	서울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현장 전문가 s
	경기 의정부 몽실학교	현장 전문가 t

[표 24] 심층인터뷰 대상 개요

③ 방법

- 개별 심층인터뷰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진행

④ 주요 질문

대상	질문 항목
참여 청소년	프로젝트 참여 동기 및 목적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한 일과 삶에 대한 의견
	지역 내 자원과 연결한 프로젝트와 진로 고민과의 연결성
	지역사회 인식 및 선호에 대한 의견
	관심 진로
지역기관 파트너	프로젝트 중점 방향 및 목표
	자원 연계를 통한 진로탐색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참여 청소년 관점)
	자원 연계를 통한 진로탐색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지역구성원 관점)
	지역 내 진로자원 생태계를 위한 역할에 대한 의견
	후속 사례 발굴에 대한 의견
자원조사 참여자	자원 연계 사례 공유
	자원 연계를 통한 진로탐색 활동이 지역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표 25] 심층인터뷰 주요 질문 개요

(4) 심층인터뷰 분석

심층인터뷰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의 근거를 더하기 위한 용도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인터뷰 전체 결과를 순서대로 나열하기보다 주제 및 항목에 따라 설문 세부 문항의 유의미한 분석 결과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 청소년 심층인터뷰는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자원 활용 및 연계에 따른 진로의식 변화 양상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진로의식 관련 5개 핵심역량 관련 지표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프로젝트 전후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 관심사 및 가치관 등의 항목에서의 진로의식 변화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기관 파트너 및 지역자원조사 참여자, 전문가 자문의 경우 청소년 진로의식 변화와의 연관성에 따라 2·3·4장에 나누어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① 자아이해 및 자기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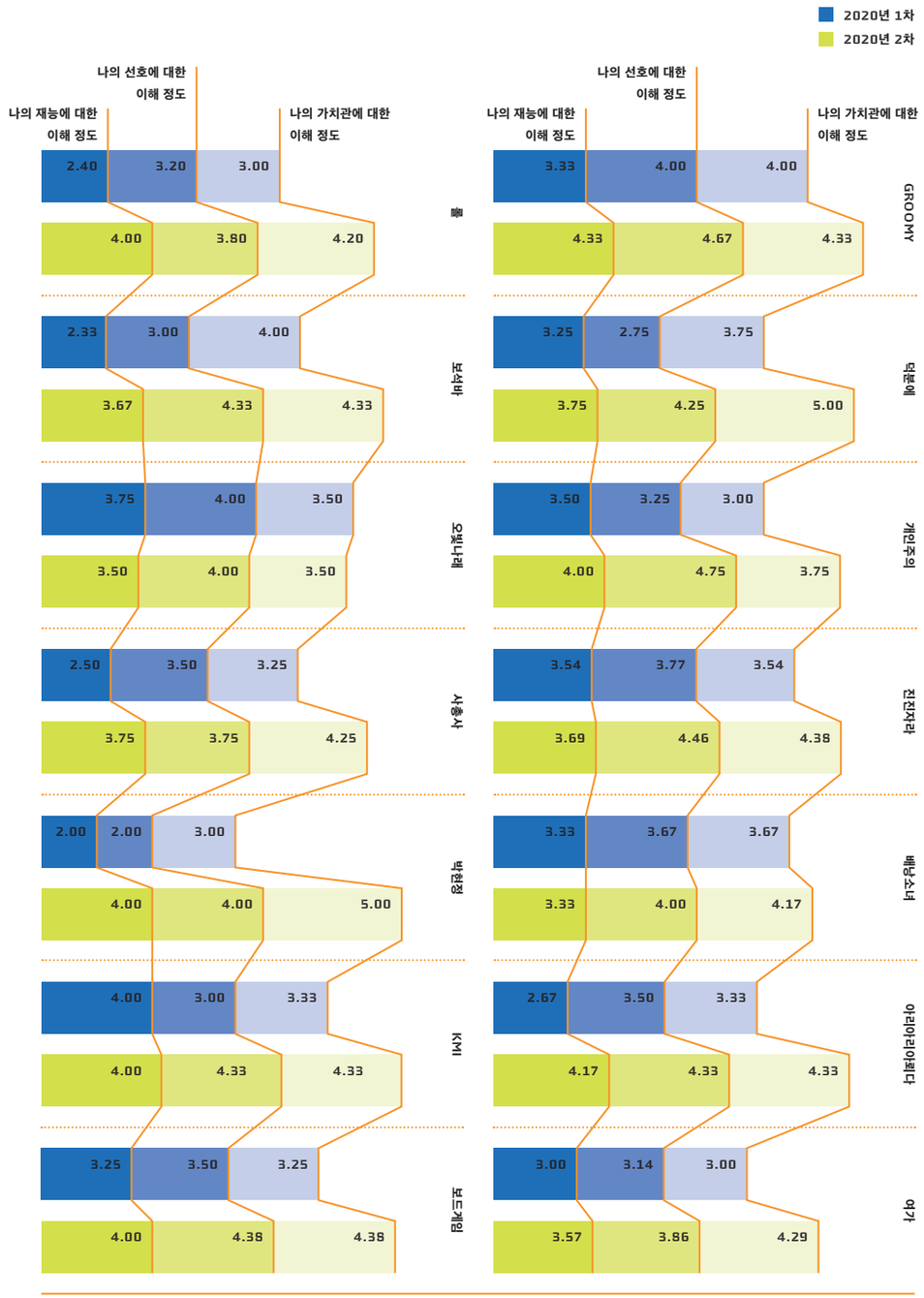
앞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자아이해력 관련 역량지표 점수는 6개 세부 문항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자기이해' 관련 지표 가운데에는 특히 '가치관에 대한 이해 정도'가 프로젝트 종료 이후인 2차 조사에서 4.28점으로 1차에 비해 0.89점 상승하였다.

프로젝트팀별 점수 변화 결과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14개 팀 대부분이 모든 문항에 대해 프로젝트 시작 전(1차)에 비해 종료 후(2차) 점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가 1명이었던 '박현정' 팀을 제외하더라도 적게는 0.25점에서 많게는 1.33점까지 증가하였다. 유일하게 감소 양상을 보인 '오빛나래' 팀의 '재능에 대한 이해 정도' 문항 역시 0.25점 감소로 정도가 크지 않았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활동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활동이 단순히 재능을 발견하고 훈련하는 직업적 접근이 아니라, 일과 삶의 모양을 다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작곡·작사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모인 'GROOMY' 프로젝트 참여자 F와 G의 인터뷰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사실 제가 진로를 엄청 구체적으로 잡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책을 통해 지역에서 영상 작업을 하시던 분을 만난 게 인상적이었어요. 직업 분야를 체험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만나는 느낌으로 참여했어요."
>
> **참여 청소년 F**

> "책에서 보던 정보나 원래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랑은 그 직업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기타리스트나 대금연주자나, 이게 어떤 직업의 개념으로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 62] '자기이해' 세부문항 점수 변화 (프로젝트별)

뒤에 힘든 점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제가 앞으로 뭔가 결정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참여 청소년 G**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참여 청소년의 흥미와 선호, 특정 일이나 삶에 대한 가치관은 확장될 수 있다. 이는 활동의 목적이 ‘나에게 알맞은 직업을 반드시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접함으로써 전과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전에는 몰랐던 나의 관심을 발견하는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프로젝트 활동 주제인) 영상 촬영하고 만드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변 어른들이나 학생들 인터뷰 하러 다닌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원래 낯을 심하게 가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랑은 아예 말을 못하거든요. 생각보다 내가 말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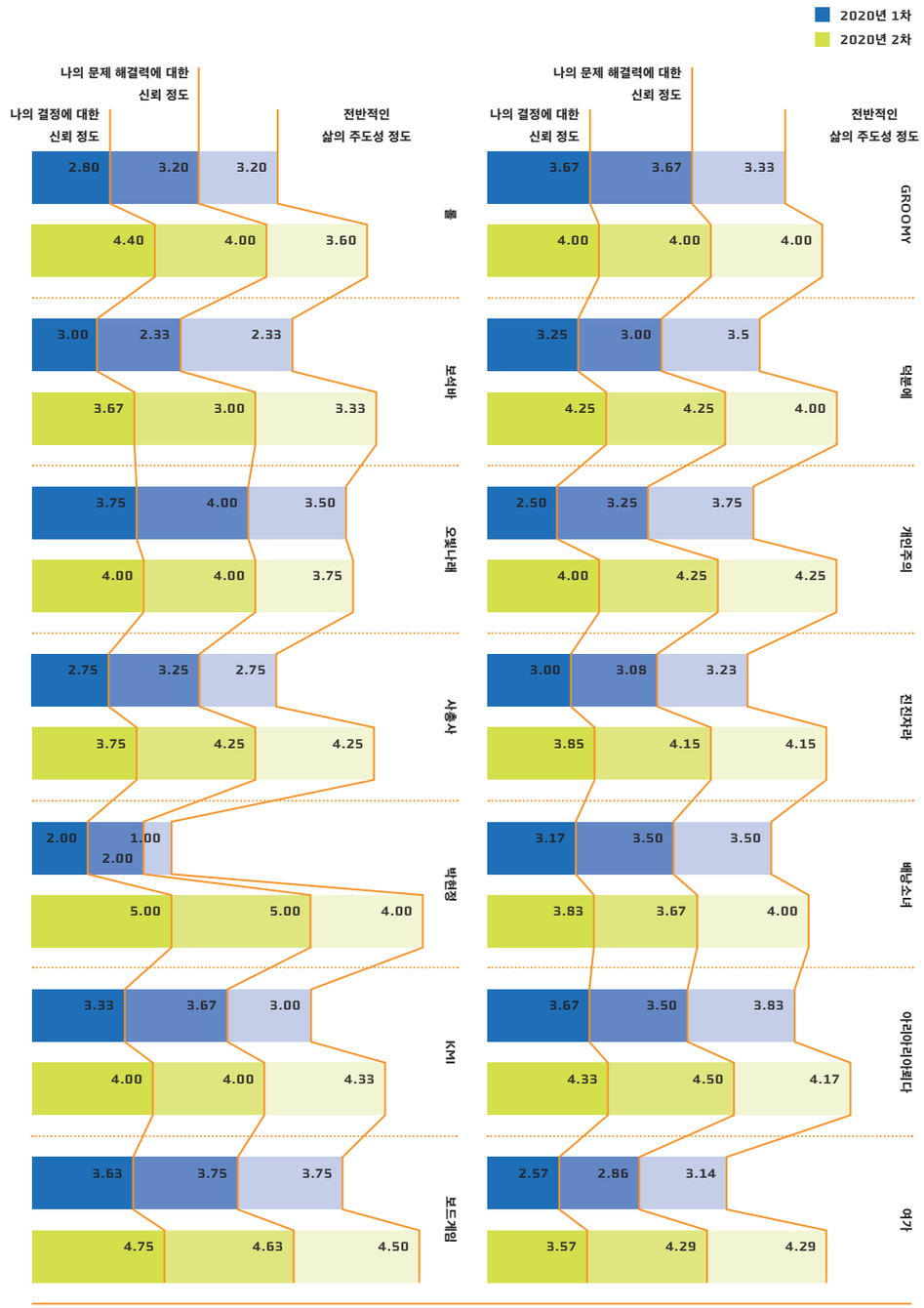
참여 청소년 C

자아이해력 가운데 ‘자기인식 및 주도성’ 관련 지표에서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신뢰’ 문항 지표가 4.06점으로 무려 0.93점 증가하였다. 또한 ‘자신의 문제 해결력에 대한 신뢰 정도’는 4.15점으로 0.87점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삶의 주도성 정도’ 역시 4.10점으로 0.79점 상승했다. 이러한 증가 양상은 프로젝트별 변화 양상에서도 고르게 나타난다. 참여 청소년 인터뷰 가운데서도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통한 ‘스스로 한다’, ‘관심’, ‘결정’ 등의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주제 안에서도 다양한 진로 관심 분야가 공존할 수 있음에 대한 응답도 있었다.

“프로젝트 인원이 되게 많았어요. 18명 정도? 되게 큰 주제로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세부 주제에 맞게 3개 정도 소팀을 나눴어요. 팀장은 팀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방향을 정하고, 또 팀장들끼리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한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축제’라는 넓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도, 그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 청소년 L**

“대안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수업으로 접할 수 있는 게 비교적 다양한 편이에요. 공예 같은 수업을 들으면 공예에 흥미가 생기고, 다른 걸 하면 또 그것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 걸 하며 사는 것도 재미있겠단 생각을 해요. 관심이라는 건 그런 데서도 갑자기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호기심이 생길 때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활동,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친구들이 있다면 뭔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 청소년 D



[그림 63] ‘자기인식-주도성’ 세부문항 점수 변화 (프로젝트별)

② 협업능력

진로의식 관련 역량지표로 협업능력을 구성한 것은 프로젝트 기반이라는 특성과 문제 해결을 통한 주제 달성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프로젝트팀 단위로 운영된다는 점은 개인의 진로 분야에 최적화된 주제로 구성되지 못하더라도 팀원들과 조율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이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업능력 내 '또래 관계'와 '협동의식'과 관련한 세부 문항의 측정 결과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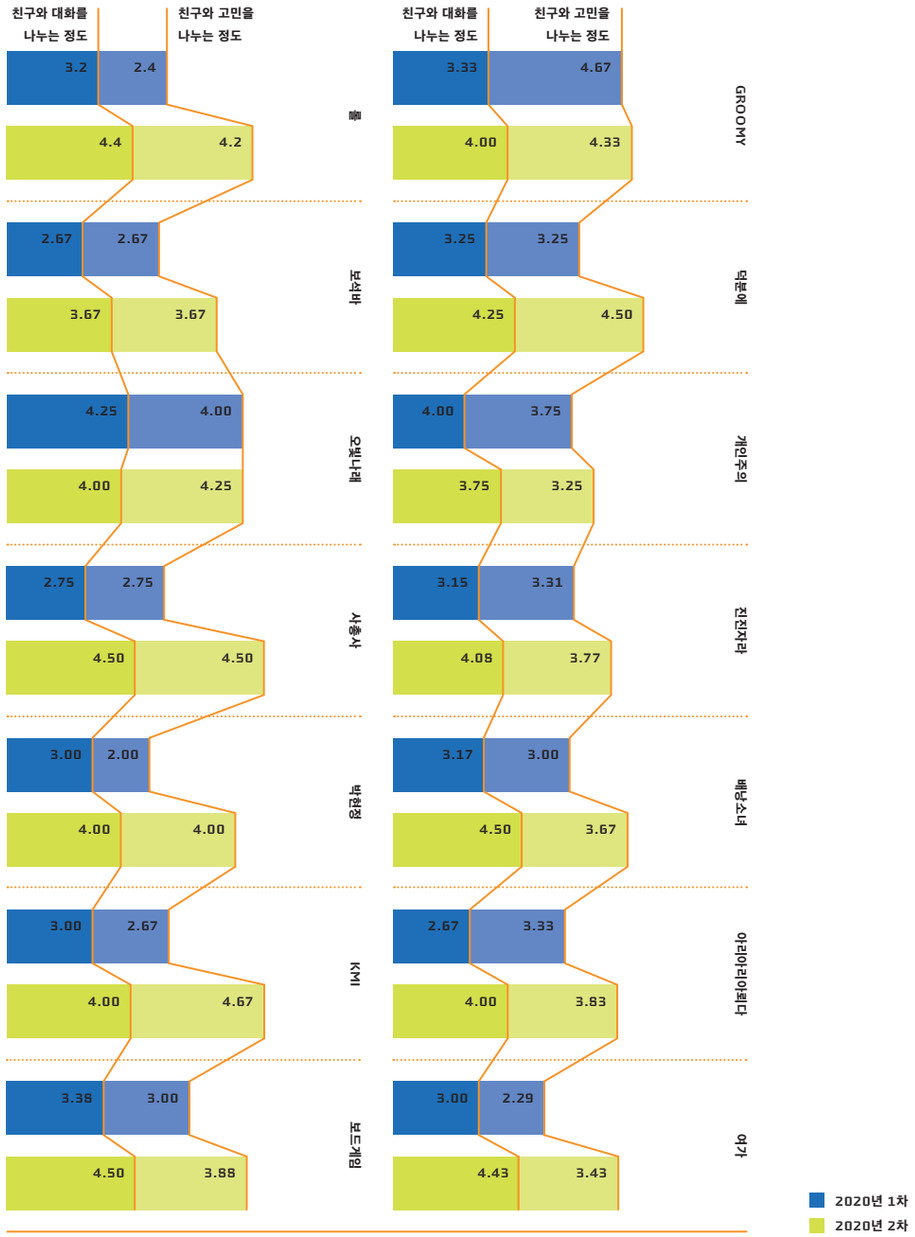
'또래 관계' 항목 내 2개 세부 문항의 프로젝트별 점수 변화 양상은 아래와 같다. 전반적으로 점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사총사' 팀은 상승폭과 2차 합계 점수 모두 가장 높았다. '개인주의'팀의 경우는 2차에서 오히려 두 문항 모두 점수가 감소했고, '오빛나래' 팀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정도'는 감소하고 '친구와 고민을 나누는 정도'는 증가해 두 문항 점수 합계에서 변동이 없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또래들과 비슷한 진로 고민과 관심사를 나누는 것은 참여 청소년 입장에서 큰 기대 지점이었다. 특히 남원 지리산 권역의 경우 지역의 규모나 자원 특성 상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아 참여 청소년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또래를 만나고자 하는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프로젝트 처음 시작한다고 할 때, 이 주변에 사는 또래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꾸려서 우리가 해보는 거니까, 같이 활동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
> **참여 청소년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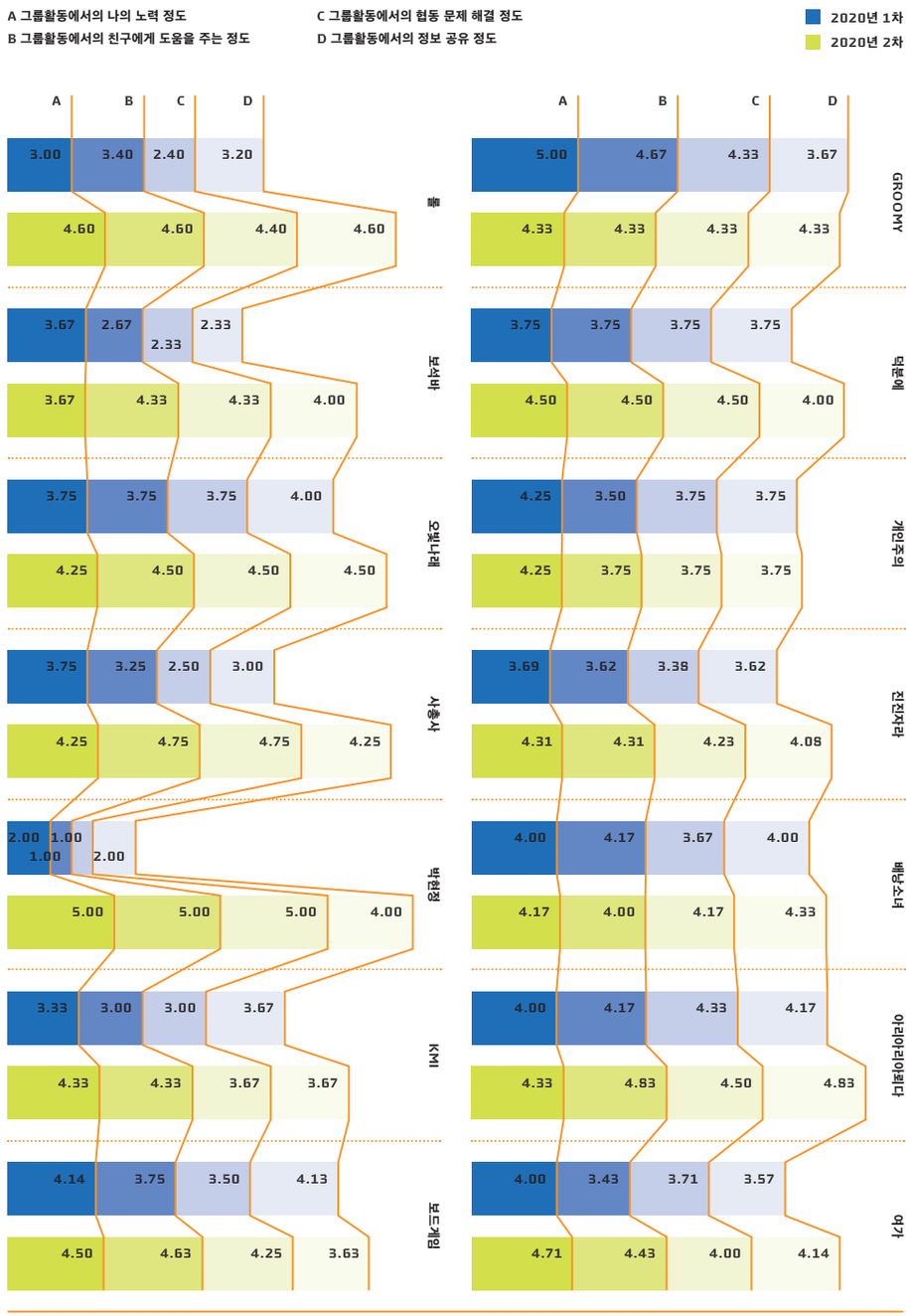
협업능력 가운데 '협동의식' 항목 4개 세부 문항의 프로젝트별 점수 변화에서도 전반적으로 고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원 지리산 권역 프로젝트팀인 '롤'과 '보석바', '사총사', '박현정' 팀의 점수는 프로젝트 종료 이후 조사에서 눈에 띄게 상승하여 앞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욕구와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14개 프로젝트 가운데 내일생각워크숍 내 탐색 및 기획워크숍에서의 관심 분야가 프로젝트 주제로 연결된 팀은 11개로 78.5%에 달했다. 모듈 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경향은 비슷한 관심 주제를 가진 참여자들 간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참가자들은 프로젝트 기획 이전에도 탐색워크숍, 상상캠프 등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관심 분야를 구체화하는 경험을 마련하였는데, 강화된 유대와 관계 내에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팀 단위 내에서의 활동 동기 부여, 도움을 주고 받는 것, 협동에 기반한 문제 해결과 정보 공유에 대한 인식 증가는 협동의식을 바탕으로 한 진로탐색 프로젝트 활동의 성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64] '또래 관계' 세부 문항 점수 변화 (프로젝트별)

"혼자 하면 못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더라도 나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계획을 짜고 선생님을 뵐 기회도 없었을 것 같고. 근데 (팀



[그림 65] '협동의식' 세부 문항 점수 변화 (프로젝트별)

원들이랑) 같이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힘들거나, 귀찮고 안 하고 싶을 때도 모이게 되고, 그래서 더 시너지가 났다고 생각해요."

참여 청소년 F

"저는 지금 딱히 진로가 없는데,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과 또 연결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내봤던 게 너무 좋았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기는 하지만, 막막했던 진로에 대한 고민거리들이 좀 덜어졌다는 마음이 있어요."

참여 청소년 J

③ 진로주도성

진로주도성 항목 내 3개 세부 문항은 각각 '진로 결정에 대한 주도성', '적합성에 대한 자기 확신', '결정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 세 문항은 2차 조사에서 4.18점, 3.89점, 3.96점으로 1차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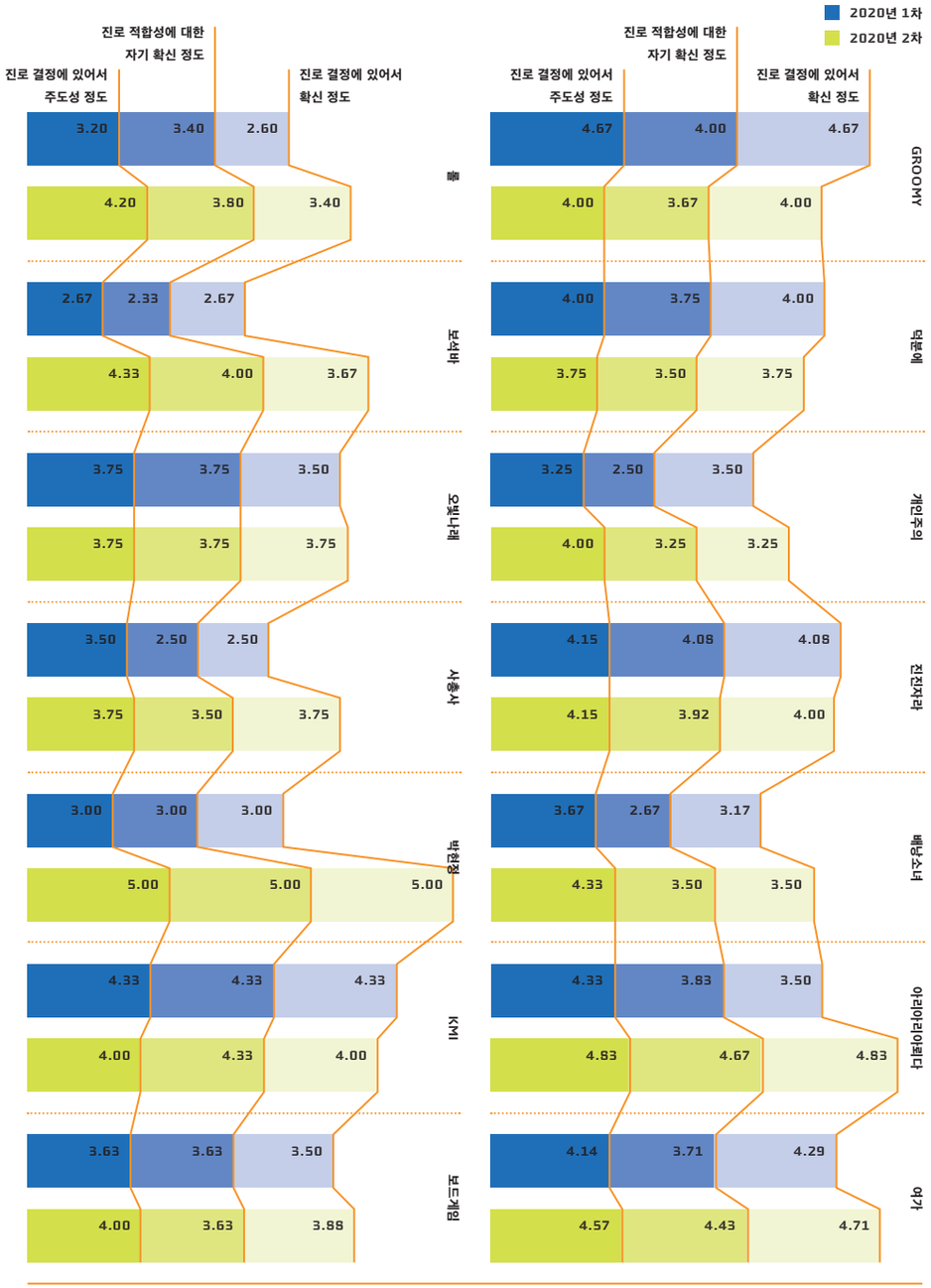
프로젝트별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팀별 결과는 다소 상이하였다. '롤'과 '보석바', '사총사', '박현정', '아리아리아리랑', '여가' 팀과 같은 경우 증가한 반면, 1차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던 'GROOMY'팀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점수가 낮아져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KMI'팀, '덕분에'팀, '진진자라'팀에서도 하락했다. '진로 결정에 있어서 확신 정도'에서 5팀, '진로 결정에 있어서 주도성 정도'와 '진로 결정에 있어서 확신 정도'에서는 각각 3팀에서 점수가 낮아졌다.

참여 청소년 심층인터뷰 결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남원 지리산 권역 프로젝트인 '오빛나래'의 경우 설문조사 점수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오빛나래' 프로젝트 참여자 D의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는데, 관련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역에서 춤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을 만난 게 너무 좋았어요. 춤 관련 분야로 진로를 정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고, 현실적으로 춤을 추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건 또 좋은지를 직접 들으니까. 이제는 춤만이 아니라 예술활동 전반에 관심사가 좀 넓게 생긴 것 같아요." **참여 청소년 D**

2차년에 발굴한 진로 자원을 사람책으로 연결하는 양상은 1차년

활동에 비해 크게 확장되었다. 오프닝 활동에 해당하는 상상학교 내 강연과 사람책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진로 분야별 찾아가는사람책 활동,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림 66] 진로주도성 세부 문항 점수 변화 (프로젝트별)

진로 자원으로서 폭넓게 활용되었다.

"사람책 활동이 진짜 도움이 되는 건,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걸 준비해가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어떤 이미지로 남기도 하고, 궁금한 것들을 생생히 들려주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음에도 생각나지 않을까."

참여 청소년 E

"학교에서 진로 수업을 들으면 보통 직업에 대한 소개 정도잖아요. 내가 뭘 해보거나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억도 잘 안 나고, 다른 세상 얘기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책은 직접 겪은 경험 이야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취미로 밴드를 하는 대학생들이었는데, 직접 기타 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대화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좀 와 닿았어요."

참여 청소년 L

④ 직업의식

직업의식 관련 항목은 '장래 직업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6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쉽게 해직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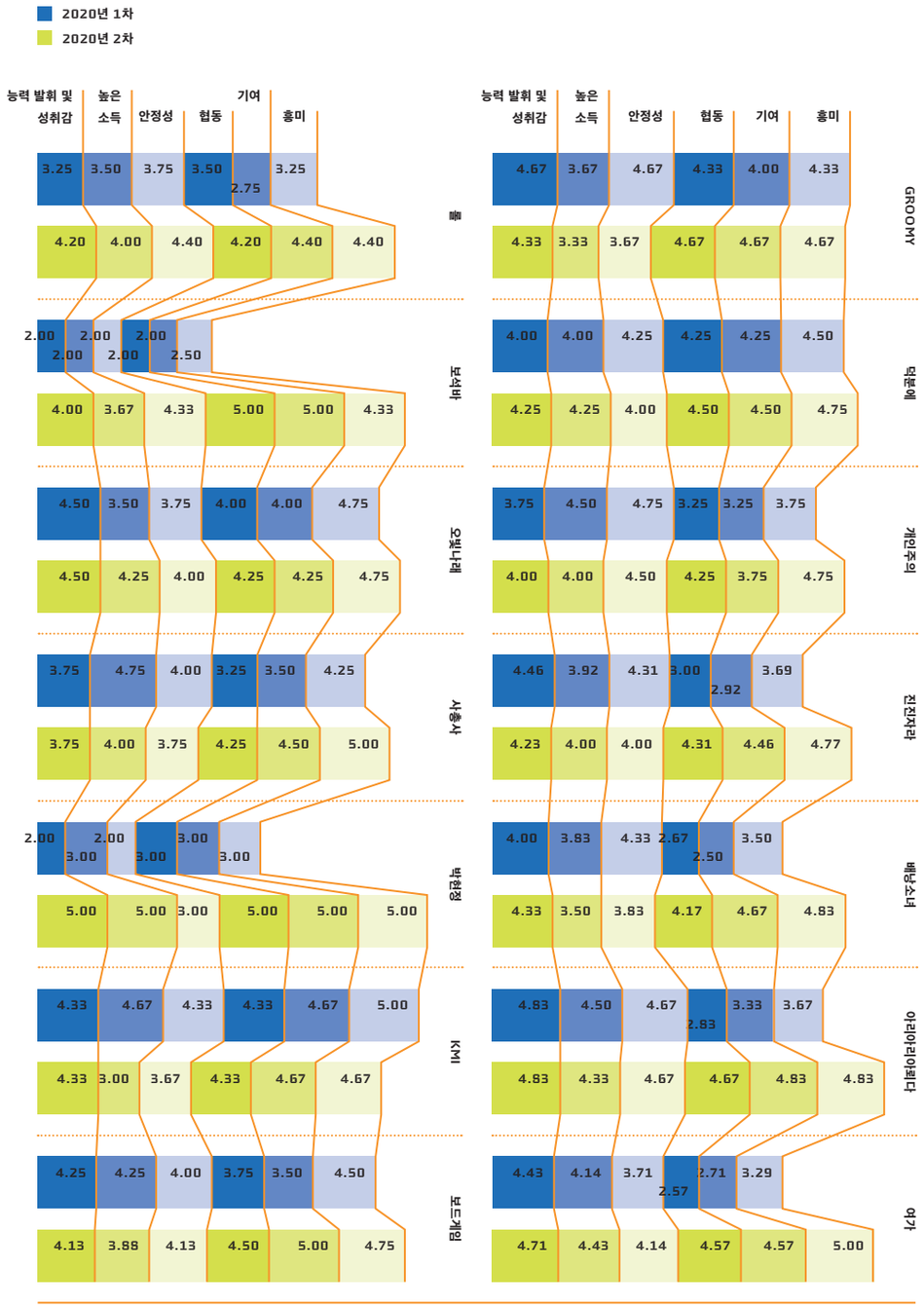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하였듯 전체 평균 점수에서 '높은 소득'과 '안정성'에 대한 점수는 각각 0.04점, 0.02점 감소한 반면, '기여'는 1.33점, '협동'은 1.14점, '흥미'는 0.88점, '능력 발휘 및 성취감'은 0.17점 증가하였다.

'높은 소득'과 '안정성'의 감소 폭은 매우 적어 큰 변화를 보였다고 분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나, 수치 변화 크지 않았다는 점 또한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2개 항목 점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나머지 4개 문항 점수는 눈에 띄게 상승한 지점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직업의식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업의식과 관련한 문항별 점수를 프로젝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악에 관심 있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KMI'팀의 경우 '높은 소득' 항목에서 무려 1.67점의 하락을 보였다. 작사·작곡을 주제로 한 'GROOMY'팀에서는 '안정성' 문항에서 1점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도 '높은 소득'과 '안정성'에서 점수가 하락한 팀은 각각 7팀이다.

남원 시내 권역 'GROOMY'팀 참여자 F와 G의 심층인터뷰 응답은 프로젝트를 통한 직업의식 변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다.



[그림 67] 직업의식 세부 문항(직업생활 중요도) 점수 변화 (프로젝트별)

'GROOMY'팀은 전체 평균 지표 양상과 비슷하게 '높은 소득'과 '안정성'에 대한 중요도 점수는 하락한 반면, '흥미', '기여', '협동' 항목 점수는 증가하였다.

> "한 번도 제가 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활동 하면서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직접 멜로디도 짜 보고 음악도 입혀보고 한 게 너무 좋았어요. 추운 날 떨면서 촬영도 하고, 이랬던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참여 청소년 F**

> "솔직히 작사나 작곡, 뮤직비디오 촬영 같은 거는 가수들이 하는 거라는 생각만 들잖아요. 돈도 엄청 많이 들거나, 왠지 서울에 가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직업의 틀에 갇히지 않고도 경험해볼 수 있었다는 게 진짜 좋아요." **참여 청소년 G**

진주 '아리아리아뢰다' 팀의 경우 '높은 소득'과 '안정성' 관련 지표 변화는 크지 않으나, '협동', '흥미', '기여' 관련 항목은 타 팀과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장래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돈과 안정적 직업은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더라도, 진로와 직업 고민에서 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아리아리아뢰다' 참여자 I의 심층인터뷰 응답 결과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몇 가지 관심사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 활동을 하면서, 직업이 있지만 다른 일을 하고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성인이면서도 '내가 지금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이런저런 일도 해볼 수 있고,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분들을 통해 저도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참여 청소년 I**

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직업세계 안에서 반드시 하나의 직업을 갖고 살지 않을 수 있고, 직업과는 별개로 자신이 원하는 일과 삶의 선택지를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목적과도 부합한다.

⑤ 지역사회 인식

지역사회 인식과 관련한 5개 세부 문항에 대한 점수 역시 2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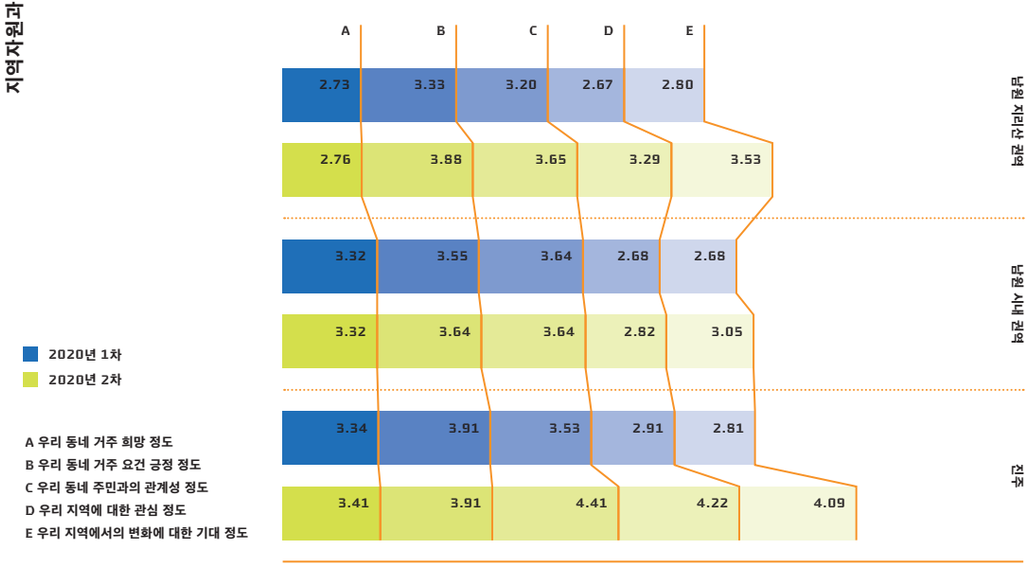
모두 증가했음을 앞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 정도'와 '우리 지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 정도'는 1차 조사 결과 각각 2.78점과 2.77점으로 핵심역량 관련 타 세부 문항 평균 점수와 비교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는데, 2차 조사 결과 3.56점과 3.63점으로 눈에 띄게 상승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역사회 인식 관련 문항의 지역별 양상을 살펴보면, 3개 지역 5개 문항 모두 증가폭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상승을 보였다. 진주 지역이 1, 2차 모두에서 합계 점수가 가장 높았고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 정도'는 1차 2.91점에서 2차 4.22점으로, '우리 지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 정도'의 점수는 2.81점에서 4.09점으로 크게 올랐다. 남원 시내 권역에서는 합계 점수의 증가폭이 비교적 적었고 2차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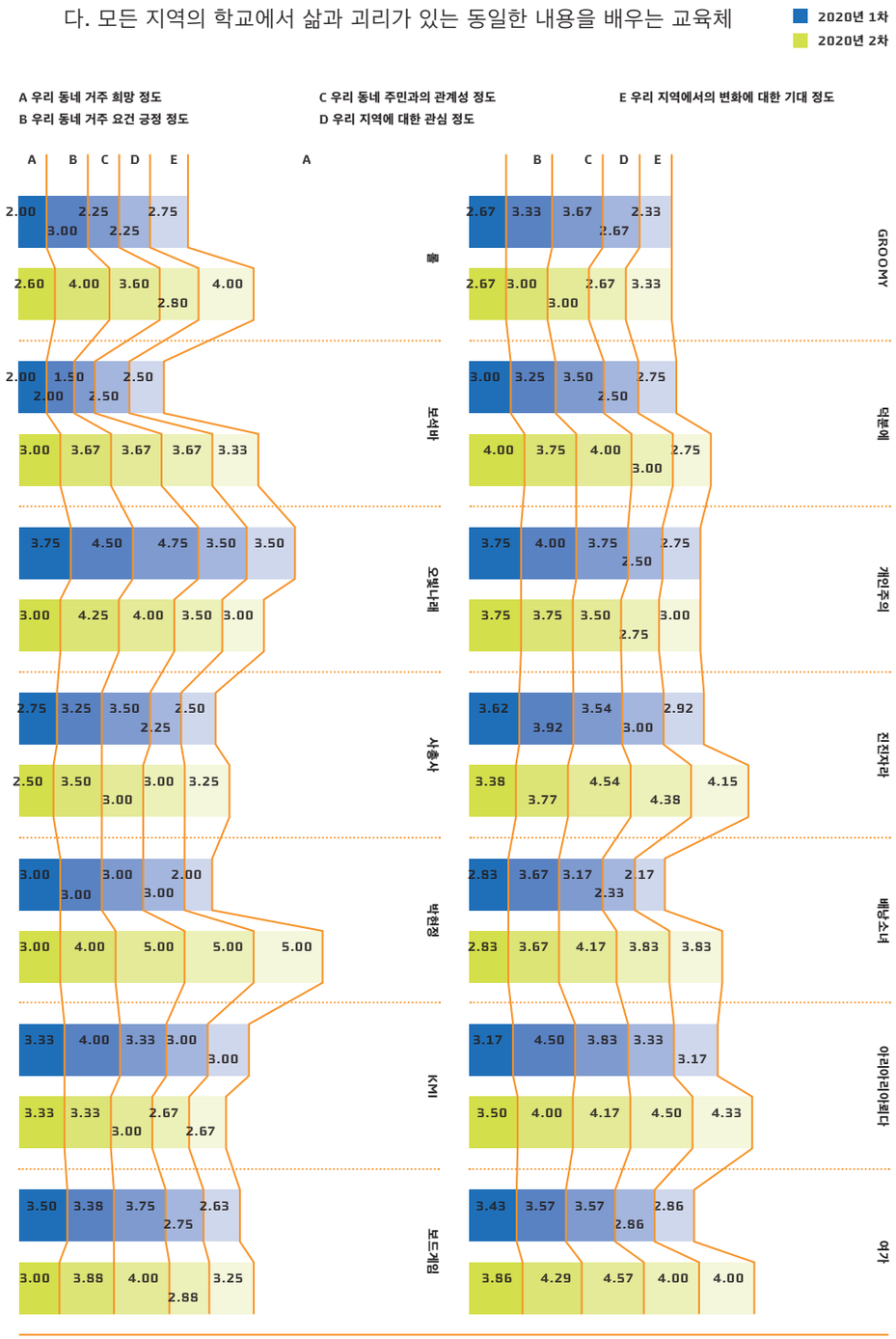
프로젝트별 점수 변화 역시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5개 문항 합계 점수가 1차에서 가장 낮았던 '보석바' 팀의 경우 2차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1명만 응답했던 '박현정' 팀 제외) 특히 '우리 동네 주민과의 관계성 정도'는 1.50점에서 3.67점으로 2점 이상의 높은 상승을 보였다

반면 '우리 동네 거주 요건 긍정 정도'에서는 7개 팀, '우리 동네 주민과의 관계성 정도'에서는 5개 팀이 점수가 다소 감소하는 등 세부 문항 별로는 미세한 하락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학교 체제에서는 지역에 대한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으로 취급된다. 모든 지역의 학교에서 삶과 괴리가 있는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교육체



[그림 68] 지역사회 인식 세부 문항 점수 변화 (지역별)



[그림 69] 지역사회 인식 세부 문항 점수 변화 (프로젝트별)

제는 지역마다 각자의 삶과 연관된 다른 내용을 배우는 교육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집 짓기, 농사 짓기, 태양에너지 사용 등의 다양한 관심 분야의 교육의 영역 안에 들어갈 때, 교육 커먼즈는 지역 내 시민운동, 생산과 소비의 결합, 다양성을 담보한 공론장 등의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데이비드 W. 오어, 『작은 지구를 위한 마음』**

5가지 핵심역량 항목 가운데 '지역사회 인식'은 지역과의 적극적 연계를 전제로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따른 지표로 볼 수 있다. 프로젝트 내 모든 진로탐색 활동은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공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역 문제나 지역구성원에게 큰 관심이 없더라도 프로젝트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 니즈를 해소하기 위해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들을 찾아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지역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 개인으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자신의 삶과 활동 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주변 환경을 새롭게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참여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확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우리 동네 거주 희망 정도'와 '우리 동네 거주 요건 긍정 정도' 문항의 경우 전체 평균 점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프로젝트별 양상을 살펴보면 감소 및 증가 추세가 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물론 지역에 대한 거주 의향은 매우 가변적인 가치이므로, 특정 삶의 시기에 대한 응답을 절대적 지표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활동 과정과의 연관성과 별개로 동네 거주에 대한 응답자 개개인의 선호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정량적 수치의 경향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참여자 인터뷰를 통해 '지역에 계속 살 의향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진로 분야를 동네에서 찾아 살 수 있을 것 같은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지역의 특성이나 규모와 별개로 응답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참여자들의 경우 그 이유로 자원의 부족, 편의 및 생활시설 부족, 문화적 측면에서의 차이 등을 꼽았다.

"살기는 좋은 것 같은데, 커서도 여기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적하고, 사람도 적고, 익숙한 친구들이 있는 게 좋기도 하고, 엄청 복잡하고 그런 도시는 싫어서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을 여기서 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필요한 게 생길 때 부족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 청소년 G**

"(현 거주지역인) OO면은 너무 작고, 다이소라든가 기본적인 편의시설, 놀 시설들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학생일 때는 크게 불편한 건 없고, 여기서 쭉 살았으니까 그냥저냥 살기는 하는데, 스무 살이 되면 OO면보다는 큰 지역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죠." **참여 청소년 A**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이 동네도 뭐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축제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건 확실히 대도시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부산에는 바다도 있고, 빌딩들 사이사이에 놀 것도 있고, 어떤 그런 주변 문화 같은 게 큰 차이가 아닐까 해요." **참여 청소년 I**

반면 긍정적 응답을 보인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남원 지리산 권역 참여자인 B와 D의 경우 지역 내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인지함에도 지역적 특성과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 등을 지역에서 살고 싶은 이유로 꼽았다.

"사는 곳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해보진 않았는데, 큰 아쉬움 없이 대체로 만족해요. 대도시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것들은 있고, 놀러나갈 때는 시내까지 가야 하긴 하지만, 살면서 불편한 적은 딱히 없어요."

참여 청소년 B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좋다는 어떤 신뢰가 있어요. 더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 고민하고 애 쓰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면서 살았고, 그런 노력들이 고마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동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여 청소년 D**

진주 지역 참여 청소년 L의 경우 지역 거주 희망 여부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자신의 진로 분야를 찾는 데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제가 희망하는 진로 분야는 의료분야인데,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도권에 비해서 조언을 받거나 도움 받고 준비하거나, 찾아가볼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오히려 부족할지 모르는 자원들을 생각할 때,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도 분명 그런 일을 사람들이 있고, 내가 직

접 찾고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 청소년 L**

동네 주민과의 관계성을 묻는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문항에서 역시 프로젝트별로 증가 및 감소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프로젝트의 주제 특성이나 지역 연계 수준과도 상응하는 측면이 있다. 지역사회 내 자원과 연결되거나 도움을 받은 빈도나 수준이 타 프로젝트에 비해 높았던 남원 지리산 권역의 '롤', '보석바' 팀의 경우 각각 해당 점수가 2.25점에서 3.60점, 1.50점에서 3.67점으로 크게 올랐다. 또한 진주 지역에서 축제 기획을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지역구성원과 결합했던 '진진자라' 팀은 3.54점에 4.54점으로, 진주 청소년 가이드북 제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공간들을 탐방한 '여가' 팀은 3.57점에서 4.57점으로 모두 1점씩 상승하였다. 여가' 팀 참여자 J와 '진진자라' 팀 참여자 L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활동 과정에서 연결되었던 자원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저희 프로젝트는 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팀이라,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북 아티스트 선생님과 연결되어 제작실을 직접 방문했었어요. 책자 종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이드북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 새로운 도움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참여 청소년 J**

"축제 주제 안에서 부스팀은 직접 만든 레몬청과 코코아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기부할 계획을 가지고, 직접 동네 카페를 찾아가서 레몬청 담그기 수업을 들었어요. 또 공연팀은 연습할 공간을 찾다가 인근 대학교 밴드동아리 연습실을 소개받았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축제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중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인근 시민단체 미디어센터 분들께도 도움을 받았어요." **참여 청소년 L**

'지역에 대한 관심 정도'와 '지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 정도'는 '오빛나래' 팀과 'KMI' 팀을 제외한 12개 프로젝트에서 모두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필요한 자원들을 지역 안에서 찾는 경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프로젝트 활동하기 전에도 동네 어른 몇 분 알고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고, 뭘 배워보거나 어떤 활동을 제안해본 건 이게 처음이에요." **참여 청소년 B**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많구나 하는 걸 새삼 알았어요. 프로젝트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하기까지 전부 다 우리 지역 안에서 모두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게 놀라웠어요." **참여 청소년 D**

"학교에서도 이런 직업 관련된 분들은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사실 혼자서 뭘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관심 있는 걸 찾아 만날 수 있는 게 좀 신선했어요." **참여 청소년 L**

⑥ 진로 및 목표 설정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있다'라는 응답은 1차 43.7%에서 2차 54.9%로 증가한 반면, '없다'라는 응답은 1차 56.3%에서 2차 45.1%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구분	2020년 1차		2020년 2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31	43.7%	39	54.9%
없다	40	56.3%	32	45.1%
전체	71	100.0%	71	100.0%

[표 26]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

현재 희망하는 진로 혹은 원하는 삶의 목표 설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 비율에 있어 '있다'의 응답 비중이 증가하고 '없다'의 비중이 감소한 것을 긍정적 경향성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일상상 프로젝트의 목적이 직업이나 진로를 빠르게 선택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이한 응답의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에 '있다'라고 답한 참여자에 한하여 '희망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검색, SNS, 동영상 등) 검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찾아본 적이 있다'라는 응답은 1차 93.5%에서 2차 87.2%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없다'라는 응답은 1차 6.5%에서 2차 12.8%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구분	2020년 1차		2020년 2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29	93.5%	34	87.2%
없다	2	6.5%	5	12.8%
전체	31	100.0%	39	100.0%

[표 27] 희망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 검색 여부

'희망하는 진로 및 직업 종사자를 만나거나 만남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역시 '있다'가 58.1%에서 46.2%로 감소하였고, '없다'라는 응답은 41.9%에서 53.8%로 증가하였다.

구분	2020년 1차		2020년 2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18	58.1%	18	46.2%
없다	13	41.9%	21	53.8%
전체	31	100.0%	39	100.0%

[표 28] 희망 진로 및 직업 종사자와의 만남 여부

'희망하는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 혹은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있다'라는 응답 비중이 45.2%에서 48.7%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 역시 절반을 넘지 않았다. '없다'라는 응답은 54.8%에서 51.3%로 다소 감소하였다.

구분	2020년 1차		2020년 2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14	45.2%	19	48.7%
없다	17	54.8%	20	51.3%
전체	31	100.0%	39	100.0%

[표 29] 진로 관련 상담 경험 여부

'희망하는 진로 및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문항에 '있다'라는 응답 비율은 1차에서 83.9%로 매우 높았으나, 2차에서는 74.4%로 감소하였다.

구분	2020년 1차		2020년 2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26	83.9%	29	74.4%
없다	5	16.1%	10	25.6%
전체	31	100.0%	39	100.0%

[표 30] 희망 진로 및 직업 요구 능력 준비 여부

물론 위 결과만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희망 진로가 새롭게 생기거나 변경되었는지, 진로에 대한 정보 검색 경향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진로 및 목표를 설정한 응답자 내에서도 자기 확신이나 준비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며, 직업 설정 이후에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직업이 정말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다음으로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에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에 한하여 미설정 이유를 물었다. 아직 어떤 결정이나 하지 못했더라도 진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내 적성과 흥미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46.9%,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31.3%로 1, 2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금부터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1차에서는 5.1%에 불과했으나 2차에서는 15.6%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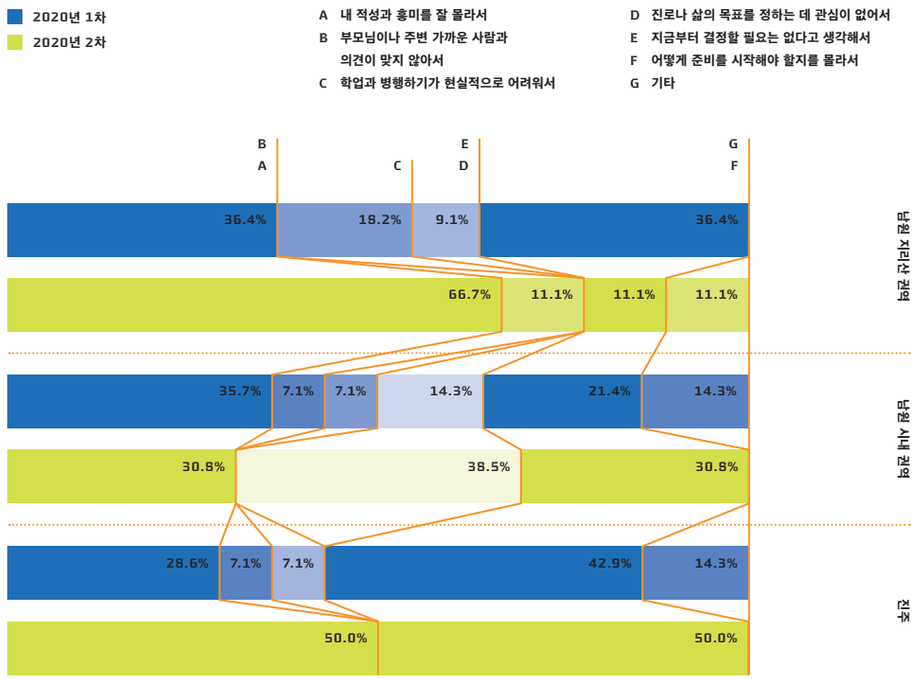
구분	2020년 1차		2020년 2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내 적성과 흥미를 잘 몰라서	13	33.3%	15	46.9%
부모님이나 주변 가까운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2	5.1%	1	3.1%
학업과 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3	7.7%	0	0.0%
진로나 삶의 목표를 정하는 데 관심이 없어서	2	5.1%	0	0.0%
지금부터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2	5.1%	5	15.6%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를 몰라서	13	33.3%	10	31.3%
기타	4	10.3%	1	3.1%
전체	39	100.0%	32	100.0%

[표 31] 진로 및 목표 미설정 이유

이에 대한 지역별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는 '내 적성과 흥미를 잘 몰라서'라는 응답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를 몰라서'라는 응답 비중은 36.4%에서 11.1%로 크게 감소하였다.

유일하게 중학교 1-2학년으로만 구성된 남원 시내 권역의 경우 '지금부터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14.3%에서 38.5%로 증가하여, 앞선 2개 선택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진로 미설정 이유의 다양화는 중학생 참가자 비중을 절대적으로 높인 2차년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각 지역기관은 1차년 프로젝트 과정에서 대학 진학 및 직업 선택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2차년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중학생 참가자를 중심으로 모집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중학생 참가자로만 3년의 프로젝트를 연속으로 진행하는 남원 시내 권역을 포함하여, 중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 경향이 2차년에는 3개 지역 전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70] 진로 및 목표 미설정 이유 (지역별)

중학생 연령대에 진로의 개념은 고등학생에 비해 추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년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중학생 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로 고민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학생 청소년 중심의 활동은 입시 및 직업 선택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서 폭넓은 관심 분야 탐색과 진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 "직접 찾아가는 사람책 활동을 진행했을 때 (어떤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게 인상적이었어요.
>
> ...
>
> 일찍 시작할수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언제든 하고 싶은 게 있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처음부터 압박 받지 말고 천천히 찾아가는 것도 좋을 거라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참여 청소년 D**

물론 국악을 주제로 한 'KMI' 팀이나 베이킹을 주제로 한 '덕분에' 팀과 같이 확실한 진로 분야를 정해 필요한 역량을 연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도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 경우 팀원으로 참여한 또래들은 서로에게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로 작용했고, 다양한 자원들은 자신의 꿈을 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도움과 조언을 줄 수 있는 진로 멘토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2차년 진행된 활동은 전반적으로 확실한 직업 분야를 주제로 삼기보다 한 가지 포괄적 주제 안에 다양한 탐색과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되고 운영되는 경향이 강했다. 마을축제를 진행한 '롤'과 '진진자라' 팀, 놀이와 영상제작이라는 관심사가 섞인 '박현정' 팀, 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한 '여가' 팀이나 청소년 참정권 문제를 다룬 '아리아리아뢰다' 팀 모두 프로젝트 주제가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활동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프로젝트 활동 전후 참여 청소년의 진로의식 및 역량지수는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신속한 진로 선택 및 훈련, 진학 준비를 강조하는 관행적 진로교육 체제에 새로운 진로탐색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 "사실 저는 노래 부르는 게 재미있기는 하지만 이걸로 직업을 갖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해보게 됐어요. 더 좋

아지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다른 고민이 생기면 안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지금 결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참여 청소년 F

커먼즈(commons) 접근을 통한 자원활용 및 관리

1. 커먼즈적 접근의 응용
2. 사회적 커머닝을 통한 진로자원 공동화

3

1. 커먼즈적 접근의 응용

1) 교육 커먼즈 패러다임의 필요성

신자유주의로 상징되는 시장과 자본의 요구에 부응한 국가 체제 내에서 교육문제의 논의 기반은 분배 패러다임이었다. 그동안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물질적 재화를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졌다. 부, 소득 등 물질적인 자원들과 이에 대한 활용 권한을 가진 사회적 지위라는 관점에서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한 것이다(안순억·정용주·윤상혁, 2019). 커먼즈 개념은 이러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통제와 자원 사유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교육공공성 와해의 대안으로서 대두되었다.

커먼즈(commons)란[4] 넓은 범위에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각종 자원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자원 이용권을 보장해주는 제도 혹은 권리의 의미까지 포함한다. 물질적 사물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나 삶의 방식을 포괄하며, 이에 대한 공통적 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커먼즈 개념의 범주 설정에 있어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초기 저작에서 나타나는 자연 공동자원에 대한 물리적 관리를 넘어서 도시·지식·정보·문화 등 인간들의 삶의 양식과 같이 비물질적·비가시적 영역을 아우르는 확장적 개념을 전제로 한다(정영신, 2016). 오스트롬의 연구가 '공유지의 비극'으로 상징되는 공동자원 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시장 개입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서는 자치(self-governance)로서의 커먼즈론을 처음 제시했다면, 이후 커먼즈 개념은 신자유주의와 정보화 사회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한 천연자원 활용뿐 아니라 복지, 의료, 로컬운동, 문화예술, 그리고 교육 영역에서의 논의로 확장되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제시하는 교육 커먼즈의 현안연구 모형에 따르면, '교육 커먼즈'란 공적인 것(the public)에 해당하는 '국가'와 사적인 것(the private)에 해당하는 '자본'과는 구별되는 제3의 주체로서, 새로운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일련의 커머닝(commoning)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러한 접근의 핵심은 커먼즈가 보편적 의미의 자원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커먼즈는 사회적 협동 속에서 '생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Michael Hardt Antonio Negri, 2017; 박서현, 2020). 따라서 교육 커먼즈는 커먼즈를 생산하고 발굴하는 커머닝의 과정이 곧 교육임을 의미하며, 기존 분배 패러다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커먼즈는 자원의 유지와 공동관리 활동으로서의 커머닝(commoning)과 협치(governance)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적 형태의 자원관리나 공적·국가적 형태의 자원 관리, 다시 말해 상품 교환에 기반을 둔 시장의 영역이나 국가의 재분배 시스템과는 구분됨을 전제한다. 교육 커먼즈를 사회적으로 창출한다고 할 때 그것은 특

[그림 71] 교육 커먼즈 현안보고 분석모형(자료: 안순억 외, 2019)

4. 국내 번역서와 논문에서 'commons'는 영역과 필요에 따라 '공유재', '공유자원', '공동자원'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된다. 그러나 commons의 실제적 형태는 소유권과 무관하게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자원'에 가장 가깝다.(최현, 2013) 또한 일반적으로 토지, 기후, 생태 등 물질적 대상이 분명한 경우에는 번역어를 활용하지만 비물질적인 영역에 있어 '커먼즈'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육 커먼즈 개념에 한정한 본 연구에서는 '커먼즈'라는 용어로 옮겨 쓰고자 한다.

정 개인이나 집단에 전유되는 희소재가 아니라, 커머너들에게 공유되는 공유재로서의 성격을 지녀야 하며, 이때 커먼즈를 공유하고 있는 각 개인은 단순히 자원을 제공받는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자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의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 커먼즈 논의는 와해된 교육공공성을 복원하고 확장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커먼즈적 접근을 통한 자원 연계 및 활용 개념은 국가중심(state-centric) 패러다임 사회에서 지역사회 중심(community-based), 지방분권(decentralization) 중심, 협치(governance) 중심의 방향성을 가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 커먼즈의 가능성을 조명하는 일련의 흐름과 동일한 맥락 안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자원 연계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나아가 교육 커먼즈적 관점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되고 연결된 자원들의 느슨한 연대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톺아보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원 활용의 쌍방향성 및 확장성

커먼즈는 자원의 특성이 아니라 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하나의 자원은 한 가지 특성만을 갖지 않으며, 같은 자원이라도 연결되는 주체나 방식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다.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이글루 망원’은 학원으로 쓰던 공간을 마을 청년들이 임대해 공유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커먼즈의 실험 사례다. 샤워실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주방도 있는 이 공간은 사무실이 되기도 하고, 점심에는 식당이 되며, 저녁에는 강의실이 된다. 모여 사는 청년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인근 대안학교에서 강사로 일을 하기도 하며, 관에서 프로젝트를 받아 지역축제나 문화행사를 벌이기도 한다. 요리를 잘 하는 사람은 식사를 제공하고,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은 영어를 가르친다.” **현장 전문가 r**

이 지점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 내 자원 활용과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프로젝트 참여 청소년의 자원 활용은 단계적·도식적 매뉴얼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 분야나 프로젝트 주제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과 변형이 가능하다. 다양한 인물자원 역시 단일한 직업 및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역량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소개하되 청소년들의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쌍방향적이며 확장적인 자원 연결 양상은 주도적 프로젝트 활동에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앞선 2장에서 언급하였듯 1차년 진행했던 ‘응답하라 2005’ 팀의 자원 결합 방식이나, 2차년 비슷한 경향성으로 나타난 찾아가는사람책을 통한 관심 분야 탐색은 모두 이전에 없던 방식의 활용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고, 발전된 측면이 있다.

2. 사회적 커머닝을 통한 진로 자원망 구축

1) 진로탐색 허브로서의 자원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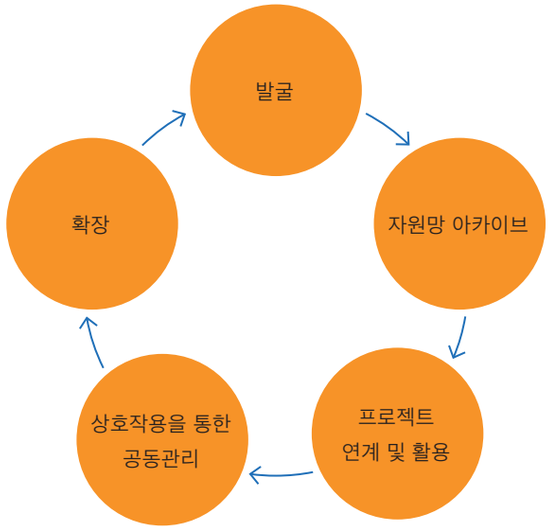
개별 자원들은 하나의 직업적 특성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양한 주변의 관심 및 활동을 연결해주는 진로탐색 허브로서 기능하였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자원들은 특정 직업 분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남원 지리산 권역의 경우 직업 외에도 2개 이상의 관심사와 키워드로 자신을 설명하는 인물자원들의 비중이 높았고, 진주 역시 N잡러나 청년 등 직업으로 유형화했던 관행적 진로교육의 기준과는 다른 인적 구성을 보였다.

따라서 같은 자원이라도 어떤 니즈를 가진 청소년을 만나는가에 따라 연계하는 방식은 다양했으며, 1차로 연계된 자원을 허브로 또 다른 자원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진주 상상학교 모듈에서는 사람책에 참여한 청소년이 특정 분야의 사람책을 읽는 데 머물지 않고 해당 사람책을 통해 관련된 다른 인물이나 단체로 연결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특정 자원이 직업이 무엇인가보다는, 청소년 진로 니즈에 부합해 얼마나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말해준다.

앞선 2장에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프로젝트 목적이나 주제가 반드시 직업과 연결되지 않아도 참여 청소년의 진로의식 역량지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설정한 진로의 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프로젝트 목적이 동일한 직업 분야의 팀원을 만나 동일한 체험 혹은 동일 관심사의 기술적 연마를 하는 데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 공동의 목적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심이나 재능을 발견하는 데 있다.

2) 진로 자원의 커머닝(commoning)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자원 커머닝 과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순환구조이자, 다양한 변수에 의해 순서가 변경되므로 단계별 구성은 고정적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청소년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통해 자원의 성격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거나, 확장되거나,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72] 내일상상프로젝트 자원 커머닝 과정

① 발굴

자원 커머닝의 발굴 단계는 두 가지 요소로 분류된다.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수행주체가 사전 발굴하는 과정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자원들이 청소년 활동과 연결된다. 그러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진로 니즈를 충족할 만한 적합한 자원이 없는 경우 참여 청소년이 활동을 통해 직접 발굴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② 자원망 아카이브

자원조사 과정에서 지역 수행주체는 인터뷰를 통해 자원별 진로 분야와 관심사, 참여 청소년들과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주제 및 분야 등을 기록해 체계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접근이 용이한 자원망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위한 고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③ 프로젝트 연계 및 활용

연계 및 활용은 그 자체로 새로운 커먼즈의 발굴을 전제하는 커머닝이다. 이는 정형화된 진로탐색 자원을 일방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고민과 프로젝트 주제에 맞춰 응용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활용 방식과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음에서 기인한다.

④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관리

자원 관리는 자원 주체가 지역 청소년을 동일한 범주 내에서 인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내일상상프로젝트 진로 자원은 완전한 의미의 커먼즈와는 다른 개념이기에, 공동관리 역시 느슨한 자원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지속하는 방안과 연결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수행 주체의 역할 제고가 요구된다.

⑤ 확장

새로운 자원과의 연결을 통한 인접 지역 확산(연결 자체가 갖는 확장성), 기존에 결합하지 못했던 마을공동체 내에서 '청소년' 및 '진로탐색'이라는 키워드로 연대함에 따라 발행하는 변화를 포괄하는 단계로서 이해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1. 자원 활용 진로탐색 모델 효과성 검토
2. 진로탐색 자원 생태계의 지속과 확산

4

1. 자원 활용 진로탐색 모델 효과성 검토

1) 자원 활용 및 연계의 내실화

①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자원 발굴 및 연계 측면

- 2차년 자원 발굴 양상을 살펴본 결과 3개 지역 모두 지역적 특성과 참여 청소년의 욕구, 지역기관의 가치에 부합하는 자원의 방향성을 성공적으로 도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 남원 시내 권역은 청소년 프로젝트와의 접점이 많지 않은 물적자원 중심 발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일과 삶 분야에서 35개의 인물자원을 발굴하였으며, 발굴 자원은 '찾아가는 사람책' 및 프로젝트 팀 내 진로 멘토 등으로 적극적으로 연계하였다.
- 남원 지리산 권역은 지역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적 삶, 대안교육, 생태·환경적 관심, 문화예술적 실험 등의 가치와 관련 활동 자원들을 '청소년 진로'라는 키워드와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을 고민하였다. 그 결과로서 12명의 인물자원을 발굴해 인터뷰하고, 사람책 및 프로젝트 활동과 연결하였다.
- 진주 지역은 각 읍면동을 거점으로 마을단위 활동가 및 공간을 중심으로 한 자원 발굴을 2차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17명의 인물자원을 발굴하였다. 또한 1차년 발굴한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자원 연계 수준을 향상시켰다.

② 물적·인적 자원의 결핍 해소를 위한 사회자본 확충 측면

- 2차년 자원조사를 관통하는 양상은 자원망의 양적 확장이 아닌 '프로젝트 연계 접점 강화'였다. 3개 지역 모두 인물자원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성 또한 맥락을 같이 한다.
- 위와 같은 방향성에 부합하여, 2차년 프로젝트 수행 과정 전반에서 1차년에 비해 향상된 자원 연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굴한 인물자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접 관심 분야 사람책을 선택하고, 탐색 및 기획워크숍을 통해 관심을 구체화해보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획한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진로 멘토로서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3개 지역에서 발굴한 자원은 뚜렷한 직업 분야로 구분되는 자원이 있는 반면, 하나의 직업적 틀로 구분되기 어려운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자원도 존재했다. 이는 직업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진로 멘토의 삶의 궤적을 함께 공유하며 형성된 관계를 통해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그려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 지역자원으로 참여해 '보석바' 팀과 연계하였던 자원 참여자의 답변에서는 지역 내 진로 자원이 가진 다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들과는 직접 해보는 활동을 통해 어떻게 가치를 전달할까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 까페에 온 이상 커피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한 번쯤은 합니다. 하지만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를 뽑아보거나 카푸치노를 만드는 일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커피 만드는 과정을 함께해 봅니다.생두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가스불에 수망로스팅을 하는 것, 그 커피를 수동 그라인더로 갈아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맛보는 식으로요.

...

이런 방식의 일이든 우리가 잘 모르는 처음과 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커피를 기르는 일, 수확해서 가공하는 일, 그것이 다른 나라로 옮겨지는 일, 로스팅하는 일, 각 까페로 원두가 배달되는 일, 누군가 커피를 마시고 나면 설거지를 하는 일, 혹은 그 종이컵이 버려진 이후의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일들인데 그것이 모두 누군가가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몇천 원 주고 소비하지 않고도 더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카푸치노에 예쁜 그림을 그리는 일이나 흔히 생각하는 바리스타의 ABC는 닥쳤을 때 익히면 되니까요."

자원조사 참여자 m

2) 자원 활용에 따른 참여 청소년의 진로의식 변화

① 5가지 핵심역량 지수의 전반적 증가

- 자원 활용 및 연계 수준이 크게 증가한 2차년 프로젝트 수행 과정이 참여 청소년의 진로의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프로젝트 참여 전후 추적조사 결과, 진로의식 관련 5가지 핵심역량 지수와 관련한 26개 세부 문항 점수는 모두 눈에 띄는 증가를 보였다.
- 자아이해력 관련 6개 세부 문항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자아이해력 중 '자기이해' 항목과 관련한 '자신의 재능', '선호', '가치관'에 대한 이해에의 문항 점수와 심층인터뷰 응답을 살펴본 결과, 반드시 직업 선택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직업 이면의 삶에 대한 이해, 몰랐던 자신의 재능에 대한 발견 등을 통해 스스로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아이해력 중 '자기인식-주도성' 항목과 관련한 '나의 결정에 대한 신뢰', '나의 문제 해결력에 대한 신뢰', '삶의 주도성 정도'에 대한 문항 점수는 무려 0.93점, 0.87점, 0.79점으로 매우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한다', '관심', '결정' 등과 관련한 긍정적 응답을 확인하였다.
- 협업능력 관련 6개 세부 문항 역시 모두 2차에서 크게 증가하여 4점대를 상회하였다. 협업능력 중 '또래 관계' 관련 2개 지표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진로 고민을 하는 친구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협동의식' 관련 4개 지표의 점수 상승 및 심층인터뷰 응답을 통해 진로 분야와 무관하게 프로젝트 내에서 협동에 기반한 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진로주도성 관련 3개 세부 문항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참여자 심층인터뷰 결과, 교내 진로수업과 달리 직업 이면이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책 활동을 통해 주도성이나 결정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얻었다는 응답을 발견하였다.
- 직업의식 관련 6개 세부 문항은 장래 직업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키워드별로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 '높은 소득'과 '안정성' 관련 지표는 미세하게 감소한 반면, '기여', '협동', '흥미', '능력 발휘 및 성취감' 관련 문항은 모두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특히 소득과 안정성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은 지역 및 프로젝트별로 상이하였으나, 나머지 4개 지표는 공통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래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돈과 안정적 직업이라는 요소는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관점에 변함이 없더라도, 진로 및 직업 고민에 있어 상대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지역사회 인식 관련 5개 세부 문항 모두 프로젝트 종료 이후 증가하였다. '지역 거주 희망'과 관련한 2개 지표에서는 지역 및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였는데, 부정적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자원의 부족', '편의시설 부족', '문화적 측면의 차이' 등을 꼽았고, 긍정적 응답의 경우 '지역적 특성에 대한 애정'이나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 등의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응답 경향성은 지역사회 내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사회자본을 통해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 거주 희망 여부와 별개로 프로젝트 활동 과정에서 지역과 지역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을 하다보니 새로운 자원과 연결되고, 하나의 활동을 지역 안에서 온전히 도움받아 완성할 수 있다는 게 새로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②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의 변화

- 진로 및 목표 설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있다'라는 응답은 증가한 반면, '없다'라는 응답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한 비율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진로 및 목표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에 한해 미설정 이유를 묻는 문항을 살펴본 결과, 표본은 감소하였으나 프로젝트 종료 후 답변이 다양화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지금부터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라는 답변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는 직업 선택의 압박으로부터 탈피해 보다 폭넓은 관심 분야 탐색과 진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취지와 맞닿아있다.
- 14개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 팀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확실한 한 가지 직업 분야를 주제로 삼기보다 한 개의 포괄적 주제 안에 다양한 진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행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 목표가 구성원들의 진로 분야와 직접적 관련이 없었음에도 프로젝트 활동 전후 참여자의 진로의식 및 역량지수는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2. 진로탐색 자원 생태계의 지속과 확산

1) 공교육 연계 방안

① 공교육과의 접점 및 연계 필요성

2015 개정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와 직업' 과목은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과 과정 내에도 선택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진로와 직업 교과의 '성격' 관련 항목 가운데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4개 지표는 아래와 같다. 이 가운데 '자기관리 능력', '공동체의식', '의사소통 능력', '진로 계획과 준비', '자아이해' 등 대부분의 역량 요소 및 하위요소에 있어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제시한 5가지 핵심역량과의 접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교과역량 요소	교과 공통 역량과의 관련성	하위 요소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자기관리 능력 공동체의식 의사소통 능력 심미적 감성능력	자아이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역량	공동체의식 창의·융합사고 능력 심미적 감성능력	일과 직업의 이해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진로탐색 역량	의사소통 능력 창의·융합사고 능력 정보처리 능력	교육기회의 탐색 직업 정보의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역량	자기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융합사고 능력 정보처리 능력	진로의사결정능력개발 진로 계획과 준비

[표 32] 진로와 직업 교과의 역량 요소 및 의미와 하위요소 간의 관계 (자료: 김진숙(2015),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진로와 직업 내용체계에 있어서도 유형화 양상의 차이는 있으나,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진로의사 결정 능력', '진로 설계와 준비' 등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핵심역량 및 주요 키워드와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요소 가운데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극복'이나 '직업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같이 내용체계 항목으로 명시되어있음에도 뚜렷하게 활동적 측면에 반영하기 어려운 요소와 비교해,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직업의식 역량지수 조사는 진로 선택에서의 중요 항목을 통해 직업관의 변화를 살핌으로써 보다 명확한 직업의식 변화 측정이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

영역	핵심 개념	내용	내용 요소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자아이해가 긍정적 자아개념의 토대가 된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자신의 특성(적성, 흥미 등) 탐색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사회적 역량은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을 통해 형성된다.	상황에 맞는 대인관계 능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일과 직업 세계 이해	변화하는 직업 세계 이해	사회 변화에 따라 직업은 다양하게 변화한다.	직업의 역할, 다양한 직업 유형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의 변화
			창업과 창직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건강한 직업 생활에는 건강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	직업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권리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극복
진로탐색	교육 기회의 탐색	자신의 진로탐색을 위해 진로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진로에서 학습의 중요성
			고등학교 유형과 특성
	직업 정보의 탐색	직업 정보를 탐새하는 것은 직업 이해에 필요하다	체험활동을 통한 직업 정보 탐색
			직업 정보를 활용한 직업 이해
진로 디자인과 준비	진로의사 결정 능력 개발	진로의사 결정 능력은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길러진다	진로의사 결정 능력 함양
			진로장벽 요인의 해결
	진로 설계와 준비	진로 준비는 진로 계획에서 시작된다.	잠정적인 진로 목표 설정
			고등학교 진학 계획 수립

[표 33] 2015 진로와 직업 내용체계 표 (중학교 교과) (자료: 김진숙(2015))

프로젝트 모델의 포용적 특성은 개정 교과 교육과정 내 진로와 직업 교과서 개발 방향 내에서 활동 설계 당시 주요하게 고려했던 요소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이는 핵심 개념 및 내용적 측면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각 역량지표 및 세부 문항의 진로의식이 실제 활동에서 영향을 받고 발현되는 수준은 교내 진로교육에 비해 내일상상프로젝트 활동 안에서 보다 융합적이며 다양화되어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첫째로, 진로성숙도를 고려한 교과서 구성 측면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진로 설계가 명확한 학생과 불명확한 학생들이 한 수업에 혼재될 수 있으므로 개별 학생에 대한 진로성숙도를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특정 직업 분야를 주제로 프로젝트가 구성되지 않고 한 가지 주제 안에 다양한 진로 역량이 맞물려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참여자의 진로의식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둘째로, 직업과 진로 교과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위계적 구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는 기초진로탐색,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중학교 단계가 기반이 된 보다 심화된 진로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발견한 청소년들의 진로 욕구 및 관심사는 단선적으로 발전하거나 진화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중학교 단계에서 설정한 관심 분야가 고등학교에 와서 변화하는 경우도 많으며, 경험의 폭과 교내외적 변수로 인해 기존에 설정한 직업 분야의 변화도 수시로 관찰되었다. 이에 2차년 프로젝트에서 지역의 수행주체들은 폭넓은 탐색을 통한 변화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선택지를 넓히는 활동에 보다 집중했다. 그 결과 프로젝트 인적 구성에서도 연령별로 세분화되지 않고 오히려 통합교육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었다. 진주 지역 2차년 프로젝트에 참여한 4개 팀은 각각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양한 연령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상호 의견 수렴 및 활동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셋째로, 교사 중심의 진로와 직업세계 설명이 아닌, 학생 활동 중심의 교과서 편찬에 대한 항목이 있다. 이 역시 청소년 당사자의 주도성을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상통하나, 자기주도적 탐색 활동은 교과서 중심의 학습이 아니라 또래와 협업에 기반한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울 노원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2011년부터 청소년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사회참여 활동 '시작된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황여정, 2017).

> "동네 바닥에 붙은 껌을 떼는 프로젝트 활동이 왜 진로탐색인가? 아주 구체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경험'이야말로 자기주도성보다 훨씬 분명한 언어라는 생각을 한다. 화려한 직업 분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청소년보다는, 작지만 스스로 계획한 구체성을 직접 실행해보고, 그것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진로탐색의 주요한 요소일 것이다."
>
> **현장 전문가 s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넷째로, 진로와 직업 활동은 교내 시설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 활용의 주체가 학생이 아닌 교사라는 점은 결국 활동의 환경적 제약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와 비교해,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람과 공간을 직접 찾아가고 관련 활동을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인프라 활용성 차원에서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2차 연속사업을 통해 요구되었던 새로운 지역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공교육 진로교육체계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지역사회 자원 활용 모델을 통한 진로의식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프로젝트 기반 활동 내에서의 역량 성장도 더불어 검증할 수 있었다.

향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내 효과 확산 및 교내외 진로교육과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1차적 검증의 단계를 넘어, 지역사회 및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주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프로젝트 모델의 효과를 보편적 확산의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② 2차 연속사업 공교육 연계 방안

본 절에서는 2차 연속사업(2019~2021)의 1·2차년 사업을 통한 참여 청소년의 성장과 발굴된 진로 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내 진로탐색 활동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교육 연계 방안을 소개한다. 선택적 활동에서 공교육으로의 확산을 목적으로 3개 지역기관 수행주체는 각 지역의 지향 및 특성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였다.

- 남원 지리산 권역의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 내 4개 중학교 자유학년제 담당자 및 진로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 활동사례 및 효과를 소개하고, 지역 내 진로활동 기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2021년도 자유학년제 내에 내일상상프로젝트 모듈인 상상학

교 및 내일생각워크숍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후속 사업으로서 공교육과의 탄력적 연계 접점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권역 내 학부모 주체와의 네트워킹, 진로탐색 활동 길잡이교사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내 자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 남원 시내 권역의 춘향골교육공동체는 2019~2020년에 걸쳐 83개의 진로 자원을 발굴하였다. 이에 지역자원 아카이브 자료 및 활동사례를 통해 지역 내 진로교육 매뉴얼을 제작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모색한다. 학교 및 교육청과 연계한 홍보 및 사례 확산, 남원 시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들과 자원을 활용한 단계별 매뉴얼 제작, 관내 중학교와 연계한 자유학년제 및 교육복지 등의 진로수업 연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진주 지역의 진주교육공동체 결의 경우, 교사 네트워크와의 접점을 가진 남원의 두 지역과 달리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 연계 모델'을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4개 마을학교와 진로 자원의 연계, 마을교육과정 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진로교육 과정 연계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지속가능한 자원 생태계를 위하여

① '쓰임'에서의 공동화를 통한 진로 커먼즈 확산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진로 자원의 특성은 완전한 의미의 커먼즈 개념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접근 및 활용 방식의 유사성에서 착안하기는 하였으나, 진로 자원의 대표적 사례인 사람책이나 문화공간, 진로탐색 활동 관련 단체 등은 사유화된 개별 주체 혹은 주체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적·물적자원의 커먼즈화란 소유권이 아닌 '쓰임'에서의 공동화를 지향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 다양하게 분포된 일과 삶의 자원들이 청소년 진로라는 키워드와 연결됨으로써 부분적인 공공자원화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트랜드 마을은 하나의 공동체, 번창하고 아름답고 전통이 살아 있는 좋은 영국 마을입니다. 지금 이 마을에는 도자기 굽는 사람, 집 짓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 정원 돌보는 사람, 음악가, 미술가, 시인, 작가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마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시작할 때 나는 마을의 도공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시작합니다. 정규 도자기 선생님을 모실 여유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네 기쁘게 하지요.. 날마다 도자기만 만드는 게 지루해졌습니다. 하루를 비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

이런 식으로 농부와 집 짓는 이, 목수 같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나 반나절 또는 필요한 시간만큼 옵니다. 와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자기들의 학교라고 느낍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 모두를 저마다 잘 압니다. 그저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고, 전시하고, 팔고, 도자기에 대해 장부를 정리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사티쉬 쿠마르,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中

② 자원 생태계 확산에 따른 문화적 활력 제고

'청소년 진로탐색-자원 연계' 모델을 통한 변화는 참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원당사자나 주민 등 지역구성원의 관점에서도 관찰된다. 인물자원조사와 사람책 활동에 진로 자원으로 참여한 주민 소감 및 인터뷰 결과를 통해, 단순히 청소년 진로에 도움을 주는 시혜적 차원의 자원 관점에서 나아가 지역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새롭게 인지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는 성인이지만 아직 꿈이나 직업을 명확하게 정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와 같은 청년들의 고민과 경험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주 2차년 사람책 참여자 소감 中

"제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제 분야가 뭔가 청소년들과 결합할 수 있다고는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예요. 저도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나눌 수 있을지 궁금하고, 같이 관심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귀한 경험이었어요."

자원조사 참여자 o

1·2차년 참여 자원 가운데 일부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계기로 청소년 주체와의 접점을 넓히고자 하는 의지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자원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성원 간 선의를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저는 남원에서 태어나 쭉 살았고 지금도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기에 (진로 자원으로서의) 지금의 제 입장에서 조언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지역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다면 이 친구들 삶도 조금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원조사 참여자 n

자원 생태계 확산에 따른 지역구성원 간 상호 인식의 과정은 지역사회 내 문화적 활력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원과 청소년이라는 주체 모두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향적 교육의 과정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파편화되고 원자화된 구성원 간 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유학년제와 활동과 연계해 지역주민이 청소년과 만나는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2020년)는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교실에서 상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청소년)센터에 방문한 한 학생이 "어? 수업시간에 저 선생님 봤는데"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말을 걸고..."

현장 전문가 s

"저는 마을자치라는 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역보다 더 작은 읍면동 거점 안에서, 옆에 서줄 사람을 찾는 것. 그게 지역성을 회복하는 첫 단계가 아닐까 해요.

청소년 활동을 매개로 나의 역할을 새롭게 발견하고, 청년들의 활동에 관심(식당을 한다고 할 때 가서 손님이 되줄 수 있는 선의)을 가지고, 청소년 활동에 관심(청소년이 내 공간에서 인턴을 하고 싶거나, 다른 인터뷰하고 싶거나, 진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선뜻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지역성을 재구성될 수 있는 것. 관계라는 건 그런 식으로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지해주고, 옆에 서줄 구성원이 있음을 자각하는 것. 한 사람만 있어도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 내일상상프로젝트도 지역 안에서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장 전문가 r**

③ 수행주체 거점화를 통한 자원관리 기반 구축

자원 플랫폼은 필요한 청소년 누구나 지역 안에서 자신의 니즈에 따라 진로 자원에 쉽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교육부 산하 온라인 진로체험 서비스 플랫폼인 '꿈길'의 운영방식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5]

첫째는 물적·양적 자원의 전국적 확산보다는 사회자본과 커먼즈 공동화를 통한 지역 내 자원망의 자립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1·2차년 프로젝트 모두 활동 주제가 특정 직업으로 수렴하기보다는 한 개의 주제 안에 다양한 역량이 조화롭게 녹아드는 경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내 한정된 자원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관심사와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관리 주체의 차이이다. 2차 연속사업 종료 이후에도 각 지역에서는 수행 주체와 발굴된 자원 간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진로 자원의 적극적 관리 및 활용이 요구됨에 따라, 각 지역의 프로젝트 수행 주체인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교육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각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총 3년간 발굴한 자원을 아카이빙한 '진로 자원 플랫폼'의 온오프라인 형태 및 운영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자원관리 측면에서 수행 주체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결국 지역 내 교육 생태계 조성과 연결된다. 아래 의정부 사례는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가 결합한 하나의 사례로서 이해할 수 있다.

2011년 혁신학교 사업이 전국적으로 선포된 후, 의정부 내에서는 의정부여자중학교가 첫 혁신학교로 선정되었다. 혁신학교의 성공모델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제한적 여건임에도 의정부여중 사례는 기존 학교의 문제 사례를 발견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여기에는 발전모델이 숙성되지 못하고 자원들이 파편화되는 한계[6]도 존재했는데, 이를 계기로 새로운 학교 설립이 제안되었다. 이는 공교육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 내 비인가 대안학교 모델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영역에서 교사, 학부모, 지역활동가 등이 연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2014년 '꿈이룸학교(의정부 몽실학교의 전신)'를 중심으로 마을 내 교육공동체, 대안학교, 교육청 장학사 등이 결합하여 교육생태계 전반이 인근 지역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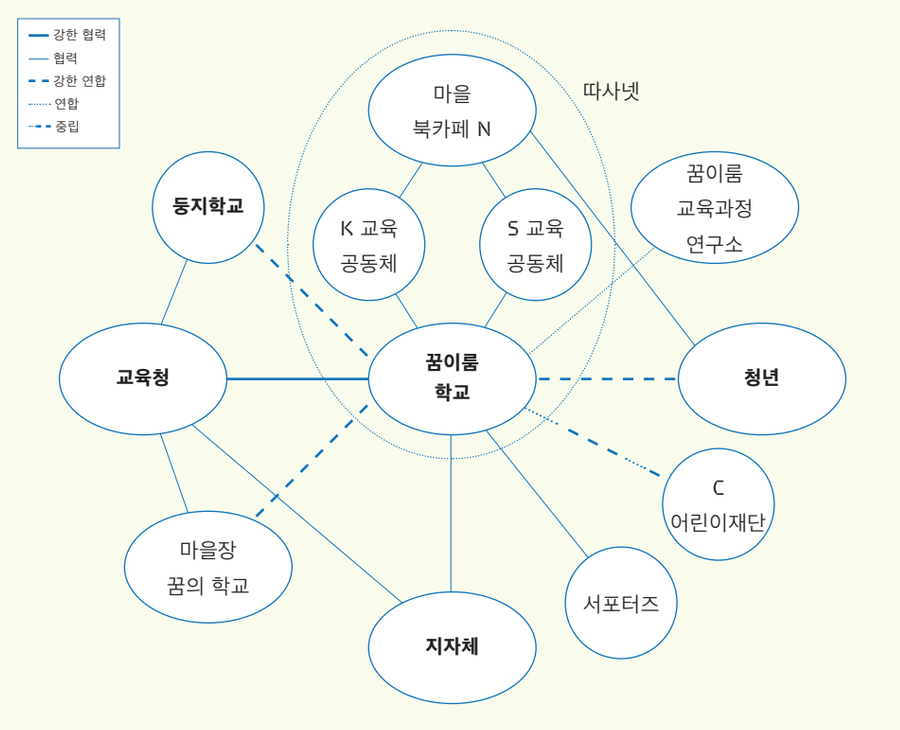
위 사례와 같은 도식을 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접목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의정부 몽실학교 사례는 공교육 및 지자체와 청년 주체, 청소년 공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자원망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공교육 및 지역 내 거점 주체 및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일련의 네트워킹 과정이 차년도 주요 과제로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원 자료의 확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진로 자원 플랫폼을 관리할 거점 주체로서 수행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림 74]는 교육 커먼즈 관점에서 본 마을(교육)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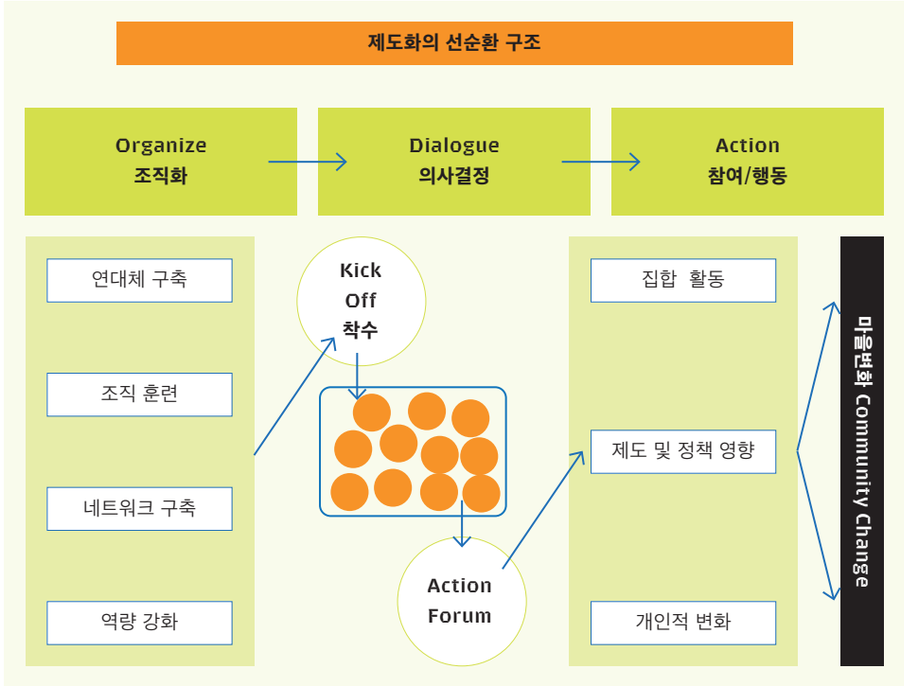
5. 진로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부는 진로체험 전산망 '꿈길'을 구축해 전국의 진로체험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진로체험처는 시·도교육청의 점검 및 인증을 거쳐 등록되며, 진로정보 교육망 통합회원 가입자는 등록된 진로체험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강화되어 6개 유형에 따라 16,471개의 체험처를 발굴하였다(유진,2020).

6. 혁신학교의 문제 가운데에는 사업 진행기간이 종료 후 교사, 학부모, 활동가 등 초창기 구성원들이 흩어짐으로써 다시 초기단계부터 만들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혁신학교라는 틀 내에서는 교내에서 검증한 효과가 인근 학교나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출처: 몽실학교 길잡이교사 자문 인터뷰 응답)



[그림 73] 의정부 지역 교육생태계(자료: 안순억 외(2019), 원자료 출처: 조윤정 외(2016)

의 발전 모형으로,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 확산을 목표로 하는 각 지역 내일상상프로젝트 수행기관의 자원관리 주체화 방식에도 대입해볼 수 있다. 우선 1·2차년 진로 자원조사 및 활용사례 확산은 자원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청소년과 지역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화(organize) 단계로 이해된다. 수행기관은 기초 진로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젝트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기반을 강화하였다. 3차년에는 커먼즈화된 자원망 구축과 청소년 활동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역량 강화라는 과제를 이어나감과 동시에, 실천적 단계(action)에 해당하는 공교육 및 지역사회 거점과의 직접적 연결이 요구된다. 수행기관은 앞선 공교육 연계 방안을 포함하여 학교, 교사 및 학부모 네트워크, 지역 내 진로 관련 기관, 청소년기관 및 유관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효과성을 설득함으로써 후속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림 74] 마을(교육)공동체 제도화의 선순환 구조(자료: 안순억 외, 2019)

다만 이러한 거점 연결과 자립기반 형성은 수행기관인 마을(교육)공동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 내 '교육자원화'를 통해 공교육 진로탐색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수행기관의 역할이라면, 이러한 민간 주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활동 취지에 감응해줄 수 있는 공교육 및 지자체의 지속적 관심과 연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후속 사례 발굴과 프로젝트 효과성에 기초한 제도적·정책적 제언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숙(2015), 「진로와 직업과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데이비드 볼리어(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배수현, 갈무리

데이비드 W. 오어(2014), 『작은 지구를 위한 마음』, 이한음, 현실문화

박서현(2020), 「교육커먼즈로서의 대학의 가능성 : 대학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대학 : 담론과 쟁점(1)』, 43-65

박진숙(2017), 『우리는 작은 가게에서 어른이 되는 중입니다』, 사계절

백병부·성열관·양성관(2015, 「혁신학교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경기교육연구원

보리편집부(1997),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보리

백병부·박복선·송창순·이민선(2016),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수시연구과제 2016-10)

백영경(2017), 「커먼즈와 복지 :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ECO 제21권 제1호, 111-143

서우철(2017), 「학생 주도 교육의 장 '꿈이룸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한국교육사회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사회변화와 교육:과거, 현재, 미래」, 47-54

안순억·정용주·윤상혁(2019), 「커먼즈의 교육개혁 적용 방안 연구」, 경기교육연구원, 현안보고, 2019-12

유진(2020),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확산과 지역사회 및 학교 연계 운영 방안」

이상철·강석봉(2018), 「학교마을공동체 개념 정립과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한 활성화 과제 탐색」

이승훈(2013), 「마을을 바탕에 둔 청소년 진로, 꿈 교육 활동: 「시작된 변화」와 공릉동 꿈마을공동체 「꿈나르샤」 사례」, 2013년 미래를여는청소년확회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춘계 공동학술대회 청소년진로체험활동 자료집, 19-39

이철수 · 박현희 · 송승훈 · 배경내 · 하종강(2011), 『나는 무슨 일하며 살아야 할까?』, 철수와영희

정영신(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한국환경사회학회 ECO』 20권 1호

조아미(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8-16-1

최현(2013),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_공동자원으로서의 특징」, 『경제와 사회』

최현·정영신·윤여일(2017),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 진인진, 제주대학교 SSK연구단 공동자원연구총서 005

한겨레 21 (2017.05.30.), "학교 안팎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다", http://h21.hani.co.kr/ arti/society/society_general/43611

황여정(2018),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8-R04

황여정(2017),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7-R01

홍정희(2016),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 경험의 교육적 의미: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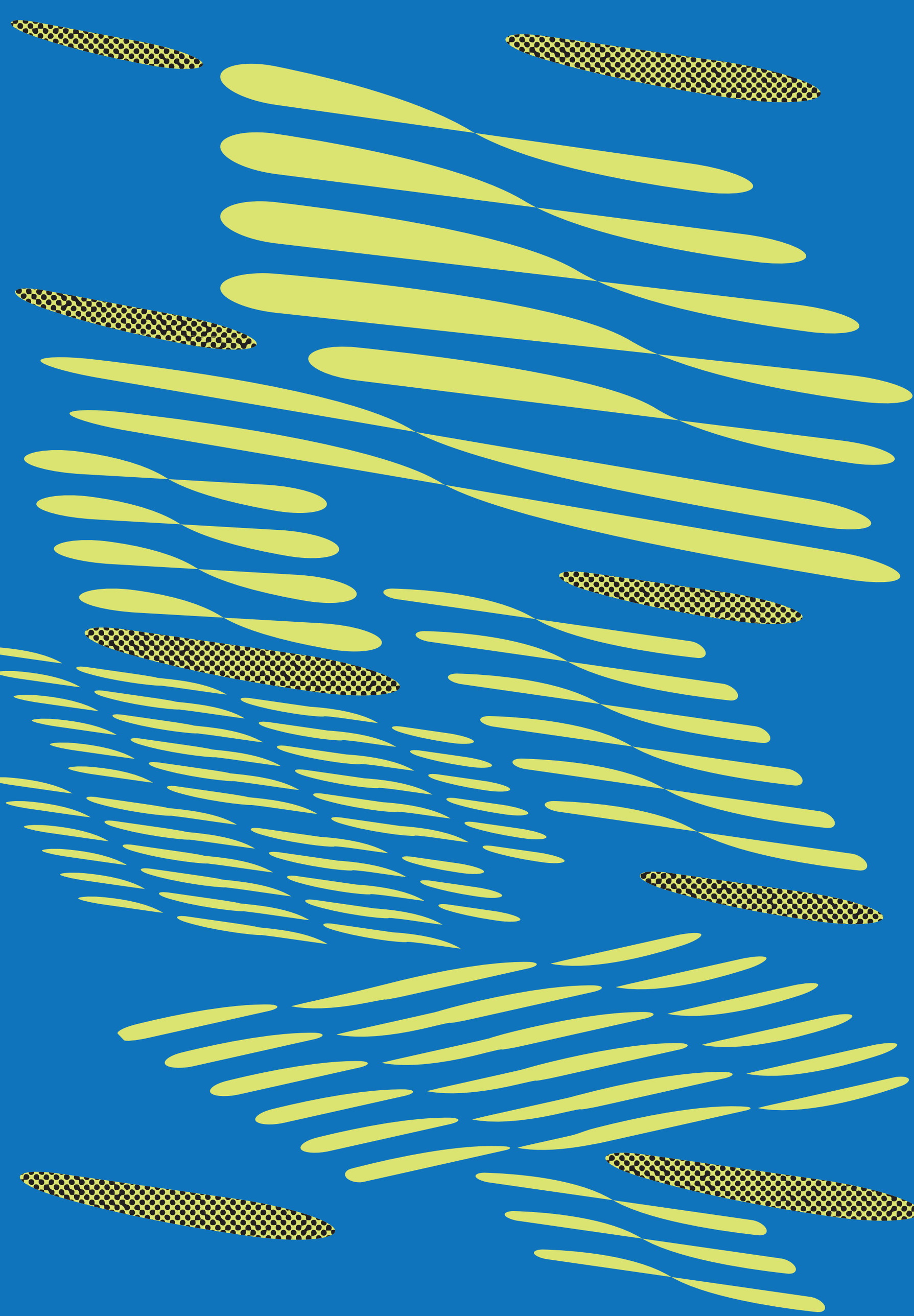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소년 진로탐색 활성화 방안 연구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행인
정지강
연구책임
이시원
디자인
오늘의풍경
발행일
2021년 4월
발행처
(재)희망제작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성산동, 114-14)

Tel. 02-3210-0909 Fax. 02-3210-0126 www.makehope.org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소년 진로탐색 활성화 방안연구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